KINU 연구총서 16-13

최근 중동사태에 비추어본 북한 체제지속성 연구

김진하 · 현승수 · 백우열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통일연구원

KINU 연구총서 16-13

최근 중동사태에 비추어본 북한 체제지속성 연구

김진하·현승수·백우열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통일연구원

최근 중동사태에 비추어본 북한 체제지속성 연구

KINU 연구총서 16-13

인 쇄 2016년 12월
발 행 2016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최진욱
편 집 인 국제전략연구실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02-2023-8000
(팩시밀리) 02-2023-8297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세일포커스(02-2275-6894)
인 쇄 처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인쇄사업장(02-6401-8891)

ISBN 978-89-8479-856-4 93340
북한 체제, 북한 정치 사정
340.9111-KDC6 / 320.95193-DDC23 CIP2016032369

가 격 7,000원

ⓒ 통일연구원, 2016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02-734-6818), 사무실(02-394-0337)

최근 중동사태에 비추어본 북한 체제지속성 연구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차

요약 ····· vii

Ⅰ. 서 론 | 김진하 ····· 1

1. 연구목적 및 사례선정 ····· 3
2. 이론적 배경 ····· 7

Ⅱ. 이집트 사례연구 | 김진하 ····· 13

1. 역사적 배경 ····· 15
2. 독재체제의 붕괴 원인 분석: 통치연합의 분열 ····· 19
3. 체제외적 요인 ····· 39

Ⅲ. 시리아 사례연구 | 현승수 ····· 45

1. 역사적 배경 ····· 48
2. 아사드 체제의 생존 요인 분석 ····· 60
3. 아사드 체제의 전망 ····· 79

Ⅳ. 투르크메니스탄 사례연구 | 백우열 ····· **83**

1. 투르크메니스탄 독재체제: 연구 필요성과 현황 ····· 85
2. 투르크메니스탄 권위주의 체제 형성의 역사적 배경과 과정 ····· 89
3. 투르크메니스탄 개인-당 독재체제 유지 원인 분석 ····· 102

Ⅴ. 결론: 사례연구와 김정은 정권의 체제 지속성에 대한 시사점 | 저자 일동 ····· **113**

참고문헌 ····· 131

최근 발간자료 안내 ····· 145

요 약

본 연구는 그간의 북한체제 지속성 연구가 보였던 미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전통적 비교사례 접근법을 차용한다. 북한은 수령유일독재체제로 대변되는 독재자 중심의 개인독재(Personalist Dictatorship)에 일당독재(Single-Party Dictatorship) 및 군부독재(Military Dictatorship)적 요소가 가미된 혼합정체(Hybrid Regime)를 구축하고 있다. 적실성 있는 비교를 위해 북한체제와 범주적으로 유사한 중동 독재국가들 중 이집트, 시리아, 투르크메니스탄 사례를 채용한다.

이들 세 가지 사례는 북한과 출발점이 유사한 데 비해, 재스민 혁명기 이후 결과물은 상반된다. 즉, 이집트는 정권 및 체제 전환, 시리아는 위기 속 체제연명, 투르크메니스탄은 공고한 안정성을 보인다. 이는 유사구조 내 변인들 중 상이점들이 다른 결과를 만들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즉 [유사한 체제 ⇨ 체제 유지 경로상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개인독재체제의 구성요인 및 운영에서의 부분적 차이점이 다른 결과를 초래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이들 국가에 대한 비교사례 연구를 통해 개인독재유형 혼합정체의 지속 및 전환에 대한 원인과 과정을 추적해 볼 수 있다.

먼저 이집트 사례이다. 이집트 독재체제의 붕괴는 외형과 드라마에 주목하는 다수의 언론이 그려내듯, '독재자 대 민중의 대결,' 그리고 시민의 승리라는 단순구조로 이해될 수는 없다. '빵(아이쉬 또는 코샤리)의 혁명'이라고 별칭되는 이집트판 민중봉기(Intifada)의 전개는 이집트 독재정권 붕괴라는 전체 스토리의 제1막을 차지할 뿐이다. 본 연구는 통치 엘리트 분열이라는 측면(즉, 독재정권의 지배연합 관리실패)에 주목한다.

외형상 체제 외적 요인, 즉 민중봉기에 의한 독재체제 붕괴로 보이는

이집트 사태의 본질은 오히려 지배연합 내 엘리트 분열, 즉 군부의 이탈에 있으며, 이 점에 착목할 때,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군부의 역쿠데타와 이집트판 테미도르 반동의 실체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민중봉기가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 자체의 힘만으로 정권을 무너뜨리고, 혁명적으로 수권한 것은 아니다. 기존 엘리트층의 분열과 이합집산이 구체제 붕괴에 치명적 역할을 수행했으며, 오직 이 상황을 인식할 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집트 혁명극의 제2막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이집트 독재체제는 군사쿠데타(Nasser와 Free Officer 그룹의 1952년 쿠데타)로 탄생했다. 그러나 바로 공군장성 출신 대통령 무바라크는 역설적으로 군부의 방관 속에 종결된다. 이집트 군부의 대응은 아사드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하려는 듯 시민학살을 감행하였고, 이는 내란상황과 국제 압력을 감내하고 있는 시리아 군부와는 큰 대조를 보인다.

시리아 아사드 정권은 격렬한 내전 상황에서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엘리트 포섭을 통한 강고한 엘리트 지배연합 구성, 대중 포섭을 통한 최소한의 통치기반 유지, 그리고 러시아의 지원이라는 세 가지 요인이 작용하였다.

시리아에서도 재스민 혁명의 여파로 민중봉기가 발생한 이후, 여타 중동 국가들처럼 엘리트들 사이에서 이반의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그러나 이반의 주역은 주로 권력상 낮은 지위에 있는 관료들이었으며 그들은 압도적으로 수니파에 속해 있었다. 이에 반해 권력의 상층부에 포진해 있던 알라위파 소속 엘리트들은 아사드를 지지하며 좀처럼 이탈하지 않았다. 그 원인은 제도화된 '포섭(co-optation)'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시리아의 맥락에서는 바트당의 포섭이 제도화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트당의 경우 시리아 공화국 헌법 제8조에 따라

"국가와 사회의 지도적 당"으로 인정받으면서 "애국적, 진보적 전선을 지도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또 바트당은 통일사회주의자당이나 아랍사회주의연합당과 같은 9개 정당·파벌과 통일 리스트인 '진보국민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전략적 조정(strategic coordination)'에 대한 아사드 정권의 방해이다. '전략적 조정'이란 특정 상황에서 정치권력을 손에 넣기 위해 필요한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즉 특정 세력들 사이에 연대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거나 뜻을 같이하는 구성원을 리크루트하고 이를 집단화하며, 지도자를 선택하고 조직을 강화하여 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시리아는 내전 이전은 물론 내전 중에도 권위주의 정권이 시민사회 내 세력들 간 전략적 조정을 방해하는 단적인 사례를 제공한다. 아사드 정권은 시리아 사회를 분절화하는 다양한 사회적 균열(종교 및 종파, 민족 및 종족 집단)을 교묘하게 컨트롤함으로써 국가의 사회 지배를 지탱해 왔다.

둘째, 대중 포섭전략이다. 먼저, 후원이다. 시리아는 아랍 사회주의에 기초한 통제 경제를 실시해 왔다. 하페즈 아사드 정권하에서는 국제금융 기관의 지원을 받지 않고 개혁을 추진한 반면, 바샤르 정권은 민영화와 외국 투자 촉진 정책을 단행하기도 했다. 바트당은 대중적 기반을 획득하기 위해 후원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데 주력했다. 바트당은 후원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충성을 이끌어내는 정치 기제이며 또 체제를 유지하는 감시 기구인 셈이다.

셋째, 국제행위자(특히, 러시아)의 후원이다. 특히 시리아의 우방인 러시아는 내전에서 열세에 처해 있던 아사드 정권을 구제하는 데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첫째는 현재의 시리아가 이란과 함께 소중한

중동의 우호 국가이기 때문이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이라크나 리비아에서 친러 정권이 붕괴함으로써 시리아와 이란의 상대적 중요성이 제고됐다는 점이 러시아의 결정적 개입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여기에 러시아와 우호 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체제 전환의 물결에 휩쓸리는 것을 막고자 하는 푸틴의 위협 인식, 더욱이 옛 소련 국가들에 친미 정권을 등장시킨 2000년대의 색채혁명(Color Revolution)이 중동 지역에 재현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푸틴의 세계 전략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또한 체첸 등 북코카서스(North Caucasus) 지역의 이슬람 과격파 세력이 시리아에서 확대일로에 있는 IS 세력과 연계되는 것을 우려해 시리아 내전에 개입했을 개연성도 무시할 수 없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권력승계 과정은 개인독재 유형의 권위주의의 약점을 극복해 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니야조프의 영구집권 의도에 따른 후계자 미지정 정책에 대응하여 그의 후견주의 네트워크의 핵심 그룹인 국가보안기구의 수장이 레제포프와 그 지지자의 건강을 모니터하면서 상당 기간을 잠재적 경쟁자가 아닌 충성스러운 지지자로 인정받아 부총리에까지 오르며 행정 조직을 관장하며 장기간 권력의 핵심 네트워크에 속했던 베르디무하메도프와 그의 지지자들이 결합한 것이 결정적인 변수였다. 이 두 세력의 결합은 신속하게 국가보안기구를 통해 후계 경쟁 세력의 숙청과 헌법 개정이라는 작업을 여당이 장악한 국회와 인민위원회를 통해서 신속하게 진행하였고, 이후 형식적인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베르디무하메도프를 공식적인 권력 승계자로 추대하면서 급속하게 권위주의체제 안정을 달성하였다.

또한 투르크메니스탄은 술탄이즘적(sultanism) 권위주의체제로 분류할 수 있다. 술탄이즘은 극단적인 개인독재자가 가능한 모든 권력

수단을 사용하여 개인, 집단, 제도 등을 자의적으로 조작하여 모든 통치 행위를 좌우하는 권위주의체제로서 이슬람의 종교적 지도자인 칼리프와 달리 세속적인 군주인 술탄 중심의 정치체제에서 기원하였지만 현대 비교정치에서는 중동과 이슬람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지역의 유사한 군주제적 권위주의를 분석하는 개념이자 이론틀로 사용된다. 린쯔(Juan Linz)와 스테판(Alfred Stepan)은 김일성 치하의 북한을 술탄이즘적 권위주의로 분석하기도 하였고 이는 김정일과 김정은 체제에도 적용될 수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니야조프와 베르디무하메도프 두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자신을 권력의 정점으로 한 수직적인 권위주의적 권력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할 때 투르크메니스탄 권위주의체제는 술탄이즘적 전제 군주적 요소가 가장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우상화 정책에 의해 대통령의 신격화, 행정부 수장의 지위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를 모두 개인의 통제하에 두는 술탄 군주적 위상을 유지하면서 수직적 신가산제 후견주의를 기반으로 한 권위주의체제를 형성하였다.

또한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는 닫힌 권위주의체제로서 폭력적 억압을 전방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폭력적 억압은 기본적으로 엘리트 계층과 일반 시민에 대한 '경찰국가(police state)'적인 감시와 통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니야조프와 베르디무하메도프는 공히 자신의 잠재적 경쟁 세력들뿐만 아니라 핵심 후견주의 네트워크에 속한 엘리트들의 동태를 매우 면밀히 감시하고 통제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핵심 엘리트의 숙청 및 재산 몰수를 행했으며, 이는 국가보안부(Ministry of National Security), 대통령경호실, 그리고 이들과 깊숙

이 연관된 비밀경찰(secret police) 조직들을 통해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 또한 의미 있는 야당이 출현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단되었다. 이로 인해서 대통령 1인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재스민 혁명 이후 체제교체(이집트), 불안정한 위기 속 체제지속(시리아), 안정적 체제유지(투르크메니스탄)의 사례에서 보이는 체제유지 조직의 견고성과 통치연합의 구성 등과 같은 구조적 변인들과 그 과정을 추적하여 북한체제의 지속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현재 북한은 외형상 투르크메니스탄 사례에서와 같은 체제 안정성을 보이나, 통치연합의 축소, 경제적 파탄 및 국제적 고립 등으로 시리아 사례와 같은 불안정한 사태로 발전될 개연성을 담지하고 있다. 김정은 등장 이후 계속되는 군부의 숙청과 제약은 이집트 사례에서 발견되는 군부의 정권저항으로 연결될 소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개인독재, 혼합정체, 재스민 혁명, 북한, 이집트, 시리아, 투르크메니스탄

Abstract

Study on North Korea's Regime Sustainability with a Reflection on the Recent Situation in the Middle East

Kim, Jin-ha et al.

In order to formulate effective policies toward North Korea,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any unification-related diplomatic strategies, policy research on North Korean regime's sustainability is required with its basis on academic objectivity and empirical validity. This study employs a traditional approach of comparing different cases with the current North Korean regime in order to overcome shortcomings of previous research on North Korean regime's sustainability. The North Korean regime has been establishing its status as a hybrid regime which exhibits not only the characteristics of a Personalist Dictatorship with one-man ruling system, but also those of Single-party Dictatorship and Military Dictatorship. To improve accuracy and efficacy of the comparison, this study analyzes the cases of three states: Egypt, Syria, and Turkmenistan, which are aptly categorized with North Korea in a similar pool as being autocratic states of the Middle East. In the process of examining three different cases: the regime change followed by the Jasmine Revolution in Egypt, the enduring regime amidst destabilizing crisis in Syria, and the firmly maintained regime in Turkmenistan; this study, in order to derive implications for North Korean regime sustainability, examines implications in the structural variables such as solidarity of regime's maintenance and composition of governing coalition. The current status of North Korean regime

is externally aligned with the case of Turkmenistan in the context of regime's stability; however, some aspects of North Korea such as diminution of the governing coalition, economic deterioration, and international isolation, would probably make the current North Korean regime similar to the case of destabilized Syrian regime. Continued military purges and restrictions imposed after Kim Jong-un rose to power may also lead military groups to resist against the current regime as shown in Egypt's case.

Keywords: Personalist Dictatorship, Hybrid Regime, Jasmine Revolution, North Korea, Egypt, Syria, Turkmenistan

Ⅰ. 서 론

김진하(통일연구원)

1. 연구목적 및 사례선정

실효성 있는 대북·통일정책 및 통일외교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학술적 객관성과 경험적 타당성에 근거하여 북한 체제지속성에 대한 정책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체제의 지구력에 대한 논의는 소련 붕괴와 더불어 북한 내 경제적·정치적 위기상황이 중첩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간의 연구는 다음 두 요인으로 인해 적실성이 결여된 측면이 강하다.

첫째, 정책필요성이나 현안논쟁 등 수요에 집중된 비구조적 연구 편향이다. 탈냉전의 국제정세 변화, 미중 대립 격화, 북한 핵문제 악화 등 당면한 정책적 문제와 이에 대한 논쟁에 결부되어 북한체제의 특성 및 지속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학술적으로 견고한 접근보다는 전망 및 현안대책 위주의 편의적 연구가 대세를 이뤄왔다. 이런 경향의 연구 접근방식은 당면 현안의 성격 및 이에 대한 연구자의 편중된 지식과 편견이 고스란히 반영되는 결과를 초래하곤 했다.

대표적인 예가 외형상의 몇 가지 지표 등의 해석을 둘러싼 소위 북한 붕괴론 대 지속론 논쟁이다.[1] 이러한 논쟁은 주로 현안의 중대성이 부각될 때 조금씩 양태를 바꿔가며 또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체계적인 연구 성과의 집적을 가져오기보다는 유사 논쟁의

1) 붕괴론자들이 주로 식량난, 경제지표 하락, 세습 과정상의 파열음 등에 주목하는 반면, 지속론자들은 탄압기제의 견고성 등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 참조. Marcus Noland, *Korea after Kim Jong-il*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04), pp. 12~19; Daniel Byman and Jennifer Lind, "Pyongyang's Survival Strategy: Tools of Authoritarian Control in North Korea," *International Security*, vol. 35, no. 1 (Summer 2010), pp. 44~74. Also see Jennifer Lind, "The Once and Future Kim: Succession and Stasis in North Korea," *Foreign Affairs,* Snapshot, October 25, 2010, 〈http://www.foreignaffairs.com/articles/66870/by-jennifer-lind/the-once-and-future-kim〉. (검색일: 2016.9.12.).

반복적 재현을 초래했을 뿐이었다.

둘째, 북한 특수성론이다. 거시적 지표나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예측에 반하는 북한체제의 생존력은 일반적인 사회과학적 접근의 유용성을 부인하는 듯 보인다. 이로 인해 북한 역사나 정치문화 등 특유의 속성에 착목하는 내재적 또는 지역특수론적 해석이 득세하는 북한연구상의 특이성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여타 사례에 대한 비교연구나 통계적 접근 등은 북한 이해에 그다지 유용하지 못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은 결과적으로 통제되지 않은 무수한 변수와 세부사항들에 노출되면서, 체제지속성 분석에 있어서 비구조적 진단과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문제점을 불러오곤 했다.

전자의 접근방식이 시의성에 치우친 논쟁적(polemic) 편향성의 한계를 보인다면, 후자는 일반성과 타당성 결여의 문제점을 노정시킨다. 본 연구는 이러한 그간의 북한 체제지속성 연구가 보였던 미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전통적 비교사례 접근법을 차용한다. 북한은 수령유일독재체제로 대변되는 '독재자중심의 개인독재(Personalist Dictatorship)'를 구축하고 있다.[2)]

이와 범주적으로 유사한 독재국가들의 체제붕괴, 불안정한 위기 속 체제지속, 안정적 체제유지의 구조적 변인들과 그 과정을 추적한다면, 북한체제의 지속성에 대한 보다 적실성과 타당성을 구비한 시사점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유사구조의 비교연구를 통해 체제지속성에

---

2) 이 장의 제2절에서 개인독재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논의를 소개한다. 독재체제를 개인독재, 군부독재, 당독재의 3범주로 분류하여 고찰한 주요 저작은 다음과 같다. Samuel P. Huntington,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91), pp. 110~121; Barbara Geddes, *Paradigms and Sand Castles: Theory Building and Research Design in Comparative Politic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3), pp. 50~69.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과 변화과정을 구조적으로 추출해보자는 취지이다.

재스민 혁명 이후 중동사태들은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중요한 사례들을 제공해준다. 첫째, 본 연구에서 채택된 이집트, 시리아 및 투르크메니스탄(통상적으로는 중동 지역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는 투르크메니스탄 사례 채용 이유에 대해서는 밑에서 설명)은 체제 분류상 독재자 중심 개인독재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혼합정체(Hybrid Regime) 사례를 구성한다.

마치 북한이 유일독재를 근간으로 일당독재적 요소와 선군정치하 군부체제적 요인들이 혼합된 형태의 체제를 구성하듯, 이집트 무바라크 정권은 "대통령 군주제(Presidential Monarchy)"[3]를 기본으로 패권정당체제와 군부통치가 가미된 혼합정체 형태를 보여주었다. 시리아 아사드 정권도 세습제 일인독재를 근본으로 바트당 독재와 군부통치가 결합된 혼합독재체제였다.[4] 소련 붕괴 후 독립한 투르크메니스탄 역시 니야조프-베르디무하메도프로 연결되는 개인숭배형 일인독재체제에 소비에트 연방 시절 계수된 일당독재유산이 결합된 혼합정체를 구성하고 있다. 즉, 이들 세 가지 사례의 출발점이 체제 분류상 유사하며, 또한 북한체제와도 비교가능성이 높다.

둘째, 이들 세 가지 사례는 출발점이 유사한 데 비해, 재스민 혁명기 이후 결과물은 상반된다는 점이다. 즉, 이집트는 정권 및 체제 전환, 시리아는 위기 속 체제연명, 투르크메니스탄은 공고한 안정성을 보인다.

이는 유사구조 내 변인들 중 상이점들이 다른 결과를 만들었음을

3) Roger Owen, *The Rise of and Fall of Arab Presidents for Lif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12), p. 66.

4) 1952년 나세르 주도 자유장교단 쿠데타 이래 이집트는 57년, 시리아는 1970년 하페즈 알 아사드 쿠데타 이래 부자세습으로 현재까지 지속되는 등 양국은 강인한 개인독재형 혼합정체의 전형적 사례를 제시한다.

강력히 시사한다. 즉 [유사한 체제 ⇨ 체제 유지 경로상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개인독재체제의 구성 요인 및 운영에서의 부분적 차이점이 다른 결과를 초래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이들 국가에 대한 비교사례 연구를 통해 개인독재유형 혼합정체의 지속 및 전환에 대한 원인과 과정을 추적해 볼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대규모 시민저항과 국제사회 압박 시 이집트(분열)와 시리아(단합) 개인독재 통치연합의 대조적 대응은 집중적으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변수통제의 문제이다. 이 연구에서 선택된 세 가지 사례는 상대적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강력한 이슬람 정치경제 문화의 영향력하에 있다. 이들 사례가 체제전환, 위기 속 연명, 안정적 유지라는 차별되는 결과를 보인다면, 이는 이슬람 문화라는 공통요소가 주요인이 되기는 힘들다.

즉, 본 비교연구에서 통제되지 않는 변수들 중 가장 강력한 경쟁변수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이점을 누릴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개인독재체제 지속 요인에 대한 고찰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비이슬람 국가인 북한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투르크메니스탄은 관습적으로 중동 국가로 인식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여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는 달리 지역적으로 근접하여 중동 지역 정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슬람 국가 투르크메니스탄도 지역개념의 광의적 해석상으로는 중동에 포함되기도 한다. 또한 투르크메니스탄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등과 밀접한 정치경제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도 하다.

무엇보다 중동과 유사한 일인개인독재체제와 가산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안정적인 장기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투르크메니스탄의 사례 연구는 북한 체제지속성 분석에 긴요하다.[5] 체제 취약성을 드러낸 이집트 및 시리아와는 달리 강력한 체제 결속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북한체제의 지속성 진단에 초점을 맞춘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례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이어지는 Ⅰ장 1절에서는 사례 연구에 필요한 개인독재체제에 관한 개념적·이론적 논의를 설명한다. Ⅱ장부터 Ⅳ장은 사례 연구의 장으로 구성된다. 각기 이집트 무바라크 체제(Ⅱ장), 시리아 아사드 정권(Ⅲ장), 소련 해체 및 독립 이후 현재까지 강력한 인적독재체제가 지속되는 투르크메니스탄(Ⅳ장)을 다룬다. Ⅴ장 결론은 이상의 사례 연구가 주는 김정은 권위 체제 지속성에 대한 시사점들을 요약한다.

2. 이론적 배경

이 절에서 독재자 중심 개인독재체제의 지속성 연구에 필요한 개념 및 이론적 논의들을 설명한다. 먼저 정치체제(Regime, 이하 체제 또는 레짐) 개념부터 시작한다. 레짐은 "정치공동체 내 권력의 배분, 행사 및 오용의 패턴"으로[6] "국가 지도자들의 선별과 정책 선택을 위한 공식적, 비공식적 규칙과 절차의 집합체(Sets)"로 정의될 수 있다.[7] 국가가 통치의 인프라(Infrastructure)라면[8] 레짐은 국가기제(예, 군대, 국가관료제 등)를 "운영"하는[9] "정치적 게임의 패턴"으로서 누가 어떻게

5) 투르크메니스탄 사례 선정의 보다 자세한 논의는 본 보고서의 제Ⅳ장 참조.

6) H. E. Chehabi and Juan J. Linz, eds., *Sultanistic Regime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1998), p. 10.

7) Barbara Geddes, "What Do We Know about Democratization after Twenty Year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vol. 2 (1999), p. 116, fn. 1.

8) Michael Mann, *States, War and Capitalism: Studies in Political Sociology* (New York: Basil Blackwell, 1988), p. 5, "State ... Infrastructural Power." 참조.

통치하는가(Who Rules How?)를 결정(즉, 권력의 배분 및 정책결정권자의 구성을 결정)한다.[10]

협의의 레짐은 보다 구체적으로 정권 또는 정부를 지칭하는 협의의 용어로 쓰이기도 하는데, 이 경우 특정 시기 실제 통치를 담당하며 체제를 장악하는 특정 세력 및 조직을 지칭(법률적 의미의 집행부와는 별개)하게 된다.(대표적인 예로, '김정은 정권'과 유사한 의미로 쓰이는 '김정은 체제'를 들 수 있다.)

체제와 국가(State)의 실체적 구분이 어려운 정치공동체(예, 북한)일수록 개념적, 분석적 차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11] 두 개념을 분석적으로 구분한다면, 체제의 장악력 및 내구력이 국가능력과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보다 명확해진다. 북한의 경우, 핵능력 등 일부 군사적 국가능력을 제외하고 국가실패의 양태를 보이고 있으나, 체제의 국가기제 및 사회부문에서의 장악력과 내구력은 상대적으로 건재하다.

소련붕괴 사례는 북한의 경우와는 상반된다. 구소련은 방대한 군사력, 경찰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강력한 국가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개방정책 추진 이후 권위주의체제의 장악력이 급속히 감소하면서 붕괴되었다. 따라서 국가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 중 체제능력 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표들에 집중하여야 전략적 유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9) Dan Slater, *Ordering Power: Contentious Politics and Authoritarian Leviathans in Southeast Asia*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p. 36, "Regimes ... drive the States." 참조.

10) Geddes, *Paradigms and Sand Castles: Theory Building and Research Design in Comparative Politics*, p. 44, "Regimes .... Rules of the Political Game." 참조.

11) Robert Fishman, "Rethinking State and Regime: Southern Europe's Transition to Democracy," *World Politics*, vol. 42, no. 3 (April 1990), pp. 422~440 참조.

독재체제 권력정치인들이 첫째, 민주체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가정이나 제도화 및 법치의 수준이 낮고, 소유한 정치권력의 강약에 따라 경제·사회적 지위와 자원 배분이 결정되는 독재체제에서 보다 적실성 있게 응용될 수 있는 가정이다.

독재체제 개별 정치인의 행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incentive)는 정치적 생존이다.[12] 독재체제 정치 사업가(political entrepreneur)로서 직업정치인은[13] [1] 권력 배분 게임의 규칙(rule)에 효과적으로 적응, 더 높은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며, 일단 차지한 지위를 유지하려 최선을 다할 것이다. [2] 이를 위해 그는 지위와 권력을 부여할 수 있는 권능을 지닌 조직(예, 일당독재체제에서 집권정당)이나 집단(예, 민주체제라면 선거구민),[14] 또는 개인(예, 독재자 중심 인적독재체제에서는 유일독재자)이 원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집단지도가 제도화된 군부독재나 당독재와 달리, 독재자 중심 개인독재체제에서 [1] 최고지도자의 권위가 굳건하고, [2] 인적 후원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중요한 체제 지지자들에게 분배할 자원이 충분히 존재하는 한, 체제 인사이더들의 결속력과 체제 내구력은 여타 권위주의 체제에 비해 '오히려' 강하게 유지된다. 즉, 확립된 개인독재체제에

---

12) 이와 관련해서 다음 참조. Stephen H. Haber, "Authoritarian Regimes," in *The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Economy*, eds. Barry R. Weingast and Donald Wittma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pp. 693~707; Joel Migdal, *Strong Societies and Weak States: State-Society Relations and State Capabilities in the Third Worl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8), pp. 206~236.

13) 정치 사업가(Political Entrepreneur)로서 간부들의 생존 추구는 다음 참조. Geddes, "What Do We Know about Democratization after Twenty Years?" pp. 125~144.

14) 정치 사업가(Political Entrepreneur)의 개념과 가정은 민주체제 직업정치인의 행위 동기 및 리더십 창출 과정에 대한 Schumpeter의 고찰에서 비롯되었다. Joseph A. Schumpeter,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New York: Harper Perennial, 1975), pp. 269~273.

서[15] 참여자들의 결속력은 준타(Junta)형 군부독재와 같은 제도화된 독재체제[16] 행위자들에 비해 굳건하다.

독재자 중심 독재체제의 대표적 하위유형들로서 국가의 공적 기제와 자원이 독재자 가문의 사유물로 전락되고, 관료집단의 가신화가 초래되는 신가산제(新家産制, Neo-Patrimonialism)[17]나 술탄제(Sultanistic Regime)[18] 권위주의체제는 지배정당의 조직과 같은 제도화된 통치 조직을 탈골 또는 부패(Institutional Decay)시키곤 하는데,[19]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이더들의 체제 충성도가 비교적 높게

---

15) 권위주의 통치연합은 독재자를 지원하여, 그와 더불어 체제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권력을 지닌 개인들의 집합(독재자와 동맹세력)으로 정의될 수 있다. Milan W. Svolik, *The Politics of Authoritarian Rul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pp. 5~6.

16) 권력을 제도화된 기제를 통해 분점하는 집단통치체제의 대표적 사례는 칠레 피노체트 대통령(Pinochet, R. 1973-90) 치하 군부 준타(Chilean Junta Militar de Gobierno)이다.

17) 신가산제(Neo-Patrimonialism)에 대한 설명은 다음 참조. Max Weber, "Chapter XII: Pariarchalism and Patrimonialism," *Economy and Socie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6(1977)), pp. 1006~1069; Guenther Roth, "Personal Rulership, Patrimonialism, and Empire-Building in the New States," *World Politics*, vol. 20, no. 2 (January 1968), pp. 194~206; Robin Theobald, "Patrimonialism," *World Politics*, vol. 34, no. 4 (July 1982), pp. 548~559. 이들 독재자가 운영하는 인적 후원관계의 네트워크는 관료체계 등 공적 구조에 침투하여 실질적 통치 및 체제운영 체계로 기능한다. 즉, 공적 국가기제의 직무가 충성집단의 사적 관계 네트워크의 권리 행사로 진행되며, 그 결과 최고지도자의 권력은 강화된다.

18) 신가산제(Neo-Patrimonialism)의 극단적 형태로서 개인독재자의 절대적 권력 행사와 남용을 그 특징으로 하는 신가산제(Neo-Patrimonialism)의 개념은 다음 참조. Chehabi and Linz, eds., *Sultanistic Regimes*, pp. 3~48; 김일성, 루마니아의 전 지도자 니콜라에 차우셰스쿠(Nicolae Ceausescu) 등은 사회주의 국가체제에서 등장한 대표적 술탄적 지도자들이다.

19) 김정일과 같은 가산제하의 인치형 독재자는 자신의 권력 확대와 경쟁자의 정치적 기반이 될 수 있는 국가 및 당 조직을 의도적으로 약화시킨다. 이러한 생존전략은 종국적으로 자신의 권력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는 자기 모순적 상황을 불러온다. 이에 관해 다음 참조. Pierre Englebert and Denis M. Tull, "Postconflict Reconstruction in Africa: Flawed Ideas about Failed States," *International Security*, vol. 32, no. 4 (Spring 2008), p. 121.

유지되곤 한다. 브레튼(Bratton)과 월(Van de Walle) 등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인치형 독재체제의 조력자 및 하수인들의 생계는 당이나 국가 기구에서 차지한 자리(Office)와 이로부터 얻어지는 특권에 달려있다.[20] 이들은 주로 최고 권력층이 제공하는 물질적 유인을 통해 영입되며, 권력 및 특권의 분배는 최고 권력자와의 정치적 거리 또는 독재자 및 최측근 집단에 의해 형성·관리되는 인적 후원관계상의 서열에 의해 결정된다.[21] 공직은 추종자들이 국가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이다.[22]

추종자들은 독자적인 정치적 기반이 전무한데다 체제의 부패구조와 철저히 영합하며 생존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현직 독재자의 정치적·생물학적 생존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즉, 마키아벨리의 은유를 빌리자면 투르크식 술탄의 "노예(Slaves)"가 되는 것이다.[23] 이들은 체제 이행 시 모든 것을 상실할 수밖에 없으므로, 체제의 명운과 밀착되어 위기 시 체제 및 독재자와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독재자가 통치연합[24]과 체제 지원세력의 방대한 네트워

---

20) Michael Bratton and Nicholas Van de Walle, *Democratic Experiments in Africa: Regime Transitions in Comparative Perspectiv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1997), p. 86.

21) Karen L. Remmer, "Neopatrimonialism: The Politics of Military in Chile, 1973-1987," *Comparative Politics*, vol. 21, no. 1 (January 1989), pp. 149~170.

22) Nicholas Van de Walle, "Meet the New Boss, Same as the Old Boss? The Evolution of Political Clientism in Africa," in *Patrons, Clients, and Policies: Patterns of Democratic Accountability and Political Competition*, eds. Herbert Kitschelt and Steven I. Wilkins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pp. 50~67.

23) Niccolo Machiavelli, *The Pri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p. 16~17.

24) 독재자를 지원하여 체제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권력을 지닌 정치인 동맹세력을 의미한다. Svolik, *The Politics of Authoritarian Rule*, pp. 5~6.

크를 유지 및 관리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국가 자원의 유용이나 사용화 등으로 통치자금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작업은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체제 자체의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특히 현대 독재국가체제에서 통치연합 내 권력 정치인들은 광대한 체제관료조직(당, 군, 비밀경찰 등)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통치자금의 수요는 더욱 배가된다. 중세시대 궁정 중심의 소수 귀족 세력과 권력파벌을 왕의 통치로 엮어내는 정치사업에 비해 현대사회 경쟁하는 권력조직과 이에 기반한 독재정체 유력 정치인들을 독재자에 충성하는 하나의 인적 후원 네트워크로 관리하는 일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즉, 현대 권위주의 국가의 인적 독재체제는 근원적으로 불안정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독재자 중심 개인독재체제의 지속성은 통치연합 내 체제 인사이더 및 그들의 권력 조직을 독재자의 인적 후원 네트워크로 결속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독재자들의 접근법과 그 한계를 고찰해 본다.

II. 이집트 사례연구

김진하(통일연구원)

나세르의 1952년 군부쿠데타로 시작된 이집트 독재체제는 무바라크 정권이 민중봉기로 붕괴된 2011년까지 60년간 지속됐다. 민간정부 형태의 혼합정체(Hybrid Regime)로 진화하며 수명을 연장해 온 이집트 독재체제가 무바라크 정권에 이르러 붕괴된 원인을 체제관리 실패 측면에서 규명해 본다. 2013년 7월 현재 군부가 쿠데타로 재등장하면서 민주화 이행은 좌초되었지만, 이와 별개로 무바라크 정권의 붕괴에 대한 분석은 독재체제 관리 실패 연구에 유익한 교훈을 준다.

1. 역사적 배경

오스만 튀르크 제국의 제후국이던 이집트는 제1차 세계대전 발발과 동시에 대영제국의 보호령으로 귀속된다. 인도식민지 및 수에즈 운하의 보호와 중동 지역 패권 유지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한 탓에 대전 개시 전부터 영불제국의 제국주의적 침탈에 노출되어 오던 이집트가 공식적으로 영국의 영향권 아래 편입되는 시점이었다.

대전 종결 후 1922년 독립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만 영국군은 계속 주둔하며 주요 이해관계가 달린 사안에는 개입할 권리를 유지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영국군의 군사적 요충지로 활용된다. 1947년 영국군이 최종적으로 철수하면서 이집트의 반식민 상태는 종결되지만, 대지주 그룹과 봉건적 후원관계로 연결된 군주제, 근대화 실패로 인한 정치경제적 낙후, 이슬람 전통 세력의 저항이라는 유산을 물려받게 된다.[25)]

25) 이집트 반식민지 상태로부터의 유산과 Free Officer 장교단의 쿠데타의 흥기 요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다음 참조. Hazem Kandil, *Soldiers, Spies and Statesmen: Egypt's Road to Revolt* (London: Verso, 2012), pp. 1~14.

이와 같은 반봉건 상태의 이집트에 향후 정치적 지형을 결정할 세 집단이 등장한다. 자유장교단(Free Officers)으로 대변되는 장교단, 무슬림형제단(Muslim Brotherhood)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슬람전통주의자 집단, 그리고 와프트(Wafd)당이라는 정당 형태로 정치적 의지를 표출시킨 민족주의적 자유주의자(Liberals)가 그들이다.[26] 전자인 자유장교단이 1952년 쿠데타 이후 주도적으로 이집트 정치를 좌우해 왔다면, 후자의 두 세력은 반대 세력으로서의 기능을 해왔다. 자유주의자 그룹과 전통주의자 그룹은 역사-문화적 배경, 핵심 이념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대립적이었으며, 이들의 갈등은 이집트 독재체제가 장수하는데 일조했다. 세 집단의 갈등과 전술적 협조는 시민의 저항운동의 전개를 매개로 이집트 근대 정치사를 좌우해 왔다.[27]

이슬람주의자들의 핵심 대중 조직은 무슬림형제단이다. 이 조직은 영국 보호령 시절인 1928년, 코란(Quran)과 수나(Sunnah, 선지자 모하메드와 그의 초기 추종자 및 코란 해석자들의 가르침과 관행으로 명백히 구현된 규범적 삶의 양식), 그리고 하디스(Hadith, 선지자의 가르침과 행위에 대한 기록과 구전에 의거한 이슬람 전통)는 완벽한 삶의 방식이자 정치 조직 교본이며, 따라서 이에 근거한 이슬람 정부(Islamic Government)를 건설하여야 유럽식민주의와 근대물질세속주의가 확산시킨 부조리와 부정의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전통주의적 이념의 주창자 하산 알바나(Hassan al- Bannah)와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 창립된다.

---

26) 이집트 주요 정치 세력의 기원, 이념적 지향과 현재 활동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Bruce K. Rutherford, *Egypt after Mubarak: Liberalism, Islam, and Democracy in the Arab Worl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2), pp. ix~xlviii.

27) Officer 그룹의 흥기와 독재체제의 건설 및 진화 과정은 본 챕터의 [2. 독재체제의 붕괴 원인 분석] 편에서 보다 자세히 다뤄질 예정이다.

1950년대에 형제단은 현대 이슬람 근본주의(Fundamentalism) 운동의 시조 중 한 명으로 일컬어지는 사이드 큐틉(Sayyid Qutb)의 지도하에 나세르의 세속적 권위주의체제에 맞서는 전투적 이슬람 조직으로 급진화의 길을 걷게 된다.[28] 이슬람 율법 샤리아(Shari'a)는 인간계 모든 사안을 관장할 수 있는 완결체적 규범이며, 샤리아에 의해 규율되는 정부를 구성할 때 정의로운 정치공동체 구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나세르 군사정부를 포함하여 외세의 주구(Agent)에 의해 수립된 세속정권을 타파하고 정의 수립을 위한 성전을 촉구(Jihad)한다. 그가 1966년 나세르 대통령 암살 혐의로 사형에 처해진 후, 이슬람 세력은 극단적 전투 조직으로 변모한다. 특히, 1981년 사다트(Sadat) 대통령 암살을 결행하여 이집트 권위주의체제가 '국가안보체제'로 변신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을 제공한다.

무바라크 집권기 대중운동에 보다 치중하는 온건파가 대세로 등장하면서 자유주의 세력과 연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2005년에는 제도권 내 합법 투쟁을 선언하며 총선에 참가하여 88석을 얻는 기염을 토하게 된다. 엄격한 샤리아의 적용과 율법학자들에 의한 이슬람공화국 건설을 주장하는 강경전통주의파 살라피스(Salafis) 그룹과 선을 그으며 자유주의 세력과 연대한 온건파 형제단은, 2011년 무바라크 정권 붕괴 직후, 자유정의당(Freedom and Justice Party)을 창당, 무르시(Mursi)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킨다.[29] 살라피스 그룹의 과격한 이념 및 거리 투쟁으로 인해 무정부 상태는 지속되고, 선명선 경쟁의 악순환 고리에 빠진 무르시 정부의 전통주의 회귀정책은 결국 2013년 군부가

[28] John Calvert, *Sayyid Qutb and the Origins of Radical Islamism* (London: Hurst and Company, 2010), pp. 157~228.

[29] Salafis 그룹의 이념과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Rutherford, *Egypt after Mubarak: Liberalism, Islam, and Democracy in the Arab World,* pp. xix~xxi.

재등장하는 기회를 선사하게 된다.

지식인, 전문가 및 중소 상공인들을 기반으로 하는 이집트 자유주의자 그룹은 고전적 자유주의 가치를 구현할 헌법제정과 법치를 추구한다. 이들의 기원은 19세기 말 아메드 오라비(Ahmed Orabi)의 지휘로 외세 및 봉건 세력에 반기를 든 유라비 반란(Urabi Revolt)에서 기원한다. 자유주의 근대화 목적의식과 민족주의 이념의 결합으로 탄생된 이 운동은 오라비의 추종자였던 사드 파샤(Saad Zaghlul Pasha)의 와프트당의 창당으로 연결되고, 독립 후 입헌군주제하에서 제1당으로서 이집트 건국에 기여한다. 그러나 부패한 파룩(Farouk)왕의 봉건-가산제적 통치와 이슬람주의자들의 저항으로 야기된 혼란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1952년 군사쿠데타를 맞게 된다.

군부의 와프트당 해산으로 정치 조직을 상실한 자유주의 그룹은 제도권 내 사법부에서 군부의 전횡에 맞서 근대 법질서 및 자유주의 정의 관념 수호에 진력한 최고법원 재판관들에 의해 명맥을 유지한다. 무바라크 통치기 제도권에 재진입한 와프트당과 더불어 2010년에는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장인 엘바라데이가 이끄는 '변화를 향한 국민회의(National Assembly for Change)'가 총선에 참가하면서 대중적 지지 기반을 넓히기 시작했다. 2011년 민중봉기 시 자유주의 세력은 이슬람 온건파와 연대하여 무바라크 정권을 종식시키는 데 공헌한다. 자유주의 집단은 이슬람 세력에 비해 대중적 지지도 면에서 약세에 처해있고, 군부를 중심으로 한 체제수호 통치계급에 비해서는 경제적·물리적 자원 면에서 열세에 있다. 국제사회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 세력이 이집트 정치의 핵심 세력으로 자리 잡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948년 이집트-이스라엘 전쟁 기간 중 군주제 정부의 부패와 무능력과 미영 세력의 압박에 국가적 위기 상황을 절감한 일단의 장교들을

중심으로 자유장교단이 형성된다. 1952년 이들은 쿠데타로 군주제를 폐지하고 정권을 장악한다. 범아랍주의(Pan-Arabism)의 반서방-민족주의 정서와 전쟁 기간 중 절감한 '조국근대화' 사명을 핵심적 목표로 설정한 군부는 나세르(Nasser) 주도하에 혁명적 국가 재건 작업을 개시한다. 군사집정관(Military Praetorian)체제가 군주제하 와프트 자유주의 내각을 대신하여 초기 국가 건설의 주역으로 나서게 된 것이다. 범아랍주의와 더불어 아랍세계를 떠받치는 경쟁적 조류로서 범이슬람주의(Pan-Islamism)의 실현을 추구하는 무슬림형제단과 여러 세대를 걸치는 전쟁 상황이 전개되기 시작한다.

군부통치는 초기의 이념적 사명감을 상실하며 전형적 독재정권의 경로를 겪게 된다. 무바라크 통치기에 이르러서는 가산제적 대통령 중심체제로 진화하게 되는데, 2011년 민중봉기로 붕괴의 길을 겪게 된다.[30] 그러나 이집트 군부는 2011년 무바라크 정권 붕괴 후 설립된 과도정부로서 형제단 정권이 정치적·사회적 혼란을 극복하지 못하자, 또다시 병영을 이탈하고 쿠데타를 감행한다. 나세르 쿠데타의 데자뷔(Deja-vu) 현상이 목하 진행 중에 있다.

2. 독재체제의 붕괴 원인 분석: 통치연합의 분열

2010년을 기점으로 튀니지 벤 알리(Ben Ali) 정권에 대한 대규모 민중봉기로 촉발된 재스민(Jasmine) 혁명의 열기는 2011년 이집트에 상륙, 1981년에서 2011년까지 30년간 지속되어온 무바라크(Hosni Mubarak) 대통령의 혼합정체(Hybrid Regime, 일당/개인/군부독제

30) 이집트 군부체제의 변신에 대한 상세한 역사적 설명은 전술된 Hazem Kandil의 *Soldiers, Spies and Statesmen*, pp. 1~14 참조.

의 혼합정체)가 무너지는 계기를 촉발했다. 그러나 이집트 독재체제의 붕괴는 외형과 드라마에 주목하는 다수의 언론이 그려내듯, '독재자 대 민중의 대결'이나 '시민의 승리'라는 단순구조로 이해될 수는 없다. '빵(아이쉬 또는 코샤리)의 혁명'[31]이라고 별칭되는 이집트판 민중봉기(Intifada)의 전개는 이집트 독재정권 붕괴라는 전체 스토리의 제1막을 차지할 뿐이다.

무바라크 정권의 붕괴는 타히르 광장(Tahrir Square)에 운집한 시위군중으로 대변되는 밑으로부터의 봉기(민중봉기라는 체제 외적 요인), 군부의 진압명령 거부와 대통령 퇴진의 압박(체제 내적 요인), 최대후견국 미국과 서방세계의 압력(국제적 요인)이라는 3중의 구조를 갖고 있다. 본 연구는 오히려 통치 엘리트 분열이라는 측면(즉, 독재정권의 지배연합 관리 실패)에 주목한다.

외형상 체제 외적 요인, 즉 민중봉기에 의한 독재체제 붕괴로 보이는 이집트 사태의 본질은 오히려 지배연합 내 엘리트 분열(군부의 이탈)에 있으며, 이 점에 착목할 때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군부의 역쿠데타와 이집트판 테미도르 반동의 실체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민중봉기가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 자체의 힘만으로 정권을 무너뜨리고 혁명적으로 수권한 것은 아니다. 기존 엘리트층의 분열과 이합집산이 구체제 붕괴에 치명적 역할을 수행했으며, 오직 이 상황을 인식할 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집트 혁명극의 제2막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게 된다.

2013년 7월 3일, 엘시시(Abdel Fatah el-Sisi) 이집트 국방장관은, 무슬림형제단의 온건제헌파 정당인 자유정의당(Free and Justice Party)[32] 의장으로서 무바라크 하야 후 선거를 통해 선출된 무르시

31) 정부의 식량배급에 생계를 의존하던 빈민층은 정부 배급가격 인상으로 누적되어 온 불만을 폭발시키게 된다. 배급가격 인상이 촉발요인이 된 것이다. '아이쉬(빵) 혁명' 혹은 '코사리(서민 주식) 혁명'이라는 별칭이 붙게 된 동기이다.

대통령의 권한중지를 선언, 가택연금하고, 헌법재판소장인 만슈르(Adly Mahmud Mansour)를 임시 대통령으로 하는 과도정부를 수립한다. 즉, 군부쿠데타가 발생한 것이다. 군부가 비협조로 무바라크 정권이 무너지는 데 공헌을 하였지만, 제2막의 주인공으로 재등장한다. 이집트 군부와 무슬림형제단 간의 아주 오래된 악연이 재현된 것이다.[33]

이집트 무바라크 독제체제의 붕괴는 [1] 엘리트층 분열(특히 군정분리), [2] 재정파탄 및 경제자유화 실패로 인한 서민경제의 몰락(State Failure)과 시민저항의 조직화(Muslim Brotherhood의 대중화 및 군중 동원력 극대화), [3] 국제사회 압박과 민주화 물결(Wave)의 눈덩이 굴리기[34] 효과(Snowballing Effects)라는 3차원의 요인들의 개입으로 촉발된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의 서로 다른 요인들의 혼재는 상호증폭 효과를 불러온다. 예컨대, 미국의 후견 및 차관 대가로 요구된 경제자유화 조치는 군경제 정리에 따른 군부소외 및 서민경제의 파탄을 불러왔고, 이는 민중봉기로 이어지는 식이다. 이를 차례로 살펴보자.

용감한 시민들에 의한 혁명적 봉기라는 일방적 해석의 맹점을 살펴보기 위해, 무바라크 퇴진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순간들로 돌아가 보자. 2011년 1월 25일 금요일(분노의 금요일, 'Day of Rage' 사태),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소요사태가 폭풍처럼 이집트 전역을 덮쳤다. 수도 카이로에서는 수만 명의 시위대가 내무부(Interior Ministry) 및 중앙보안경찰(Central Security Forces) 요원들을 제압, 시내 중앙 타히르 광장

32) Rutherford, *Egypt after Mubarak: Liberalism, Islam, and Democracy in the Arab World*, pp. ix~xlviii.

33) 이집트 무슬림형제단의 무바라크 정권 등 역대 권위주의 체제와의 갈등과 대립의 역사적 전개는 다음 참조. Ana Belen Soage and Jorge Fuentelsaz Franganillo, "The Muslim Brothers in Egypt," in *The Muslim Brotherhood: The Organization and Policies of a Global Islamist Movement*, ed. Barry Rubin (London: Palgrave, 2010), pp. 39~55.

34) Huntington, *The Third Wave*, pp. 100~106.

을 점거하고 정권퇴진을 외치기 시작했다.

농성 시위대의 규모가 늘어만 가자 무바라크는 내각교체, 다음 대선에서의 불출마, 부통령 술라이만(Omar Suleiman)으로의 정권이양 등 양보 수위를 높여 무마를 시도하는 한편, 경찰 및 시위경찰만으로 진압이 힘들다는 판단하에 군병력 및 전차 등을 동원하여 광장을 포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광장 점거로 인해 농성 중인 시민들의 분노는 높아만 갔다. 무슬림형제단 소속 활동가들이 운집한 시민들에게 반정부 선전활동을 강화하고 시위 행동방침을 전파하면서 시위는 조직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2월 1일에는 대통령궁까지의 시위행진이 있었고, 2일과 3일에는 내무부와 경찰에 고용된 것으로 추측되는 두건을 쓴 친정부 폭력단(baltagaya)과 시민들 간 유혈충돌이 일어난다. 그러나 폭력탄압이 오히려 시위대 규모와 분노를 증가시키는 "혁명적 편승(Revolutionary Bandwagoning)" 현상이 나타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든다.[35] 요컨대, "민중은 (독재체제)통치자를 두려워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바로 그 공포심(fear)은 동시에 독재자를 제거해야 할 충분한 사유가 되는 것이다."[36]

권력이 그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동료 시민들이 이에 맞서는 모습이 공공연하게 보일 때, 그간 저항 참여에 주저하게 만들던 공포가 분노로 돌변하게 되는 것이다.[37] 비밀경찰 또는 진압경찰에 의한 감시

---

35) Steven A. Cook, *The Struggle for Egypt: From Nasser to Tahrir Squa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 296.

36) Ronald Wintrobe, *The Political Economy of Dictatorship*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p. 4.

37) 유혈탄압의 공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서상의 돌파구가 마련되면 막강한 독재정권도 순식간에 괴멸되는 도미노 현상이 근대세계에서 흔히 발생한다. 정권에 봉사하던 체제 수호 세력 자체가 공포 속에 분열되기 때문이다. 루마니아 챠우세스크 정권, 이란의 팔레비 정권도 세간의 예상을 깨고 큰 저항 없이 소멸되었다.

및 진압은 대중의 공포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즉, 고립된 개개인 소수의 조직에 대한 무력감을 심리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상황의 장악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단 군중이 뭉치기 시작할 경우, 전시(Demonstration) 효과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공포는 감소하게 된다. 오히려 모여드는 동료 시민들을 목도하면서 심리적 우세를 점하게 된다. 일단 이 상황이 발생하면, 압도적 무력을 지닌 군이 적극 진압에 나서지 않는 이상 통제 불능의 사태에 도달한다.[38] 바로 이 상황에서 군의 체제에 대한 충성과 응집력이 정권의 생사를 결정한다.

그러나 절체절명의 체제 위기에서 군은 방관한다. 이후 무바라크와 술라이만은 사태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2월 10일 이집트 군부 상위 20인 장성으로 구성된 군 최고평의회(Supreme Council of Armed Forces, 이하 SCAF)는 무바라크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사태진정 시까지 회의를 소개할 것과 국가와 국민의 공적을 수호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첫 번째 공동성명(Communique)을 발표한다. 사실상 무바라크 정권의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2월 11일 무바라크 측이 하야 성명을 발표하지 않고 수백만의 시위대가 전국을 뒤덮게 되자, 곧바로 최고평의회(SCAF)는 현 상황 종료 후 즉각적인 비상계엄의 중지, 헌법개헌과 공정하고 깨끗한 대선을 약속하는 2차 성명을 발표하고 무바라크의 하야를 종용한다. 그날 오후 6시 술라이만의 무바라크 하야 TV 발표 후, 군부는 봉기 중 사망한 순교자를 애도하면서, 정당성은 국민에게 있으며 후속조치를 곧 발표할 것이라는 세 번째 성명을 발표한다.[39] 민중봉기로 촉발된 체제 위기

[38] Timur Kuran, "Now Out of Never: The Element of Surprise in the East European Revolution of 1989," *World Politics*, vol. 44, no. 1 (October 1991), pp. 7~48.

가 군부에 의해 봉인된 것이다.

이집트 독재체제는 군사쿠데타(Nasser와 Free Officer 그룹의 1952년 쿠데타)로 탄생했다. 그러나 바로 공군장성 출신 대통령 무바라크는 역설적으로 군부의 방관 속에 종결된다. 이집트 군부의 대응은 아사드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하려는 듯, 시민학살을 감행하고 내란상황과 국제 압력을 감내하고 있는 시리아 군부와는 큰 대조를 보인다. 주민의 저항이 거세져서 경찰의 강제력만으로 진압이 어려운 위기 상황이 도래할 경우, 군은 **[1유형]** 구체제와의 단절을 위한 중립적 방관, 또는 **[2유형]** 높은 체제 충성도를 유지하며 유혈 충돌을 각오한 적극개입이라는 두 상반된 대응을 보인다. [1유형]은 제도화된 직업적 군대(professional army)의 존재,[40] (특히, 술탄제 등 개인독재체제에서)독재자와의 연결고리 상실,[41] 특권에서의 소외 등의 요인으로 발생한다.

[2유형]은 군부가 가산제적 인적 물질적 후원관계로 독재정권과 연결된 경우, 그리고 미얀마 사례로부터 알 수 있듯이 군부 지도자들이 권력 최고지도부와 생존을 건 전쟁 등 역사적 체험이나 이념적 공유로 강력한 유대감을 소지한 경우나 군부 지도부가 출생지역, 종교 등으로 최고지도자와 운명공동체적 결속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나타난다. 재스민 혁명의 민주화 물결에 영향을 받은 권위주의체제 국가들 중

---

39) 이집트 사태의 진전과 군부의 대응 및 성명에 관해서는 다음 참조. Jason Brownlee, *Democracy Prevention: The Politics of the US-Egyptian Allian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pp. 142~153.

40) Eva Bellin, "Coercive Institutions and Coercive Leaders," in *Authoritarianism in the Middle East: Regimes and Resistance,* eds. Marsha P. Posusney and Michele P. Angrist (Boulder: Lynne Rienner Publishers, 2005), pp. 21~47.

41) Jason Brownlee, "... And Yet They Persist: Explaining Survival and Transition in Neopatrimonial Regimes," *Studies in Comparative International Development,* vol. 37, no. 3 (Fall 2002), pp. 34~63.

이집트, 튀니지(Ben Ali 정권), 예멘의 독재체제는 군의 방관 또는 역개입으로 소멸된 반면, 시리아(내전), 리비아(내전 이후 국제 개입으로 붕괴), 바레인, 쿠웨이트 등에서는 군이 체제에 대한 결속력을 보여주고 체제 수호에 나섰다(리비아에서는 정권과 공도동망).

피지배층의 저항과 반정부 세력이 의미 있게 존재하는 국가, 즉 이집트와 같이 이슬람 세력이 강력한 국가에서 권위주의 정부가 군부를 소외시키는 것은 독재체제관리 측면에서 매우 위험한 판단이다. 피지배 군중의 저항이나 봉기로부터 물리적으로 체제를 수호하는 최후의 수단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군부에서 기원한 이집트 정권이 군부와 소원해지게 만든 원인은 무엇일까?

군대의 힘으로 집권한 정부에 있어서 가장 큰 독재위협 세력은 군부이다. 민간 저항세력을 선별 등용(Co-optation)할 수 있는 권위주의체제 집권정당과 반정부 엘리트층의 정치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반발의 동기를 감소시킬 수 있는 입법기관을 설립하여 체제에 협조적인 사회 엘리트 층을 양산하여 반정부 엘리트층의 분열을 조장하고 체제 바깥 저항세력을 통제할 수 있는 경찰력을 유지할 수 있다면,[42] 군부의 정치 영향력을 감소시키며, 이들을 병영에 묶어둘 수 있을 것이다. 군의 전문화 및 정치 불개입은 이에 합당한 이념적 보호막을 제공해 준다.

권위주의 집권정당은 체제 엘리트들의 결속 강화, 분열 방지, 체제 충성심을 증대시켜 체제의 지구력을 증대시킨다.[43] 또한 다양한 동기 유발 및 직업기회를 사회 엘리트층에 분배하여 통치의 폭을 넓히는 한편, 정치동원력을 강화하여 군부에 의한 모험적 쿠데타가 발생할

42) 권위주의체제 입법부의 기능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Jennifer Gandhi and Adam Przeworski, "Authoritarian Institutions and the Survival of Autocrat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 40, no. 11 (2007), pp. 1279~1301.

43) Jason Brownlee, *Authoritarianism in an Age of Democrat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pp. 32~43.

수 있는 기회를 줄인다.[44]

강력한 군중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을 잘 알고 있는 군부 또는 무장 세력이 섣부르게 선거 때마다 큰 승리를 거두는 집권 여당을 상대로 쿠데타를 시도할 수는 없을 것이다.[45] (피지배층을 동원하여 정권교체를 시도하는 저항 엘리트들과 그들의 조직도 유사하게 거대 여당에 직면해서는 보다 신중한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불만과 저항에 대한 예방적 통제는 어렵다. 반면 부정선거로 이기는 일은 저항을 거리에서 분쇄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강력한 정당과 반정부 엘리트 무마 기제로서 친정부적으로 조직된 입법부로 혼합독재체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체제 내부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군부의 정치 관여 및 주민들에 대한 직접 탄압을 용인할 필요가 사라진다. 대신 패권적 지배정당에 의지하는 독재정권은 엘리트층 그리고 피지배층에 분포하는 정권 지지자들을 보상하면서 동시에 적대 세력을 징벌하기 위해 선거제도를 이용한다.[46]

이는 소위 "선거하는 권위주의체제(Electoral Authoritarianism)"로서[47] 혼합정체(Hybrid Regime)의 체제생존 논리이다.[48] 또한 고무도장으로 비하되는 입법부 역시 정권이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

44) Barbara Geddes, "Party Creation as an Autocratic Survival Strategy," Unpublished Research Paper (April 2008), 〈http://www.princeton.edu/~piirs/Dictatorships042508/〉. (검색일: 2016.6.20.).

45) *Ibid.*

46) Beatriz Magaloni, *Voting for Autocracy: Hegemonic Party Survival and Its Demise in Mexico*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 19.

47) 선거하는 권위주의체제(Electoral Authoritarianism)는 "선거가 열리지만, 현임자(Incumbents)가 체계적으로 투표를 조작하는 체계를 가진 권위주의 체제"로 정의될 수 있다. Andreas Schedler, "The Menu of Manipulation," *Journal of Democracy*, vol. 13, no. 2 (2002), pp. 37~38.

48) 혼합체제(Hybrid Regime)의 생존논리에 관해서는 다음 참조. Graeme B. Robertson, *The Politics of Protest in Hybrid Regimes: Managing Dissent in Post-Communist Russia*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pp. 11~13.

반대 세력의 불만을 경청하고 이에 대처"하도록 하는 안전밸브로 기능하게 된다.[49] 피지배주민 및 반체제-엘리트층(Counter-Elites)의 불만 무마 및 타협책으로 입법기구를 설립할 경우, 잘 조직된 집권정당은 군중 동원력과 단결력으로 선거에서 정권이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권위주의체제의 제도화된 체제유지 장치들 중 강력한 집권여당은 가장 중요한 도구이다.

나세르(Gamal Abdel Nasser Hussein, r. 1952-1970) 대통령 이후 민간정부로 변신한 이집트 권위주의체제가 비록 2011년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좌초하였지만, 4대째 대통령을 배출하며 반세기가 넘게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기도 하다.

1976년 이래 사다트(Anwar Sadat, r. 1970-81) 대통령과 후임 무바라크 대통령은 미국의 민주주의 진척 "권고" 하에 소위 "지도되는 복수정당제도(Guided Multipartyism)"를 운영했다.[50] 이 기간 집권여당인 이집트 국민당(National Democratic Party, NDP)은 2005년의 총 8번의 총선에서 대승하며 정권 수호의 첨병 역할을 했다. 국민당은 정부의 인기영합적(Populist) 분배정책(정부보조금에 의한 생계지원 등)을 배경으로 한 군중 동원력과 정부와 팀을 이룬 조직적 부정선거로 인민의회(People's Assembly, Majlis al-Sha'ab)에서 절대다수(Supermajority, 단독으로 개헌이 가능한 2/3 의석 확보)를 확보, 무바라크 정권이 군부와의 거리를 유지하더라도 정권을 안정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다시 말해, 군부의 직접적 개입 없이 "외관상의 자유정체(Formally Liberal Polity)"를[51] 유지하며 정

[49] Jennifer Gandhi, *Political Institutions under Dictatorship*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p. xviii.

[50] Brownlee, *Authoritarianism in an Age of Democratization*, p. 32.

[51] Steven A. Cook, *Ruling but Not Governing: The Military and Political Development in Egypt, Algeria, and Turkey* (Baltimore: Johns Hopkins

권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NDP가 제공해 왔던 것이다. 혼합정체(Hybrid Regime)로의 이집트 권위주의체제의 진화는 대략 4단계 과정을 거친다. 제도적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혼합정체가 정착되지만, 군부와의 거리는 멀어지게 된다.

〈제1단계: 혁명적 집정관체제(Revolutionary Praetorianism)〉는 나세르와 자유장교단의 쿠데타 이후 9~12인의 군 최고수뇌부로 구성된 준타(Junta)인 군사혁명위원회(Revolutionary Command Council, RCC)가 군주제를 폐지하고 의회를 해산한 후 혁명적 정당성을 근거로 직접 통치하는 혁명적 집정관체제(Revolutionary Praetorianism) 시기이다.[52]

혁명의 전위(Vanguard)로서 군부와 군사혁명위원회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닌 "민주정체의 테두리 안에서의 보다 풍요로운 물질적 복지, 자유와 정의 구현"을 약속하며,[53] 과감한 농지개혁, 외국계 회사의 국유화(후일 최종적으로 집행된 수에즈 운하의 국유화는 영불과의 전쟁을 야기한다), 국유기업 부문의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강도 높은 경제 및 정치 개혁을 단행한다.[54] 국가건설이 이집트 군부의 직접적 통치 하에 진행된 시기이다.

University Press, 2007), p. 65.

52) 집정관체제는 시민사회의 균열과 저조한 응집력, 경제적 양극화, 파편화된 갈등적 계급구조, 약한 국가와 정부조직, 사회 세력의 정치화 등으로 민간정부에 의한 정상적 통치 행위가 어려운 환경에서 군 장교단이 실제적 폭력 행사 또는 그 위협을 기반으로 주요한 지배적 정치 행위자로 기능하는 체제이다. 이에 대해 다음 참조. Samuel P. Huntington,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8), pp. 194~195; Eric A. Nordlinger, *Soldiers in Politics: Military Coups and Governments* (Englewood Cliff: Prentice-Hall, 1977), p. 2.

53) P. J. Vatikiotis, *The Egyptian Army in Politics: Pattern for New Nation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61), p. 368.

54) Imad Harb, "The Egyptian Military in Politics: Disengagement or Accommodation?" *The Middle East Journal*, vol. 57, no. 2 (2003), pp. 269~290.

그러나 이미 이 시기에도 1953년부터 범아랍주의(Pan-Arabism, 나세르의 외교적 이니셔티브하에 실제로 시리아와 아랍연방을 구성하여 꿈이 실현되는 듯 했으나, 1961년 시리아 쿠데타로 양국은 다시 분리된다)와 유사 사회주의적 분배정의 실현을 이념기반으로 한 군중동원 목적의 친정부정당 해방대회(Liberation Rally, 후일 나세르의 일당독재형 지배정당인 아랍사회주의연방당(Arab Socialist Union, ASU)의 기반이 된다)를 운영하기 시작한다.[55] 사회주의식 국가 주도 개혁과 대외적 비동맹 자주외교 노선을 견지할 대내적 체제지지 동력이 필요하기도 했지만, 이미 군중에 기반을 둔 정당조직화는 나기브(Muhammad Naguib, 54년까지 총리직 수행) 장군 등 일부 장성 세력과의 알력과 자유장교단의 분산에 대응한 나세르파의 체제관리 전략이기도 했다.[56]

〈제2단계: 국민헌장으로부터 3.30 프로그램〉은 1956년부터 시작된 민간정부화 프로젝트 기간이다. 물론 이 기간 중에도 군부는 정부의 중추를 이루는 핵심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군부는 동 기간 중에 내각, 중요 국가공무원직 및 국영기업체 임원직을 거의 독점한다. "군대는 비-군사적인 임무까지도 모두 관장하는 명실상부한 국가 인력풀로 가동된다."[57] 실례로 군 출신자는 1952년부터 1970년까지 오직 3개 부처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부처의 장관직을 차지했다.[58]

그러나 1956년 제헌, 1962년 국민헌장(National Charter) 제정으

55) Cook, *Ruling but Not Governing*, p. 64.

56) 쿠데타 후 초반, 군주제 폐지, 미영 및 이스라엘에 대한 외교노선 등의 이슈를 둘러싼 군부 내 권력암투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Kandil, *Soldiers, Spies and Statesmen*, pp. 15~42.

57) Raymond Baker, *Egypt's Uncertain Revolu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8), pp. 55~56.

58) Harb, "The Egyptian Military in Politics," pp. 278~279.

로 시작된 민중주의적 이념 공표로 시작된 대중동원정치 및 국가조합주의체제는 소위 군부와 나세르가 주도하는 민중주의 정부로 이루어진 소위 "일국 내 두 국가(Two States Within a State)" 체제라는 이질적 정치체제로 귀착된다.[59] 군부의 전성시기에도 이미 체제와 군부 간의 분리 현상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에스원 하이댐 건설로 상징화되는 국가 주도 근대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면서, 민간정부의 중앙 집중화 현상이 가속화된다. 즉, 개발국가와 군부 간의 괴리가 깊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1960년부터 수입대체산업화를 위한 5개년개발계획(5-Year Development Plan)이 시행되면서, 개발 일선에 나서게 된 정부 부문 전문직 기술관료들과 관련 행정부처, 노동현장을 감시 감독할 경찰 부문의 급속한 성장을 불러왔다. 이집트판 관료적 권위주의체제(Bureaucratic Authoritarian System, B-A System)가 일상화되면서, 군과 정부의 분리가 탄력을 받게 된 것이다.[60]

이집트 정치의 비군사화(De-Militarization, 이 연구의 논조로 표현하자면, 정-군 엘리트층의 구조적 분리) 과정에 있어 전환적 계기가 된 사건은 1967년 이스라엘과의 6일 전쟁에서의 모욕적 대패이다. 이는 단지 범아랍주의가 추진 동력을 상실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만은 아니다. 체제 자체를 근간에서부터 흔든 충격적 사태였다. 요컨대, 선지자적 지도자의 영도와 그의 전위로서 군부에 대한 신화와 그들이 전파한 위대한 민족주의에 대한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다. 패전의 책임을 지고 아메르(Abdel Hakim Amer) 원수가 자살하면서

---

59) Kandil, *Soldiers, Spies and Statesmen*, pp. 43~98.

60) 군사쿠데타 후 민간정부화 과정과 통치의 일상화에 관해서는 다음 참조. Nichola Pratt, *Democracy and Authoritarianism in the Arab World* (Boulder: Lynne Rienner, 2007), pp. 38~93, Chapter 2: The Normalization of Authoritarianism.

이집트 군부의 패권적 지위가 위기를 맞게 된다. 이듬해 1968년 3월에는 수많은 대학생과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대규모 반군부 시위를 펼치게 된다.[61]

나세르의 남은 3년(1970년 심장마비로 사망)간 체제생존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군부와의 거리두기가 진행된다. 시민들의 항거에 대한 대답으로 '3.30 프로그램(March 30 Program)'이 공표된다. 치욕적 패배의 원인으로 아메르(Hakim Amer) 원수와 연결된 군부 내 기득권층의 무능과 부패와 이집트 정치체제의 무기력을 지목하면서, 군부의 자율성 감독 및 전문화(Professionalization), 선거 및 의회제도의 강화 등 민주제도의 재도입을 통한 정치 개혁을 주장하며 군의 재건설과 정치 중립화를 추진한다. 이로 인해 군과 정부의 분리가 보다 심화되기 시작했다.

〈제3단계: 교정혁명(Corrective Revolution)〉은 나세르 마지막 재임기 중 시작된 군부와의 분리 및 혼합정체로서 재탄생한 체제의 정비기간으로 볼 수 있다. 나세르의 후임자 사다트(Anwar Sadat) 대통령은 소위 "교정혁명"을 주창하며, 정치화된 군부 세력을 제거하고 중앙집권적 정부로 체제를 재편한다. 1971년 말까지 91명의 나세르주의자(전-현직 군 장성들이 다수)와 아랍연방당 간부들을 체포·숙청한다. 군부의 정치적 촉수가 잘려나가는 순간이었다. 군부와의 결별은 군부의 영향력 감소뿐만이 아니라 집권 여당을 대통령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대통령 중심형 권위주의체제로 변신하는 순간이었다.[62]

---

61) 6일 전쟁의 정치적 여파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Tarek Osman, *Egypt on the Brink: From the Rise of Nasser to the Fall of Mubarak*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0), pp. 72~85.

62) 이와 관련해서 다음 참조. Joshua Stacher, *Adaptable Autocrats: Regime Power in Egypt and Syri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2), pp. 51~63.

다른 한편, 사다트 충성분자들은 나세르주의자들을 제거하고 국민당으로 집권 여당을 재창당한 후, 국민당 중심의 체제에 충성하는 반대당(Loyal Opposition) 세력을 포섭하여 지도하는 다당제(Guided Multipartism) 체제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즉, 체제의 관리 방식을 군부의 직접관할에서 소위 선거 권위주의체제(Electoral Authoritarian System)로 전환하는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국민당이 주도하는 정당위원회(Political Parties Committee)는 체제 내 편입 기준을 정하고 반대세력의 제도권 야당화의 선별 기준을 정하여 의회 내 정치지형을 회정한다. 체제 반대세력의 분열전략으로 채택된 정당자격심사제도는 일부 자유주의자(Liberalist) 그룹과 무슬림형제단의 온건파 등을 체제에 포함시키며, 체제외연을 넓혀간다. 선별된 정당은 "민주사회주의, 사회평화 및 민족단결"이라는 규범적 제한 내에서 정치활동을 허가받게 된다.[63] 군부의 정치적 관여를 절연해 나가는 동시에 혼합정체를 건설하는 작업을 추진한 것이다. 또한 이스라엘, 미국과의 화해를 추진하여 대외 문제에 있어서도 군부에 대한 체제의 의존도를 감소시켜 나간다.

비록 동 기간 중 군부의 정치적 권한이 약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사다트 정권은 경제적 이권을 매개로 정권과의 고리를 유지한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국제경제사회에 편입된 이집트는 원조 및 차관 등을 매개로 한 미국의 경제 개방 요구를 수용하게 된다. 그러나 사다트 정권의 신자유주의 개방정책(infitah), 즉, 사회주의적 국가소유 형태로 유지되어 오던 공기업 등 공공 부문의 민영화 및 시장개방 정책은 정치적 후퇴의 대가로 군부에 경제적 특혜를 부여하는 기제로 활용된

63) Marat Terterov, "Lessons from Political Liberalization," *Civil Society*, vol. 5, no. 54 (June 1996), p. 19.

다.[64] 각종 경제 위원활동을 촉매제(Commission Games)로 경제 엘리트들과 유착한 군부 엘리트는 다양한 불공정 거래로 경제적 이권을 수취한다.

1980년대 초까지 국방장관 아부가잘라(Mohamed Abdel Abu-Ghazala)의 주도하에 이집트 군부는 자체 경제활동을 통한 국가예산 절감을 구실로 정부사업추진기구(National Service Projects Organization, NSPO), 이집트 산업개발기구(Egyptian Organization for Industrial Development)와 같은 정부 조직을 동원하여 상업 및 산업 부문 기업체를 관리하게 된다.[65] 군수 관련 사업뿐만이 아니라, 의류, 가전, 관광 등 일반 소비재 생산 및 유통업체들까지 관리하며 일종의 군경제를 건설한 것이다.[66] 군경제의 확대와 방만한 운영은 후일 정부의 재정압박과 주민경제의 파탄을 불러와 결국 대규모 주민봉기로 귀결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체제 관리 방편으로써의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 축소와 정군분리는 결국 체제 붕괴로 연결되는 단초를 제공한다. 이 점에서 체제 수호 전략의 선택에 따라 체제 붕괴의 경로가 정해짐을 알 수 있다.

〈제4단계: 국가보안체제(National Security Regime)〉는 종국으로 치달은 무바라크 정권 통치기를 관통한다. 이 단계에서 정권과 군의 정치적 관계가 더욱 소원해지면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군의 체제 위기에 대한 방관 상황을 초래한다. 이 시기는 사다트 대통령이 이슬람

64) Hillel Frisch, "Guns and Butter in the Egyptian Army," in *Armed Forces in the Middle East: Politics and Strategy*, eds. Barry Rubin and Thomas A. Keaney (London: Routledge, 2002), pp. 93~112.

65) Cook, *Ruling but Not Governing*, pp. 19~20.

66) 이와 관련해서 다음 참조. Stephen H. Gotowicki, "Ch. 7: The Military in the Egyptian Society," in *Egypt at the Crossroads: Domestic Stability and Regional Role*, ed. US Department of Defense (Washington, D.C.: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1999), pp. 105~125.

극단주의 영향권에 있던 장교에 의해 암살당하는 비극으로부터 출발한다. 여기서 동 단계의 군부와의 단절을 심화시키는 네 가지 정치적 흐름이 나타난다.

첫째, 대통령 중심으로 운영되는 중앙집권적 혼합정체 성격이 더욱 강화된다. 이에 따라 군부와의 정치적 결별과 군부의 입지 약화 추세도 더욱 심화된다. 단적으로, 무바라크 정권에서는 전 시기와 대조적으로 오직 8% 정도의 각료만이 군 장교 출신으로 충원된다.[67] 대부분의 중대 사안에 대한 정책결정은 권력을 한 손에 쥔 대통령궁에서 결정되며, 권력자의 하수인으로서 국민당은 이를 의회 의결을 통해 정당화시킨다. 자유주의 전통의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사법부도 정권의 독주에 제동을 거는데 한계를 절감하게 된다. 그동안 미약하게 유지되어 오던 혼합정체 외양상의 다원주의적 위장막도 내려지기 시작했다.[68] 정당이나 사법부의 권능이 급속히 약화되었듯이, 군부도 정책결정 과정에서 배제된다. 대숙청 후 국민당에 생존한 군 출신 구파(Old Guards) 세력만이 근근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었다.

둘째, 민족주의적 군사국가(Military State)로서 출발한 이집트 권위주의 국가는 이 시기 테러리스트 집단 및 노동 세력의 도전과의 전쟁에 사활을 거는 대내적 안보국가(National Security State)로 변모하게 된다. 사다트 대통령 피살 후 부통령으로서 권력을 승계한 무바라크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과의 전쟁으로 임기를 시작한다. 이스라엘 등 외세와의 갈등이 주종을 이루던, 즉 대외적 안보가 중차대한 문제로 대두되던 시기와는 대조적으로, 이 시기는 전투적 이슬람 세력 등 주로

---

67) Stacher, *Adaptable Autocrats*, p. 5.

68) 이와 관련해서 다음 참조. Jason Brownlee, "The Decline of Pluralism in Mubarak's Egypt," *Journal of Democracy*, vol. 13, no. 4 (October 2002), pp. 6~14.

내부의 적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내적 안보가 최대 안건으로 처리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군보다는 내부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진 것이다.

이집트의 친미화 및 이스라엘과의 화해는 내부 이슬람 세력의 테러화·극단화를 불러왔고(사다트 대통령 암살은 상징적 표현), 이에 대한 내부 전쟁의 첨병으로 내무부(Ministry of the Interior)와 산하 치안기구들을 거대 조직화하는 상황을 초래한다. 또한 후반기로 가면 노조 세력의 활동 증가와 파업 투쟁이 최고조에 다다르게 된다. 2004~2008년간 약 170만 명의 노동자가 파업에 참가한 것으로 추정되며,[69] 2011년 대봉기 직전인 2010년도에는 700건 이상의 파업 사태가 발생했다.[70] 전투적 이슬람 세력과 노조 파업을 상시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경찰조직이 비대해지게 된다. 2000년대 말엽에는 현역 군인 총 수의 3배에 달하는 약 150만 명이 각종 경찰 및 치안기구에 종사하는 비정상적인 경찰국가가 탄생한다.[71] 체제수호 물리력의 근간을 경찰력에 두고, 군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켜, 쿠데타 가능성을 상쇄하는 튀니지 벤 알리 정권의 체제 관리 전략이 이집트에 도입된 것이다. 군의 정치적 개입 정도와 위상이 약화되면서, 정부 예산상의 불이익 및 차별적 대우가 고착되게 된다. 기존 체제에서 특혜를 누리던 군의 불만이 쌓여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했다.

---

69) Joel Beinin, *The Struggle for worker Rights in Egypt* (Washington, D.C.: Solidarity Center, 2010), p. 14.

70) 이와 관련해서 다음 참조. Dina Shehata, "The Fall of the Pharaoh: How Hosni Mubarak's Regime Came to an End," *Foreign Affairs*, vol. 90, no. 3 (May/June 2011), pp. 26~32.

71) Clement Moore Henry and Robert Springborg, "A Tunisian Solution for Egypt's Miliary," *Foreign Affairs,* February 21, 2011. 〈http://www.foreignaffairs.com/articles/67475/clement-m-henry-and-robert-springborg/a-tunisian-solution-for-egypts-military〉. (검색일: 2016.6.20.).

셋째, 군경제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압박이 강화되었다. 미국 및 국제 통화기금(IMF)의 권고에 따라, 보다 강력한 신자유주의적 경제자유화 조치가 시행되는데 이집트 서민층의 경제적 황폐화는 물론, 군경제도 국민당과 결탁한 정경유착 민간 자본가 세력에 협공당하면서, 그동안 누려왔던 독점적 경제 특권과 이윤을 상실하게 된다. 앞에서 살펴보았다시피, 군경제 등 특권경제의 활거로 국가 재정 위기를 맞이한 이집트 정부는 대외적 친미 정책(극단적인 예가 이라크 걸프전 참가로 6.7억 불의 지원을 받는다.[72])의 대가를 매개로 한 미국의 차관과 원조에 의지하게 된다. 미국에 대한 재정 의존으로 자유화 조치를 요구하는 미국 측 요구에 순응할 수밖에 없게 된다.

무바라크 정권은 자유화 정책을 정권에 봉사하는 국민당 내 민간 정치인들과 유착한 민간 매판자본가(Crony Capitalists)들을 체제에 묶는 기제로 활용하는 한편, 군경제를 시장적 경제에 노출시켜 군의 경제적 자율권 감소를 유인하는 도구로 활용하였다. 군부는 정치적 소외와 정부 예산 배정상의 불이익에 더하여 경제적 특권도 침해받게 된다. 즉, 시장자유주의와 경쟁체제의 도입으로 군 특권경제에 타격을 가한 것이다.[73] 이는 무바라크 정권의 권력 집중에는 도움을 주었지만, 군부와의 관계는 더욱 소원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한다.

넷째, 이집트 정치의 가산제화와 부자승계 프로그램으로 심화된 엘리트 분열과 군-정 갈등을 들 수 있다. 아랍 권위주의체제 국가 대다수와 유사하게 이집트도 모든 중요 결정을 혼자서 처리하는 무바라크 대통령의 중앙집권적 권력 장악이 심화되면서, 공권력을 가족 사유화하는 가산제 현상과 종신제 대통령(President for Life)으로 대변되는 "대통령

---

72) Brownlee, *Democracy Prevention*, p. 57.

73) 무바라크 치하 공공부문 감축과 시장자유주의 도입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Rutherford, *Egypt after Mubarak*, pp. 197~230.

군주제(Presidential Monarchy)"로의 퇴화가 가속화되었다.[74]

아랍 대통령 군주제의 화룡점정은 부자승계이다. 시리아 하페즈 알 아사드(Hafez al-Asad) 전 대통령의 차남 바사르 알 아사드(Bashar al-Asad) 현 대통령은 후계수업을 거쳐 2000년 부친 사망 후 권력을 승계하였다. 이는 부자승계 방식이 역내 종신대통령제 국가들에 유행처럼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이라크의 후세인(Hussein)도 재임 시 장남 우다이(Udai) 또는 차남 쿠사이(Qusai)로의 권력승계를 기도하였고, 리비아 카다피(Qadhafi) 원수도 생전 차남 알 이슬람(Saif al-Islam)에게로의 승계계획을 기획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왔다.[75]

시리아에서 부자승계가 이뤄진 2000년 무바라크 대통령도 차남 가말 무바라크(Gamal Mubarak)로의 권력승계 프로그램을 가시화한다.[76] 1999년 미래세대재단(Future Generation Foundation)을 창립, 의장직을 수행하며 정치권 진입을 기도하던 가말은 2002년 국민당 사무총장에 취임하며 승계구도가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2004년 내각개편 시에는 가말의 핵심 측근인 나지프(Ahmad Najif)가 총리로 임명되고, 당내 가말파 측근 인사들이 대거 입각(재무부, 무역부, 투자개발부, 상공부 장관 등)하면서 부자승계 지원체제가 보다 구체화된다. 가말은 "신사고 지향(Toward New Thinking, nahwa fikr jadid)"을 슬로건으로 당 내 세대교체 및 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후계자 과정을 밟기 시작한다.[77] 2006년 가말이 중심으로 결집된 국민

74) Owen, *The Rise and Fall of Arab Presidents for Life*, p. 66.

75) 권위주의체제 부자승계에 대한 논의는 다음 참조. Jason Brownlee, "Hereditary Succession in Modern Autocracies," *World Politics*, vol. 59, Issue 4 (July 2007), pp. 595~628.

76) 시리아의 부자 승계와 가말 무바라크 승계 프로그램의 비교연구는 다음 참조. Jason Brownlee, "The Heir Apparency of Gamal Mubarak," *Arab Studies Journal*, vol. 15/16, no. 2/1 (Fall 2007/Spring 2008), pp. 36~56.

77) 이집트 가말 승계 시도와 정치적 후폭풍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Brownlee, *Democracy*

당 신파(New Guards)의 대변인 바드라위(Husam Badrawi)는 2011년 예정된 대선에 가말이 국민당 후보로 나서게 될 것이라며 일정을 공개한다.[78]

부자승계 시도는 체제 내외 세력의 반발과 지배 엘리트들의 분열을 촉발시키는 후폭풍을 몰고 왔다. 기존 이집트 정권의 이념들로도 정당화하기 힘든 후계세습 시도는 도리어 체제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조직적으로 표출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효과를 불러온다.[79] 체제 밖에서는 그동안 결집과 대중 활동에 어려움을 겪어 오던 일단의 자유주의 세력이 이집트변화운동(Egyptian Movement for Change)을 조직하고, 후계자세습 기도를 활용, 2004년 12월을 기점으로 "케파야(Kefaya, Enough, 더이상 그만)" 캠페인을 전개하며 공개적인 대규모 반정부 활동을 개시한다.[80] 그들의 주 슬로건은 "임기연장 불가, 권력세습 불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수많은 시민이 케파야 스티커를 시내 곳곳에 부착하며 동참한다.[81]

그러나 정권의 입장에서 보다 나쁜 징조는 국민당 내 군 출신 구파들이 가말의 군경력 전무를 문제 삼아 세를 결집하는 동시에, 가말이 주도하는 신파를 공공연히 공격하면서 엘리트 대립이 표출되기 시작했다. 군부 내 상당한 영향력을 소유한 탄타위(Muhammad Hussein Tantawi) 예비역 대장과 아난(Sami Anan) 예비역 소장 등 구파(Old Guards) 핵심 인사들은 신파(New Guards)를 공격하며, 우회적으로

Prevention, pp. 69~97.

78) Brownlee, "The Heir Apparency of Gamal Mubarak," p. 49.

79) 이와 관련해서 다음 참조. Rabab El-Mahdi, "Enough! Egypt's Quest for Democracy,"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 42, no. 8 (August 2009), pp. 1011~1039.

80) *Ibid.*, pp. 1011~1039 참조.

81) Brownlee, *Democracy Prevention*, p. 88.

무바라크의 세습 결정에 반기를 든다. 부자승계에 대한 군부 내 불만 점증과 국민당 분열에 놀란 무바라크는 승계 문제에 대한 공식논의를 금지한다. 서둘러 봉합에 나서지만, 후계문제를 계기로 엘리트층 분열 및 군부의 불만이 더욱 가속화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쿠데타 태생의 이집트 권위주의체제는 민중주의적 준타체제에서 관료적 권위주의(B-A)형 혼합체제로 진화해 왔다. 군부와의 제도적 별리와 주로 경찰력에 의지하는 민간독재형 권위주의체제로의 전환은 또다른 쿠데타 없이 체제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체제관리 전략의 변화는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면서 체제 지속력을 증가시키는 데에는 성공적이었지만, 밑으로부터의 봉기에 대해서는 군부와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본질적 취약성을 지니게 되었다. 무바라크 정권의 붕괴는 군부-정권 간 거리가 최대로 벌어진 시기에 발생한 대규모 민중봉기가 불러온 결과였다. 대규모 민중저항으로 야기된 위기 상황에서 군부는 방관한다. 소위 군 견제-경찰력 증대로 체제의 반쿠데타 능력을 상승시키는 소위 튀니지식 해법이 이집트에서 그 취약성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3. 체제외적 요인

지금까지 체제 엘리트 및 지배연합 관리 실패로 표출된, 군부-정부 분리가 위기에 빠진 이집트 독재체제를 붕괴하게 만든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살펴보았다. 체제내부의 잠재적 분열과 취약점이 노정되도록 촉발한 발화점은 민중봉기 양태로 전개된 체제외적 모순과 유발 요인들이었다. 이미 언론 등 일반매체를 통하여 체제외적 정권붕괴 요인들은 주목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고자 한다. 밑으로부터의 대규모 저항은 [1] 국가재정 붕괴 및 경제자유화 실패로 인한 경제적

파탄, [2] 중동민주화 물결의 여파와 국제사회의 민주화 압력, 그리고 [3] 시민저항세력의 조직화로 야기된 현상이다.

문제는 돈이다. 앞서 살펴보았지만, 나세르 이후 지속된 유사-사회주의적 통제경제의 비효율성, 군경제 및 가산제적 호혜적 분배로 얼룩진 특권경제의 후유증, 1980년대 이후 추진된 신자유주의적 경제 개방에 따른 서민경제의 파산과 저성장 고실업, 경찰력의 기록적인 증가에 따른 체제 유지비용의 급증, 국제채무 누적에 따른 금융비용의 증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권의 민중 회유책으로 지속되어 온 방대한 생계보조금 및 수당제도는 결국 정부의 재정파탄을 가져온다. 재정적자 극복을 위한 내핍정책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대국민 인기영합 분배정책의 축소를 불러왔다.[82] 곡물가 상승 등 경제사정 악화와 정부의 보조금 삭감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던 주민은 대규모 저항으로 대항하게 된다. 2011년의 민중봉기의 직접적 원인은 바로 경제파탄의 후과를 그대로 받아내던 서민층의 불만 폭발이었다. 경제적 황폐화와 높은 실업률에 따른 사회 불안 증대가 대규모 민중봉기로 연결된 고전적 사례로 볼 수 있다.

재스민 혁명의 전시효과는 누적된 불만이 대규모 군중시위로 폭발하는데 촉매제로 기능했다. 경제 파탄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와 체제의 탄압정책으로 누적된 불만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다. 만연된 부패는 정권적 차원을 넘어 이집트 전 사회를 움직이는 일상화된 동력이 되었다. 갑작스런 사회적 병폐로 등장한 일이 아닌 것이다.[83]

---

82) "문제는 돈이다"라는 주장은 다음 참조. Samer Soliman, *The Autumn of Dictatorship: Fiscal Crisis and Political Change in Egypt under Mubarak*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6), pp. 76~162. 이집트 사례는 이미 부채탕감을 위한 과도한 긴축정책 시행 후 몰락한 루마니아 차우셰스쿠 정권과 유사한 붕괴 경로를 보여 주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Peter Siani-Davies, *The Romanian Revolution of December 1989*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7), pp. 9~96.

또한 2005년과 2007년에 있었던 헌법 개정 반대 시위나 1990년대 말 이후 과격화·조직화 양상으로 빈번하게 발생한 노동쟁의도 2011년의 혁명적 상황으로 비화되지는 않았다. 이런 점에서 무바라크 정권의 몰락은 예측하기 어려운 사태의 진전이었다.[84] 이슬람 세력과 자유주의 세력 간 알력과 갈등으로 구조화된 저항세력의 분열, 대규모 경찰병력의 통제와 감시를 극복하고 2011년에는 저항이 전 국민적 규모로 확대될 수 있었던 계기는 무엇일까?

국제 민주화 물결의 영향은 주요한 도화선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튀니지 혁명으로 점화된 민주화 물결의 전시(Demonstration) 효과는 아랍권 전역으로 퍼져나가며 눈덩이가 굴러가듯 확대된다. 강력한 독재정권에 대한 튀니지 시민의 항거와 시민승리는 여타 국가 시민들의 용기 있는 결단과 행동을 초래하는 전시효과를 발하였다. '그들이 해냈다면 우리는?'이라는 질문이 줄 수 있는 심리적 자극은 강력한 것이었다. 일단 이집트에서 폭력에 맞선 시위대가 타히르 광장을 점거하면서 앞서 언급한 혁명편승 현상이 전국에 퍼지게 된다.

민주화 물결의 전시효과는 알자지라(Al Jazeera) 등 아랍권 뉴스전문 케이블 매체(Cable Media)의 급속한 발전과 사회관계망(Social Networking Service, SNS)의 광범위한 확산으로 더욱 배가되었다. 2010년 12월 17일 생활고에 대한 비관과 벤 알리 정권의 서민탄압정책에 대한 저항으로 튀니지 소도시 청년노점상인 부아지지(Mohamed Bouazizi)는 분신자살한다. 모든 사태의 시발점이 된 이 비극적인 장면은 유튜브에 실렸고, 페이스북(Facebook)을 옮겨 다니며 튀니지는 물

83) 이집트 권위주의체제하 일상화된 부패 상황에 대한 관찰 기록들은 다음 참조. John R. Bradley, *Inside Egypt: The Land of the Pharaohs on the Brink of a Revolution* (New York: Palgrave, 2009), pp. 147~168.

84) Cook, *The Struggle for Egypt: From Nasser to Tahrir Square*, pp. 295~296.

론 아랍권 전역에 유포된다.

유사한 처지에 있던 시민들의 분노는 대규모로 결집되었고, 벤 알리 정권은 붕괴한다. 동료 시민들이 독재정권에 맞서는 장면을 목격한 시민들은 보다 대담하게 저항의지를 표출하게 된 것이다.[85] 튀니지 사태의 전개과정과 붕괴, 그리고 이에 대한 분석은 생생한 자료 화면과 함께 알자지라 방송을 통해 아랍권 전역에 실시간 중계된다. 또한 튀니지, 이집트 등지에서 저항 조직들은 사회관계망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분노를 증폭시키는 한편, 시위를 조직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한다. 방송매체와 사회관계망이 체제경찰의 전술적 기동력을 능가한 것이다.

저항세력 간 연대와 저항 조직화는 그간 무바라크 혼합정체가 효과적으로 운영해 왔던 반대세력 분열 전략을 무력화시켰다. [가: 역사적 배경]에서 전술한 바 있듯이, 군부 및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저항세력은 크게 자유주의 및 민주법치 전통을 추구하는 자유주의자(Liberalist)들과 이슬람 전통주의자 그룹으로 대별된다. 이들 세력은 이념적 정향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근대와 전통, 정치 이념과 종교적 이상으로 구분지을 수 있는 양 진영의 대립은 독재체제 반대 세력의 결집에 장애로 작용했다.

무슬림형제단은 나세르 이래 극단으로 치닫던 테러 위주 극단적 반정부 투쟁(예, 사다트 대통령의 암살)에서 탈피하고, 무바라크 재임 시에는 정치적 활동 반경을 넓히기 위한 대중 전략을 모색한다. 청년 및 학생층을 대상으로 외연을 확대한 후, 각종 전문가 조직(Professional Associations)을 장악해 나가기 시작한다. 이번 이집트 혁명에서 보여

85) 튀니지 봉기에서 나타난 시민들의 혁명적 편승현상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Michele Penner Angrist, "Morning in Tunisia: The Frustrations of the Arab World Boil Over," in *The New Arab Revolt: What Happened, What It Means, and What Comes Next*, ed.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New York: Foreign Affairs, 2011), pp. 75~90.

준 저항 조직화 능력은 체제 변혁을 가져올 만큼 위세를 떨쳤다.[86] 그러나 2011년 봉기 시, 형제단 온건파 세력과 자유주의 활동가 그룹은 동맹을 결성, 독재정권 붕괴를 위해 진력한다.

일반 시민들의 강력한 민주화 요구와 저항 엘리트층의 전략적 연대는 국제사회의 아랍 독재국가들에 대한 압력 행사로 촉진된 측면도 크다. 후세인 정권 타도를 목표로 이라크 전쟁을 개시한 부시 행정부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난 여론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미국은 이라크전을 독재체제의 타도와 압박받는 피지배 시민의 해방, 그리고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정의로운 전쟁으로 정당화시킬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목표로 2004년 '중동민주화확대구상(Greater Middle East Initiative)'을 발표하고 중동 민주화가 미국 중동정책의 핵심 목표임을 천명함으로써 이집트 등 친미 성향 중동 독재국가를 대상으로 선거제도 개혁 및 반대세력 포용을 압박하는 신-중동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무바라크 대통령이 "외부세계가 어떤 지역이나 사회에 자신의 해법이나 개혁을 부과할 수 있다고 상상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환상에 빠진 것이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듯이 확대구상은 역내 독재자들에게는 부담을 느끼게 하는 기제였다.[87] 결과적으로 이집트는 선거제도의 부분 개혁을 통해 2005년 및 2010년 이집트 총선에서 자유주의 정당들과 형제단 정당이 제도권에 진입하는 기회를 열어줄 수밖에 없었다. 미국과 G-8 서방국가들의 지속적 압박은 이집트 저항 엘리트 세력이 민주화 추진에 대한 의욕과 자신감을 얻게 되는 계기로 작용했다.

86) 이와 관련해 다음 참조. Carrie Rosefsky Wickham, *Mobilizing Islam: Religion, Activism, and Political Change in Egypt*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2), pp. 150~203.

87) Brownlee, *Democracy Prevention*, p. 87.

Ⅲ. 시리아 사례연구

현승수(통일연구원)

2011년 아랍의 봄 이전까지 비교정치학에서 중동 국가들의 사례는 '생존에 성공한 권위주의체제'로 다루어져 왔다. 권위주의체제 연구로 저명한 바바라 게디스(Barbara Geddes)는 2003년 자신의 저서에서 이집트와 시리아가 군부 지배와 일당 지배 그리고 개인 지배라는 이른바 지배의 3개 유형을 공유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이들 두 개 국가의 권위주의체제를 가장 장기간에 걸쳐 존속하는 삼중 혼합형(Triple Hybrid) 권위주의체제로 진단한 바 있다.[88] 2011년 2월 이집트의 무바라크 정권이 민중들의 시위로 허망하게 붕괴됨으로써 이집트의 사례는 게디스의 이론이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판정받았다. 하지만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은 아랍의 봄 열풍과 내전의 소용돌이를 용케 견디며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

88) Geddes, *Paradigms and Sand Catles: Theory Building and Research Design in Comparative Politics*, pp. 74~83. 권위주의의 체제의 유형화를 시도한 이 책에서 게디스(Geddes)는 군의 지배와 일당 지배, 개인 지배라는 이념형을 설정하고 체제 붕괴에 저항력을 갖는 것은 일당 지배라고 주장했다. 일당 지배는 설령 당 내부에 균열이 존재하고 당 집행부에 적대적인 파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당원들이 당으로부터 이탈하기보다는 집행부에 협력할 때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게 되므로 내부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게디스의 유형화는 조셉 라이트(Joseph Wright), 잔 테오렐(Jan Teorell), 나타샤 에르조우와 에리카 프란츠(Natasha Erzow and Erica Frantz) 등 연구자들에게도 전수되었는바, 이들은 권위주의 체제가 갖는 제도적 특징에 주목하기보다는 정치 행위자가 권력이나 영향력에 접근하는 정도를 분류의 기준으로 삼았다. 제이슨 브라운리(Jason Brownlee) 역시 권위주의 체제의 지속성을 지배 정당과 관련지어 설명한다는 점에서는 게디스와 유사하다. 하지만 게디스와 달리 그는 역사적 경로의존성을 중시하면서, 지배 정당이 창설될 당시 엘리트들 사이의 대립에 주목하는 가설을 제시했다. 체제 형성기에 엘리트 내부의 대립이 해소될 경우, 창설된 지배 정당이 엘리트들 사이의 이해를 조정하는 장으로서 기능하게 되며, 따라서 지배 계층의 일체성이 유지되고 결과적으로 권위주의 체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고된다는 것이다.

1. 역사적 배경

가. 아사드 권위주의 체제의 성립과 특징

1946년 시리아가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이후 등장한 정권들의 평균 수명은 1년이 채 안 되었다. 그러나 1970년 11월 하페즈 알아사드(Hafez al-Assad)가 권력을 잡으면서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그는 1967년 중동 전체를 충격 속에 몰아넣었던 6월 전쟁 당시 국방부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전쟁 패배의 책임을 문민 정권이 추진한 국내 우선 정책 탓으로 돌리면서 정권과 대립했고 그의 주장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결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대통령 취임 후, 군을 장악하고 경쟁자를 권력에서 밀어내는 데 성공한 하페즈 아사드는 이후 30년 동안 집권하면서 시리아의 최고 권력자로 군림했다.

그가 추진한 다양한 개혁 조치들은 비록 정당성에 있어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혼란스럽던 시리아의 정국과 사회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했다. 사실 시리아는 하페즈가 집권하기 전부터 거듭되는 쿠데타와 권력 투쟁으로 혼란스럽기는 했지만 관료제에 기초한 국가 기반과 이를 뒷받침하는 인프라들이 비교적 국가 전역에 걸쳐 확고히 구축되어 있었다. 이를 토대로 하페즈는 자신의 집권기 동안 국가 기구 전체를 대통령 중심으로 장악해 나갔고 정실인사를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확장하면서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자기 세력을 구축했다. 또 지배 가문으로서의 아사드 가를 표상(表象)하는 다양한 상징들로 나라 전체를 가득 채웠다. 당시 시리아의 정부 건물 안에는 대통령의 사진은 물론 연설하는 하페즈 아사드의 입상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다.[89]

---

[89] Kheder Khaddour, "The Assad Regime's Hold on the Syrian State," (Carnegie Middle East Center Report, July 2015), p. 4, 〈http://carnegieendowment.org

이를 전문가들이 아사드 권위주의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바, 이미 하페즈 집권기부터 시리아 국가와 아사드 정권의 경계가 모호해졌다.[90]

1973년 제정된 헌법을 통해 하페즈 집권기의 통치 형태를 살펴보면, 바트당(Baath Party)과 대통령의 권한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아사드 정권하의 시리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트당에 대한 지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제2차 세계 대전 종식 후 시리아가 겪은 일련의 정치적 혼란 그리고 1950년대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이 주창한 아랍 민족주의는 시리아를 이집트와 합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시도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1961년 9월 28일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시리아의 군부 세력은 이집트와 시리아의 합병을 무효화하고 시리아아랍공화국의 건국을 선언했는바, 당시 쿠데타를 성공시킨 세력이 바트당이었다. 하페즈 아사드 역시 바트당 당원이었다. 1947년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창당된 '아랍바트당'은 아랍의 통일, 외국 지배로부터의 해방, 사회주의를 3대 원칙으로 한 아랍 국민주의 정당으로서, 1952년 아랍사회당과 합당한 후 '아랍바트사회주의당'으로 정식 명칭을 삼아 현재에 이른다. 바트당의 이념은 서구적 근대 국민주의에 기초한 국민국가 건설과 사회주의이며, 이슬람의 가치나 문화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세속주의를 표방한다.[91]

/files/syrian_state1.pdf〉. (검색일: 2016.8.16.).

90) 시리아에서 국가와 정권의 개념적 차이가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할 것. Annette Büchs, "The Resilience of Authoritarian Rule in Syria under Hafez and Bashar Al-Assad," (GIGA Working Paper, no. 97, March 2009), 〈http://www.giga-hamburg.de/en/system/files/publications/wp97_buechs.pdf〉. (검색일: 2016.8.15.).

91) 바트당이 창당될 당시 발기인 가운데 하나인 미셸 아플라크(Michel Aflaq)가 그리스정교를 신앙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오늘날 시리아 이외 지역에서 바트당의 정치 세력은 대단히 미미하며 레바논 지역 당 지도부의 경우 시리아 계와 이라크 계가 분열되어 있고, 예멘에서는 이라크 계의 바트민족당이 분리해 나가기

하페즈 대통령 아래서 제정된 1973년 헌법의 전문(前文)에는 위에서 언급한 바트당 3대 원칙이 제시되어 있었으며 바트당의 전위당 규정(제8조), 바트당의 선거 의제 설정 권한(제91조)도 명시되어 있었다. 또 동 헌법에는 대통령의 불가침성(제91조), 대통령의 입법 권력(제99조) 조항 등을 통해 대통령에게 입법부와 사법부를 능가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92)]

2012년 수정될 때까지 40년 동안 유지되어 온 1973년 헌법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은 식민지주의와 시오니즘에 대한 비판이다. 하페즈는 주변의 왕정제 국가들이 미국에 우호적이었던 것과는 달리 소련, 이란과 긴밀히 협력했다.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이 서방 국가들의 비호 아래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그의 외교는 철저히 반서구, 반이스라엘의 입장에 서 있었다.

하페즈 집권기에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은 1982년 하마(Hama)에서 발생한 대학살일 것이다. 시리아가 레바논 내전(1975~90년)에 개입한 이후 국내에서 정부의 전복을 노리는 테러가 빈발했고 그 선두에는 무슬림동포단이 있었다. 아랍 전역에서 반체제 종교 운동으로 맹위를 떨치던 무슬림동포단은 아사드 정권의 종교 교육 금지와 종교 지도자의 체포 및 탄압에 저항하여 지하드를 선포했다. 하마에서 농성전을 벌이던 무슬림동포단은 정부군의 공격을 받고 2~3만 명의 사망자를 낸 뒤 진압된다.

하페즈는 집권 30년 동안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대통령은 아니었다. 그는 공식석상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국민들과 접촉하

도 했다. 기타 걸프 연안 국가들이나 튀니지에서는 바트당의 활동이 불법으로 간주된다.

92) 1973년 헌법의 전문은 다음을 참조할 것. Carnegie Middle East Center, "The Syrian Constitution: 1973-2012," Decenmber 5, 2012, 〈http://carnegie-mec.org/diwan/50255?lang=en〉. (검색일: 2016.8.15.).

는 일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에 대한 국민들의 존경은 결코 적지 않았는데 그 원인을 전문가들은 공포 정치 때문으로 분석한다.[93]

밀레니엄이 시작된 2000년 7월, 하페즈 아사드가 사망하자 그의 아들 바샤르 알아사드(Bashar al-Assad)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됨으로써 아버지를 승계했다. 공화제 국가에서 대통령직 세습이 이루어짐에 따른 바샤르 체제는 세습공화제(Jumluqia, 줌루키야)로 불린다.

원래 바샤르는 우유부단한 성격의 소유자였고 형 바셀(Bassel)의 그림자에 가려 별로 주목받는 존재는 아니었다. 하지만 1994년 바셀이 사망하자 바샤르는 정치에 본격적으로 입문하게 된다. 서구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는 그는 안팎에 자유주의자로 인식됐다. 그가 초기에 추진한 정책들은 다분히 자유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었다. 대통령직에 취임한 직후 행한 첫 번째 연설에서 바샤르는 사회를 자유화하는 몇 가지 구상을 발표했고 반대파들도 이를 환영했다. 하지만 극도로 보수적인 바트당은 바샤르의 성향을 용인할 수 없었고 그의 자유주의 정책들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07년 당 대회에서 결정된 정치 개혁안들은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다. 바트당은 대통령이 정작 시급한 농업과 관개 사업, 농촌의 인프라 건설에는 관심이 없다면서 불평했고 자유주의적 경제 개혁으로 노동자들이 피해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권 기간 내내 바트당과 대통령 사이에는 모종의 알력이 있었지만 대통령의 인기는 늘 당을 능가했다.

대통령과 바트당의 불편한 관계는 외교에서도 노정되었다. 집권 초부터 바샤르는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 노력하는 한편, 비우호적

93) V. P. Haran, "Roots of the Syrian Crisis," (IPCS Special Report, no. 181, March 2016), 〈http://www.ipcs.org/pdf_file/issue/RootsoftheSyrianCrisis_VPHaran.pdf〉. (검색일: 2016.8.15.).

이던 터키와 카타르에 대해서도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 그에 반해 전통 우방인 러시아나 이란과는 다소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었다. 이러한 외교 노선에 바트당은 당혹해 했다. 하지만 이웃 국가인 레바논에서 라피크 하리리(Rafic Hariri) 총리가 암살당하는 사건을 계기로 서방 국가들과 시리아의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하자 바트당이 외교에서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다.[94] 2011년 시리아에서 내전이 발생한 이후, 누가 대통령의 진정한 친구인가가 판가름 났다. 바샤르가 공을 들였던 터키와 카타르는 적대 관계로 돌아선 반면, 러시아와 이란은 대통령 구하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결국 바트당의 판단이 옳았던 셈이다.

아버지와는 달리 바샤르는 상당히 친 서민적인 대통령이었다. 특히 젊은 세대와의 소통에 신경을 쓴 덕분에 청년층의 지지가 높았다. 그의 집권기 동안 국내 정치는 상당히 안정된 모습을 보였으며 경제 정책은 일부 부작용도 나았지만 대체로 국민들로부터 반응이 좋았다. 아랍의 봄이 시작되기 전인 2010년, 시리아 경제는 대체로 안정적이었다. 석유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점차 줄어들고는 있었지만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시리아의 GDP는 평균 5.5%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었다. 또 시리아인들이 주변 산유국에서 취업할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실업률도 8%대로 낮았다. 하페즈 대통령 당시부터 시리아는 대외부채를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는 외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정치적 압력에서 자유롭기를 원했던 하페즈의 전략적 선택이었다.

아버지인 하페즈로부터 아들인 바샤르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이른바 아사드 권위주의체제의 특징은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

94) 레바논은 1976년 이후 사실상 시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레바논 영내에 시리아군이 주둔해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레바논 총리의 암살에 시리아가 개입했으리라는 억측이 돌았으나 사건을 수사한 유엔 특별재판소는 사건의 주범으로 헤즈볼라를 지목했다. 이에 대해서 다음 참조. "하리리 전총리 암살은 헤즈볼라 소행," 『동아일보』, 2009.5.25.

될 수 있다.

첫째, 바트당의 독재이다. 시리아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지만 권력은 총리와 분담시키는 프랑스형 반(半)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바트당의 지배를 의미하는바, 내전 발발 이전 내각의 구성을 보면 반 수 이상이 바트당원이었고, 80%가 일종의 정당연합인 국민진보전선(The National Progressive Front) 소속이었다. 후술하겠지만, 국민진보전선은 바트당이 친위 정당들을 모아 지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만든 포섭 전략의 산물이다.

둘째, 연고자본주의(crony capitalism)이다. 라미 마클루프(Rami Makhlouf), 무함마드 함쇼(Muhammad Hamsho) 등 '기업가'(대재벌)들이 아사드 가문과의 인척 관계를 이용해 거액의 부를 축적해 왔다. 시리아텔(휴대폰), 함쇼국제그룹 등을 소유한 기업인들과의 연계 없이 시리아에서 상업 활동은 불가능했다. 이들 기업인 세력은 정권에 자금을 대고 체제 유지에 협력했다.

셋째, 무카바라트(mukhabarat)를 통한 사회 통제이다. 무카바라트는 아랍어로 '첩보(mukhabara)'를 의미하는 명사의 복수형으로서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합쳐서 부르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하나는 체제 안팎의 반대파들에 대한 감시, 심문, 구속, 체포, 투옥, 고문 등을 임무로 하는 첩보 기관과 치안을 유지하는 경찰이다. 또 하나는 무력행사 등을 통해 정권의 옹위를 책임지는 무장 치안 조직으로서 여기에는 공화국호위대나 1985년에 해체된 혁명방위대가 포함된다.

넷째, 시오니즘과의 투쟁을 통한 정통성 유지이다. 이집트가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체결한 후, 시리아는 전선(front) 국가로서 아랍 사회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았고 또 바샤르 자신도 스스로를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유일한 아랍 지도자로 대내외에 선전했다.[95]

사회적 안정과 집권자에 대한 높은 지지에도 불구하고, 서구적 관점에서 시리아를 보면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었다. 우선 정권을 견제할 만한 세력을 가진 야당이나 정치적 반대파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바트당은 권력을 장악하고 유지하기 위한 장치들을 사회 곳곳에 배치했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체가 시리아 국가 정체성으로 고착화되었다. 바트당의 틀 밖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정치 행위도 가혹한 탄압을 받아야 했다. 선대 대통령인 하페즈는 시리아의 역사가 궁정 음모로 점철되어 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따라서 자신의 주변에 몇 개의 안보 기구를 두고 상호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열심이었다. 그에게는 정권에 대한 도전을 미연에 방지하는 일이 중요했다.

이러한 전통을 물려받은 바샤르 대통령 역시도 정권에 위협이 되는 세력들을 사전 탐지하는 작업에 주력했다. 그의 주변 인물들 가운데 10~12명의 핵심 인사가 있는데, 이들은 대통령에 절대 충성하면서도 상호 간에는 협업이 불가능했다. 그 누구도 대통령을 대신하는 세력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구조였다. 사회 내부에서도 바샤르 대통령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세력이 등장하지 못했다.

나. 시리아 사회의 특징: 균열과 조정

시리아는 이슬람 세력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중동 지역에서 보기 드물게 종파적 분열상이 노정되어 있던 국가였다. 일단 민족적으로 보면,

---

95) Joshua Vasquez, "The Survival of Authoritarianism and the Syrian Identity Crisis: Explaining the Resilience of Assad's Ruling Bargain," (University of Washington Tacoma. PPPA Paper Prize, Paper 7, 2016), p. 7. 하지만 아사드 정권이 내세운 반 이스라엘 정통성은 2011년 시민들의 저항을 무력으로 봉쇄하려 시도함으로써 상실됐다.

시리아인의 절대 다수는 아랍인들이었으며 전체 인구의 7~8%를 쿠르드인이 차지하고 있어 민족에 기반을 둔 분열상은 크게 노정되지 않은 듯하다. 이에 비해 종파적 분열상이 심각한데, 2,300만 명의 주민들 가운데 10~11%는 알라위파(Alawite)가, 10~11%는 기독교도, 5%는 기타 소수 종파이며 60~65%를 수니파(Sunni) 무슬림이 차지하고 있었다.[96]

문제는 알라위파가 권력의 최상부에 포진해 있다는 점이다. 하페즈부터 바샤르로 이어지는 아사드 가는 이슬람의 양대 종파 가운데 하나인 시아파, 그 가운데서도 소수 분파인 알라위에 속해 있다. 알라위파가 국가 권력을 장악한다는 것은 유대인이 러시아 황제 자리에 오르거나, 또는 불가촉천민이 인도의 군주가 되는 일처럼 불가능에 가깝다고 주장하는 연구도 있다.[97] 시리아에서 알라위파는 오랫동안 최빈곤 생활을 면치 못했었고 다수파인 수니파에 밀려 소외돼 왔다. 하지만 아사드 정권 등장 이후, 알라위파는 시리아 사회를 지배하게 되었으며 군의 요직을 독점하고 거액의 부를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

시리아 군 안에서 알라위가 약진한 데는 역사적 연원이 있다. 알라위파는 시리아는 물론 중동 전역에서 압박과 차별을 견디며 생존해 왔다.

---

96) Zoltan Barany, "Why Most Syrian Officers Remain Loyal to Assad," *Arab Center for Research & Policy Studies,* Commentary, June 17, 2013, 〈http://english.dohainstitute.org/release/b8f4f88b-94d3-45a0-b78e-8ada d3871daa〉. (검색일: 2016.8.10.).

97) 전 세계 알라위파는 13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그 가운데 시리아에만 1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이들 시리아 거주 알라위파의 4분의 3이 시리아 북서부의 라타키아 주에 모여 산다. 라타키아에서는 전체 인구의 3분의 2가 알라위파인 셈이다. 알라위의 교리에는 이슬람의 시아파와 기독교 그리고 기타 중동의 고대 종교가 혼합되어 있으며, 샤리아(이슬람법)는 물론 무슬림의 의무인 순례나 단식도 허용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인해 이슬람과는 전혀 다른 종교로 인식되기도 한다. 한편, 알라위의 종교적 신념 가운데 '타키야(taqiyya)'는 스스로의 신앙을 숨기는 것으로서, 시리아의 알라위파들은 하페즈가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까지 스스로를 수니파 무슬림인양 속이며 드러내지 않았다. 宮田律, "シリア·アラウィー派の特色とその支配の歷史的背景", 中東協力センターニュース中東情勢分析, 第37, 1集 (April/May 2012), pp. 60~61.

따라서 시리아가 프랑스의 식민지로 전락했을 때 알라위파는 여기에 협력했으며 그 대가로 시리아로부터의 독립을 요구했다.[98] 수니파 아랍인들이 프랑스의 지배를 혐오하여 군 입대를 기피했던 것과는 달리 알라위파들은 신분 상승과 경제 기회를 획득하는 주요 무대로 군을 활용했다. 식민 지배가 종식된 1946년 이후에도 이 같은 경향은 바뀌지 않아서 시리아 군대 내 장교들 가운데 알라위파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높았다. 더욱이 1949년부터 1963년까지 수니파 아랍인들 사이에 권력 투쟁이 가열되고 쿠데타가 반복되는 동안, 알라위파들은 이를 군대 내 세력 확장을 위한 좋은 기회로 삼았다. 권력 투쟁에 패하여 축출된 군부 내 주요 간부직을 알라위 출신들이 차지하는 일이 잦아졌다. 수니파 장교들이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자신의 영달을 우선시했던 데 반해, 알라위들은 종파의 이익을 중시했다.[99] 바샤르 정권 하에서도 군의 주 요직과 중급 장교 이상은 대부분 알라위파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바트당 안에서도 알라위의 존재는 컸다. 당의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 바트당은 지방의 소수파 공동체로부터 지지를 얻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사회·경제적 평등의 실현과 사회주의를 표방한 동 당의 이념은 빈곤과 차별에 노출돼 있던 알라위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지방 출신이면서도 수도 다마스쿠스나 알레포 등지의 도시로 이주한 자들이 바트당원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는바, 알레포의 어느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4분의 3이 바트당원인 사례도 있었다. 바트당 창당 당시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인 자키 알아르수지(Zaki al-Arsuzi)가 알라위파

98) 하지만 알라위의 반란과 시리아로부터의 독립 요구는 오히려 다수 세력인 수니파들의 악감정을 조장했고 결국 신생 독립국 시리아에서 알라위는 수니파로의 동화 정책을 강요받았다.

99) 宮田律, "シリア·アラウィー派の特色とその支配の歷史的背景," pp. 63~64.

출신이었던 사실이 시사하듯, 당 안에서 알라위의 존재는 단연 두각을 나타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언론 등에서는 시리아 내전의 원인을 사회 내부에 잔존해 있는 종교적 분파주의 탓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시리아 국민의 대다수가 이슬람의 주류인 수니파에 속하지만, 대통령은 시아파 가운데서도 소수 분파인 알라위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재적인 갈등 요인을 안고 있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시리아 내전을 종교적 분파주의 때문으로만 보는 것은 상황을 지나치게 단순화할 수 있다. 바트당이 지배하는 시리아는 이슬람 왕정제가 대세인 중동 지역에서 몇 안 되는 세속 국가였다. 인구의 절반 이상은 수니파 아랍인들이지만 이들 역시 단일한 세력은 아니었다. 사막 지역에 거주하는 베두인들은 기본적으로 부족 중심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고 국가나 정부보다는 자기 부족에 대한 충성심이 더 강했다. 바샤르 대통령은 알라위파에 속했지만, 그의 부인은 홈스(Homs) 출신의 수니파였다.[100] 또 내전 발발 이후에도 아사드 체제에 충성을 맹세하는 65만 명의 정규군을 알라위파가 지탱한 것은 사실이지만, 총리와 국방부 및 외교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 수석 보좌관이 수니파 출신이라는 점을 보아도 아사드 체제와 바트당의 국가 운영이 결코 일개 종파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101]

하페즈 대통령은 시리아 사회에 내재해 있는 수니와 알라위의 갈등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수니파 경제 엘리트들을 포섭하는(co-opt) 데 공을 들였다. 많은 특혜를 부여하고 그들이 경제적인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바샤르는 민족과 종파를 막론하고 소수파들(minorities)로

100) Haran, "Roots of the Syrian Crisis" 참조.

101) 宮田律, "シリア·アラウィー派の特色とその支配の歴史的背景," p. 64.

부터 지지를 받고 있었지만 수니파들 역시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 사회 내부에 민족과 종교, 종파에 따른 균열 가능성이 내재해 있었으나 정권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여기에는 바트당이 일관되게 견지해 온 세속주의 원칙이 유효했다. 또 이슬람권에서 역사적으로 유지되어 온 균열 조정 메커니즘이 작동한 덕분에 공존공영주의(live-and-let-live)가 미덕으로 존속할 수 있었다.[102)]

잠재적 균열이 내전으로 비화된 결정적 계기는 다수파인 수니 무슬림들이 무장세력화하여 소수파들을 공격하면서부터 였다. 게다가 외부로부터 알카에다 등 근본주의 성향의 이슬람주의자들이 유입해 들어오면서 시리아 내전은 종교적 색채를 띠게 된다.

다. 아랍의 봄과 시리아 내전

아랍의 봄 혹은 재스민 혁명으로 통칭되는 중동 민주화의 물결 속에서 시리아는 아랍 공화제 국가들 가운데 반정부 시위가 가장 늦게 발생한 국가였다. 이집트의 무바라크 정권이 붕괴하고 한 달이 지난 2011년 3월 15일, 수백 명의 군중이 남부 도시 다르아에서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것이 시리아 판 재스민 혁명의 서막이었다. 연일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3월 23일, 시위대와 치안부대의 충돌로 수십 명이 사망했다. 바샤르 대통령은 이 사건의 책임을 물어 다르아 주지사를 해임하고 29일 무함마드 나지 알아트리(Muhammad Naji al-Atri) 내각의 총사퇴를 수리했다. 더 나아가 30일 열린 인민의회에서 대통령

102) 그렇다고 시리아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갔다는 의미는 아니다. 수세기에 걸쳐 다양한 외부 세력들로부터 침공을 받아온 결과, 시리아 사회는 전체적으로 거칠고 폭력적이었다. 일부 부족 안에서는 아들이 시험에 좋은 성적을 거두면 총을 선물하는 습관이 남아 있을 정도였다.

은 연설을 통해 이미 바트당 지역 지도부가 비상사태 선포와 정당법의 개정에 착수했다고 발언했다.[103]

하지만 반정부 시위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어 라타키아와 홈스, 바니야스, 하마 등 지방 도시들은 물론 수도 다마스쿠스로까지 번졌다.[104] 4월 21일 아딜 사파르(Adil Safar)를 총리로 하는 새 내각이 출범하면서 비상사태령은 중지됐지만 시위에 대해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법의 틀 안에서 정치 운동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할 뿐 근본적인 개혁이나 시민에 대한 감시 체제를 철폐하려는 움직임은 보여주지 않았다. 22일, 다르아에서 시위 참가자들과 치안부대의 충돌이 재발하자 사태의 심각성을 우려한 시리아 정부는 드디어 군의 투입을 결정, 24일부터 진압 작전을 전개한다. 뒤이어 군은 북상하여 라타키아와 바니야스, 홈스 등 지방 도시들에서도 유사한 작전을 실행한다.

확실히 2011년 초기의 시리아 정세를 보면 민주화를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었던 만큼 독재정권 대 민주주의라는 아랍의 봄 이미지와 부합된다. 여타 중동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인터넷과 SNS를 통해 시위가 자연발생적으로 확대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아사드 정권의 대응이 철저한 탄압으로 일관되자, 시위는 반체제 운동으로 발전했고 점차 기존 정치 엘리트들의 정치 투쟁으로 변질되어 갔다. 또 각지에서 조직된 크고 작은 무장 집단들이 반체제 운동을 군사화하면서 내전으로 비화됐다. 여기에 독재정권 붕괴를 의도한 서방 국가들과 재스민 혁명의 여파를 막으려는 주변 걸프 국가들 그리고 중동 패권의 부활을 꾀하는 터키 등이 개입하면서 시리아 내전은 국제문제로 확대되었다.

---

103) "President al-Assad Delivers Speech at People's Assembly," *Syrian Arab News Agency*, March 30, 2011, 〈http://sana.sy/en/?p=79616〉. (검색일: 2016.8.15.).

104) 대통령은 4월 7일 하사카 주지사를, 7월 2일에는 하마 주지사를 해임 조치했다.

내전이 진행되면서 분쟁의 당사자는 더욱 늘어났다.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과격한 이슬람주의 세력, 아사드 정권이나 반체제파와는 전혀 다른 정치적 목표를 기치로 내건 쿠르드 민족주의 운동 등이 등장했으며, 여기에 아사드 정권을 살리려는 이란과 러시아의 군사 개입이 본격화되면서 내전의 양상은 다극 구도로 복잡하게 전개된다.

내전은 아사드 정권에게 불리하게 전개되는 듯 보였다. 아사드 체제의 종말이 시간문제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서방의 학자층과 언론을 중심으로 확산됐다. 하지만 아사드 정권은 초반의 열세를 만회하면서 반정부군과 ISIS(이슬람국가, 별칭 ISIL)로부터 빼앗긴 지역들을 탈환해 갔으며,[105] 2014년 7월 실시한 대통령 선거에서는 바샤르가 88.7%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에 재선됐다. 이 선거는 시리아 역사상 최초의 경쟁 선거였다.

2. 아사드 체제의 생존 요인 분석

가. '포섭'의 제도화와 전략적 조정의 방해

시리아에서도 재스민 혁명의 여파로 민중봉기가 발생한 이후, 여타

105) 아사드 정권은 탈환한 지역 전체를 군사기지화하는 작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모든 국가 기구 및 공공기관 건물들을 정보기관인 무카바라트 초소 근처에 재배치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시민사회를 감시하는 역할을 강화했다. 또 주요 도시들의 관공서나 핵심 시설에는 군 기지를 설치했다. 일례로 정부군이 장악하고 있던 시리아 남부의 다르아에서는 2012년 주요 스포츠 스타디움이 군 기지화하여 헬리콥터 공격이 가능하도록 변신했다. 또 이들리브(Idlib) 소재 바트 당 청년 조직이 사용하던 캠프장도 즉각 군 기지로 전용되었다. 정규군 이외에도 각 지역에서 모집된 민병대가 반정부군과 전투를 벌였다. 이들 민병대는 각 지역의 인민 위원회(lijan shabiya)가 통제했다. 이들 민병대원의 상당수가 단순히 자기 가족과 고장을 지키겠다는 열망으로 총을 잡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사드 정권의 수호에 일조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이에 관해 다음 참조. Kheder Khaddour, "The Assad Regime's Hold on the Syrian State," p. 5.

중동 국가들처럼 엘리트들 사이에서 이반(離叛)의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그러나 이반의 주역은 주로 권력상 낮은 지위에 있는 관료들이었으며 그들은 압도적으로 수니파에 속해 있었다. 이에 반해 권력의 상층부에 포진해 있던 알라위파 소속 엘리트들은 아사드를 지지하며 좀처럼 이탈하지 않았다. 그 원인을 전문가들은 제도화된 '포섭(co-optation)'의 영향으로 분석한다.

포섭으로 사회 구성원들을 끌어들이는 전술은 권위주의 정권의 생존 전략으로 자주 거론된다.[106] 권위주의 독재정권이 직면하는 위협이 주로 체제 내부로부터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독재자들이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국가 제도나 시민 사회의 구성원을 포섭하는 현상이 비단 시리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잠재적 경쟁자들에게 사전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권력을 분배해주는 거래를 성사시킴으로써 지배 연합(ruling coalition)을 만들어 권위주의 구조를 공고히 하는 것이다. 문제는 지배 연합이 늘 분열의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지배 엘리트의 일부가 다른 동료들을 희생시키면서 자신의 권력을 확대하려 하기 때문이다. 또 지배 연합의 구성원들은 독재자가 자신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자기 지위를 강화하려 한다고 의심할 때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다.[107]

시리아의 맥락에서는 바트당의 포섭이 제도화된 사실에 주목할 필요

106) 베아트리즈 마갈로니(Beatriz Magaloni), 밀란 스볼리크(Milan W. Svolik), 제니퍼 간디(Jennifer Gandhi), 아담 프제보르스키(Adam Przeworski) 등의 연구를 참조. 제니퍼 간디와 프제보르스키는 자신들의 저작 속에서 "독재자들은 통치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유형의 위협에 직면한다. 하나는 지배 엘리트 내부에서 발생하는 위협이며 또 하나는 사회 내부의 국외자들(outsiders)로부터 오는 위협"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다음 참조. Gandhi and Przeworski, "Authoritarian Institutions and the Survival of Autocrats," p. 1280.

107) Milan W. Svolik, "Power Sharing and Leadership Dynamics in Authoritarian Regim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53, no. 2 (2009), p. 481.

가 있다. 러스트(Ellen Lust)는 마갈로니(Beatriz Magaloni)와 크리첼리(Ruth Kricheli)가 사용한 데이터에 의거하여 이집트와 시리아, 튀니지, 알제리, 예멘 등 중동 5개국을 일당통치체제(One-Party Regime)로 분류하고 있다.[108] 마갈로니와 크리첼리는 일당통치체제가 장기간 존속하기 위해서는 지배 정당이 야당을 포섭(co-opting)하고 엘리트들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착목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바트당의 경우 시리아 공화국 헌법 제8조에 따라 "국가와 사회의 지도적 당"으로 인정받으면서 "애국적, 진보적 전선을 지도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또 바트당은 통일사회주의자당이나 아랍사회주의연합당과 같은 9개 정당·파벌과 함께 정당연합인 '국민진보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1998년과 2003년, 2007년에 실시한 세 번의 선거에서는 국민진보전선이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더욱이 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여당 연합이 다수파를 차지한다는 발표가 공식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선거가 의회 내 세력 판도를 뒤바꾸는 기능을 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국민진보전선은 바트당이 위성 정당들에게 행하는 제도화된 포섭(co-optation)인 셈이다. 뿐만 아니라 시리아 정부의 각료직을 바트당이 독점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직위를 출신 지역이나 종파 집단에 배려하면서 국민진보전선에 가입된 정당이나 무소속 정치가들에게 할당함으로써 '다원주의'적 지배자 연합을 구성해 온 것 역시, 대통령과 바트당이 각 정당이나 무소속 정치가, 지방 유력자들에게 행하는 포섭으로 볼 수 있다.[109] 제니퍼 간디(Jennifer

---

108) 이와 관련해서 다음 참조. Ellen Lust, ed., *The Middle East*, 12th edition (Washington, D.C.: CQ Press, 2011), pp. 107~160; Beatriz Magaloni and Ruth Kricheli, "Political Order and One-Party Rule,"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vol. 13 (2010), pp. 123~143.

109) Elizabeth O'Bagy, "Syria's Political Struggle: Spring 2012," (Backgrounder, 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 June 7, 2012), 〈http://www.understandingw

Gandhi)가 제안한 포섭 모델은 체제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일시적인 회피수단으로서 야당 세력을 끌어들인다는 전제하에 디자인된 것이다.[110] 하지만 시리아에서는 의회는 물론 내각 안에서도 상시적으로 일정한 직위를 바트당 이외의 세력에게 할당해 줌으로써 익찬(翼贊) 체제를 구축했다. '포섭'이 제도화되어 있었던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전략적 조정(strategic coordination)'에 대한 아사드 정권의 방해이다. '전략적 조정'이란 특정 상황에서 정치권력을 손에 넣기 위해 필요한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즉 특정 세력들 사이에 연대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거나 뜻을 같이 하는 구성원을 리크루트하고 이를 집단화하며 지도자를 선택하고 조직을 강화하여 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브루노 메스키타와 조지 다운즈(B. Mesquita and G. Downs)에 따르면, "독재자의 지위를 안정시키는 결정적 수단은 경제 성장 노선을 유지하면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세력들 사이의 전략적 조정을 저지하는 것"이다.[111] 민주화 요구

---

ar.org/sites/default/files/Backgrounder_SyriasPoliticalStruggle_Spring2012.pdf〉. (검색일: 2016.8.11.).

110) 이와 관련해 다음 참조. Ghandi, *Political Institutions under Dictatorship*, pp. 73~106.

111) Bruce Bueno de Mesquita and George W. Downs, "Development and Democracy," *Foreign Affairs*, Essay, September/October 2005 Issue, 〈http://www.foreignaffairs.com/articles/2005-09-01/development-and-democracy〉. (검색일: 2016.8.10.). 해외 검색 사이트를 금지하고 검색어를 필터링하여 인터넷 공간을 통제하는 중국 정부의 조치 역시 시민들 사이의 전략적 조정을 방해하는 수법이다. 또 시민의 '전략적 조정'을 정권이 방해하는 사례로서 대표적인 것이 러시아 등 구소련권 국가들에서 흔히 목격되는 '정치 기술(political technology)'이다. 동 개념은 부정이나 불법 활동을 포함한 선거 공작, 반대파 공작 등 이들 국가의 현 정권이 정권 유지를 위해 구사하는 정치 조작을 통틀어 일컫는 용어이다. 권력 독점에 그치지 않고 권력 획득 경쟁까지 독점하려는 러시아 푸틴 정권의 정치 기술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와 관련해 다음 참조. 木之内秀彦, "ネオ權威主義の相貌 / 獨裁者たちのサバイバル能力," 『鈴鹿國際大學紀要』, 第21集 (2015年), p. 66, 〈http://ci.nii.ac.jp/els/110010001125.pdf?id=ART0010560215&type=pdf&lang=en&host=cinii&order_no=&ppv_type=0

세력 혹은 현재적, 잠재적 불만분자의 '전략적 조정'을 저지하기 위한 전술은 역사적으로 권위주의 정권이 자주 사용하는 수법 가운데 하나다.

시리아는 내전 이전은 물론 내전 중에도 권위주의 정권이 시민사회 내 제 세력들 간 전략적 조정을 방해하는 단적인 사례를 제공한다. 아사드 정권은 시리아 사회를 분절화하는 다양한 사회적 균열(종교 및 종파, 민족 및 종족 집단)을 교묘하게 컨트롤함으로써 국가의 사회 지배를 지탱해 왔다. 전임 정권인 하페즈 대통령 집권기에는, 1963년 바트 혁명 이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소외되어 온 전통적 지배 계급들 가운데 다마스쿠스의 대지주와 상인들을 회유하여 개방 정책에 협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지역과의 격차를 조장한 측면이 있다. 계급에 기인한 균열과 지역에 기초한 균열을 '교차'시키는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전통적 지배 계급 세력을 분산 및 약화시켰을 뿐 아니라, 전통적 지배 계급을 친체제 세력과 반체제 세력으로 분열시키는 데 성공한 하페즈 정권은, 반체제 세력이 친체제 세력의 요구를 대변하도록 만들거나 반체제와의 교섭에서 친체제를 중개역으로 삼는 등의 전술을 구사하여 불만이 누적되는 것을 억제해 왔다.[112]

셋째는 군의 동향이다. 민중봉기나 쿠데타가 시리아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그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권의 강제 기구, 특히 군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여타 아랍 국가들 이상으로 아사드 정권은 그 아버지 대부터 정권에 대한 도전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시리아가 독립한 1949년부터 하페즈가 집권을 시작한 1970년까지 적어도 10번의 쿠데타 시도가 있었다. 하페즈 자신이 이들 쿠데타 가운데 세 번의 시도에 개입한 바 있어서 그는 쿠데타를 사전에 적발하는 것이 정권의 안전을

&lang_sw=&no=1477051369&cp=〉. (검색일: 2016.9.13.).

112) 위의 글, pp. 68~69 참조.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체험했을 것이다. 따라서 그는 집권을 시작하자마자 군을 철저히 자신의 수중에 장악했고 장교들 사이에 내재해 있던 분파주의를 척결하는 데 주력했다. 군 내부에서 반란의 음모를 획책하지 못하도록 정보 및 보안 기관을 풀어 상호 감시하게 하는 일도 잊지 않았다. 아들 대에까지 이어진 이러한 군 장악 시도는 결국 아사드 정권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데 기여했음이 증명됐다.[113] 시리아에 아랍의 봄이 도래하고 민중봉기가 내전으로 비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바샤르 휘하의 선임급 군 장성들은 대통령에 대한 충성을 버리지 않았다. 물론 하급 장교나 징집병들의 상당수가 탈영하거나 반란군 편에 붙기도 했지만 극소수를 제외한 고급 군 간부들과 장교단은 정권 수호에서 이탈하지 않았다. 위에서도 언급했듯, 종파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알라위파가 군을 장악하고 있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종교계에 대한 포섭이다. 시위가 발생한 약 1개월 후, 알레포의 부족장 회의가 대통령 지지 성명을 발표했으며, 5월에는 그리스정교와 시리아정교의 고위급 성직자들이 현 정권의 개혁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사드 대통령은 5월 16일, 다르아의 대표단과 회합을 갖고 5월 말에는 다르아 소요 사태의 주모자 중 하나로 지목된 부족장 겸 이슬람 지도자인 아흐마드 사야스나(Ahmed al-Sayasna)가 "반정부 시위가 외국의 모략"이었으며 스스로 "모략에 가담한 것이 잘못이고 이를 깨닫기까지 시간이 너무 늦었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자기 비판에 앞장섰다.[114] 이러한 일련의 전개는 반정부 시위가 지역 유력자들

113) Barany, "Why Most Syrian Officers Remain Loyal to Assad" 참조.

114) "SYRIA - 5/26 Al-Sayasna: I Am Mistaken… I Realized Too Late That There Is Conspiracy," WikiLeaks, The Global Intelligence Files (released date: March 4, 2013), 〈https://wikileaks.org/gifiles/docs/19/1920908_-utf-8-q-syria_-_5-26_al-sayasna-_i_am_mistaken-e2-80-a6_i_.html%20l〉. (검색일: 2016.9.7.).

및 종교 지도자들의 인정을 필요로 한다는 점, 시리아에서 지방의 사회 균열을 극복하는 반정부 시위의 연대와 결집이 어려운 점, 대중운동을 제압하는 데 있어서 지역 유력자와 종교 지도자들을 통제하는 것이 여전히 유효함을 의미한다.

나. 대중 포섭과 아사드 체제의 적응

시리아 내전을 연구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아사드 체제의 평가는 사실 서방 언론에서 보는 반아사드 일변도의 보도 행태와는 많이 다르다. 자유주의자들은 다당제를 선호했고 사업가들은 경제 개혁에 불만을 갖고 있었지만 시리아에 심각한 경제·사회적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내전의 원인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시리아 국민들의 불만이 대통령보다는 무카바라트에 향해 있었다고 분석한다.

권위주의 체제에서 지배 정당은 일반 국민들로부터의 지지를 획득 및 유지하는 데 고심해 왔다. 나타샤 에르조우와 프란츠 에리카(Natasha Erzow and Erica Frantz)는 국민들의 지지가 권위주의 체제 유지에 필수적인 요인이라고 주장한다.[115] 만일 공고한 반체제 세력이 출현하는 경우, 일반 국민들로부터의 폭넓은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체제를 유지하기는 어려워질 것이다. 또 베아트리츠 마갈로니와 루스 크리첼리(Beatriz Magaloni and Ruth Kricheli)가 설명하는 것처럼 "대중의 지지는 체제의 안정성을 위해 중요하다. 왜냐하면 대중의 지지가 지배자 연합 내부의 협력을 촉진"하기 때문이다.[116] 이집트의 사례에서 보

115) Natasha Erzow and Erica Frantz, *Dictators and Dictatorship: Understanding Authoritarian Regimes and their Leaders* (New York: Continuum, 2011), p. 55.

116) Magaloni and Kricheli, "Political Order and One-Party Rule," p. 128.

듯, 국민이 체제를 지지하지 않자 이를 인지한 군은 지배자 연합으로부터 이반하여 중립을 유지했던 것이다. 일반 국민들이 현재의 권위주의 체제를 지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체제 측은 다양한 인센티브 장치를 마련한다. 여기에는 보조금이나 각종 수당, 주택과 의료 서비스 그리고 직업 알선 등의 후원(patronage)이 포함된다.[117] 지속적인 후원은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를 안정화시키며 구조화한다.

그 밖에도 권위주의 체제에서 집권 여당이 일반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획득 및 유지하고 이를 구조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정보 통제를 통한 정치적 정보 경로의 왜곡이나[118] 공포심을 유발시켜 안정을 지향토록 하는 방법,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자기 정체성을 국가와 동일시하도록 유도하고 체제안정을 지향하도록 이데올로기를 구사하여 민중의 집단화를 촉발시킨 후 권력 구조에 편입시키는 방법 등이 사용된다. 이하, 아사드 정권이 국민 대중을 상대로 한 포섭과 친체제 구축 방법을 구분하여 살펴본다.

첫째, 후원이다. 시리아는 아랍 사회주의에 기초한 통제 경제를 실시해 왔다. 하페즈 아사드 정권하에서는 국제 금융 기관의 지원을 받지 않고 개혁을 추진한 반면, 바샤르 정권은 민영화와 외국 투자 촉진 정책을 단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리아의 공공 부문은 현재도 사회와

117) Erzow and Frantz, *Dictators and Dictatorship: Understanding Authoritarian Regimes and their Leaders*, p. 56.

118) 정부에 의한 정보의 통제는 시리아뿐만 아니라 비민주 체제에서 널리 목격되는 현상이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치 엘리트들의 동향과 발언 및 과거의 업적을 국영방송이나 정부계 신문이 전달함으로써 정치적 정통성의 원천인 '혁명의 기억'을 국민들 속에 매일처럼 주입하며, 대중매체와 공교육을 통해 '혁명'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게 전달한다. 다시 말해 프로파간다가 권위주의 체제를 장기적으로 지속시키는데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아랍 국가들에서도 정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정부의 정보 통제 역시 변화해 왔으며, 아랍의 봄의 단초로 역할했던 위성방송과 인터넷 소셜 미디어의 확산에 시리아 정부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이미 한계가 노정되었다.

국가 경제 안에서 중심적인 존재이며 예산 분배를 통해 시장을 자극하는 주체이다. 하페즈 집권 이후 1970년대 전체에 걸쳐 시리아에서 공공 부문의 확장은 놀라울 정도였다. 대학과 초중등학교, 병원 등 주요 기관은 대부분 국가가 소유했으며 부동산에서부터 결혼 수속까지 거의 모든 공공 서비스도 국가의 독점 영역이었다. 따라서 시리아 주민들의 국가에 대한 의존도는 대단히 컸으며 이는 바샤르 정권기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일례로 2010년 정부로부터 급료를 받아 생활하는 주민들의 수는 140만 명에 달했다는 통계가 있다.[119] 또 농업과 에너지, 공업 등 시리아 경제의 주요 3개 분야도 모두 국영이다.[120] 문제는 일반 국민들이 공공 부문에 취직하거나 접근하는 데에는 한계가 따르는바, 후원이 절대적인 역할을 했으며 행정 서비스나 사업 활동의 인허가 등도 후원의 대상이 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시리아에서 후원 관행이 확대된 배경은 위에서도 언급한 내재적 사회 분열 구조에 기인한다. 즉, 오스만 제국 시대까지는 지역 공동체가 상당 수준의 자치권을 갖고 있었는데, 위임통치 시기 프랑스는 이러한 시리아 사회의 분단성을 이용했으며, 독립 후에도 분단 구조가 통치 엘리트들 사이의 대립과 분쟁의 원인이 되었음은 위에서 지적한 대로다.[121] 이러한 분단 사회 속에서 바트당은 대중적 기반을 획득하기 위해 후원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데 주력했다. 동 네트워크를 통해 체제에 대한 종속과 충성이 재화나 서비스와 교환된다. 당원들이 자행하는 뇌물 수수와 공금 횡령, 밀수 등의 부패 행위는 이들을 체제에 종속되도

119) Khaddour, "The Assad Regime's Hold on the Syrian State," p. 4.

120) Raymond Hinnebusch, "Syria," in *The Middle East*, 12th edition, ed. Ellen Lust (Washington, D.C.: CQ Press, 2011), p. 690.

121) Mordechai Kedar, *Asad in Search of Legitimacy: Message and Rhetoric in the Syrian Press under Hafiz and Bashar* (Brighton: Sussex Academic Press, 2005), pp. 21~22.

록 묶어두기 위해서 혹은 통제 아래 두기 위해 어느 정도 묵인되었다.[122] 후원 네트워크는 또한 대중 활동을 감시하는 역할을 겸하며, 당 세포가 국영 기업이나 공장 등에 퍼져 있어 생산 활동 실적이 당의 상층부에 보고된다. 이런 식으로 바트당의 구조와 보고 체계는 대중의 분위기를 지도부에 전달하며 반체제 활동의 기미나 불온한 상황에 대한 조기 경보 시스템으로서 기능해 왔다.[123] 바트당은 후원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충성을 이끌어내는 정치 기제이며 또 체제를 유지하는 감시 기구인 셈이다.[124]

후원 네트워크는 바트당의 지방 지부를 매개로 하여 지방의 유력자들이나 농업협동조합, 노동조합 지도자들, 국영기업 경영자 등 사회의 지도층들 사이에 확산되어 있다. 예를 들어 지방 마을의 유력자들은 농업협동조합이나 바트당에 가입하여 조합장도 겸하면서 자원의 일부를 자신의 가족이나 클라이언트의 생활 자금으로 분배한다. 또 그들은 정부가 책정한 개발 계획이나 생산 계획을 자기 마을에서 실시하고, 인민의회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 클라이언트를 동원하여 투표하도록 한다. 사업가들 가운데는 무소속 후보로 인민의회 선거에 출마하여 개인적인 명성과 영향력을 획득하려는 이들도 있는데, 당선될 경우, 정부의 자원(resource)에 접근(access)하고자 하는 이들과의 중개자가 될 수 있으며 의제를 제안할 수 있는 자격도 부여받았다.[125]

둘째는 사회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친정부적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정부 관료나 직원들의 부패, 사회 격차 및 빈곤, 실업 문제는

122) Volker Perthes, *The Political Economy of Syria under Asad* (London: I. B. Tauris, 1995), p. 160.

123) *Ibid.*, p. 158.

124) Alan George, *Syria: Neither Breed nor Freedom* (London: Zed Books, 2003), p. 74.

125) Perthes, *The Political Economy of Syria under Asad,* pp. 188~189.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중동 권위주의 국가들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사회문제들이다.[126] 시리아 정부는 격차 확대에 따른 사회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식료품과 일용품의 가격을 보조금 지급을 통해 낮추는 정책을 시행했다. 예를 들어 보조금으로 가격이 조정된 빵(시리아인들의 주식)은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정책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 밖에도 밀가루와 설탕, 담배, 가솔린 등의 가격이 보조금 덕분에 억제되어 왔다. 1999년 통계에 따르면, 보조금 덕분에 밀가루의 국내 가격은 국제 가격의 64%, 면(綿)의 경우는 국제 가격의 53%에 불과했다. 1999년 이후에도, 밀가루와 면의 국제 가격은 상승했지만 국내 가격은 유지되는 정책이 추진됐다.[127] 가솔린의 경우, 보조금 덕분에 가격이 1리터 당 7 시리아 폰드(미화 약 0.14 달러)로 억제되었으며, 평균 수입 가격인 25 시리아 폰드와 비교할 때 그 격차는 컸다. 과거 5년 동안 시리아 정부는 연간 10억에서 15억 달러를 가솔린에 대한 보조금에 충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레바논과의 국경 부근에서는 가솔린 밀수가 심각해졌다. 이러한 보조금 정책이 극빈한 국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고 결국 국민들로 하여금 정권에 충성하도록 만든다.

내전이 격화되는 가운데에서도 정권은 국가 제도의 운영을 포기하지 않았다. 일례로 2014년 11월 고등교육부 장관은 분쟁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65만 명의 대학생이 등록하고 5만 명이 졸업하는 공공대학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면서 자랑할 정도였다. 또 2015년 1월에는 서부 도시 홈스에서 가스 부족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시 당국이

---

126) Valentine Moghadam and Tabitha Decker, "Social Change in the Middle East," in *The Middle East*, 12th edition, ed. Ellen Lust, pp. 80~81.

127) Bruce Huff, "Options for Reforming Syrian Agricultural Policy Support Instrument in View of WTO Accession," (FAO-Italy Government Cooperative Programme, Project GCP/SYR/006/ITA October, 2004), p. 7.

국영 병원과 제과점, 정수 처리장 등 공공시설이 기능을 멈추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시 당국을 상찬하기도 했다.[128] 내전이 발생하자 정권은 지방 행정 기능을 중앙 정부로 집중시키는 한편, 각 주의 주도(州都)만이 시민들에게 필요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시리아 정부가 통제하지 못하는 반정부 세력 장악 지역의 주민들이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주도로 몰려들었으며, 그만큼 반정부 세력의 입지는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129]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정권의 공공 서비스 제공 역량은 점점 줄어들었지만, 뇌물을 받고 이를 수행하는 관료와 공무원들이 증가하면서 부패는 오히려 정권의 안위를 유지시켜주는 요소가 되었다.

대중 시위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아사드 정권이 신속하게 상황에 적응하려 한 행태도 주목할 만하다. 강압 정책과 동시에 정권은 조직적 시위를 억제하기 위한 시위조정법 등을 정비하고 뒤이어 정치 개혁을 단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시위가 발생한 지역의 도지사를 경질하고 쿠르드인들에게 국적을 부여해 주는가 하면, 정당법을 제정하여 정당 인허가의 법적 절차를 정비하고 지방선거를 실시했다. 더욱이 2012년 2월에 시행된 신헌법에 따르면, 권위주의 정권이 시민사회와 타협하기 위한 다양한 조항들이 삽입되었다. 예를 들어 국가의 정치체제는 정치적 다원주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으며(제8조), 전위정당 조항은 삭제됐다. 또 국가는 모든 종교를 존중하고(제3조), 집회 및 평화적 시위, 파업권을 보장하며(제44조), 인민의회 의원 35명 이상이 대통령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는 조항(제85조)도 신설됐다.

128) Khaddour, "The Assad Regime's Hold on the Syrian State," p. 5.

129) 반정부 장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고 생활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아야만 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연히 정부 장악 지역에서 이들 서류와 봉급을 대신 받아 반정부 지역으로 배달해주는 비공식 직업이 생길 정도였다. *Ibid.*, p. 6.

셋째, 아사드 정권은 주민들 사이에 공포심을 유발하여 안정을 지향하도록 하는 수법을 구사했다. 권위주의 체제는 일반적으로 사회질서 유지라는 명목하에 체제를 비판하거나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감시하고 조사하는 비밀경찰을 설치하고 전국적인 정보 감시망을 깔아두는 경향이 있다. 일부 지배자들의 경우, 감시 대상을 일반 국민이 아니라 자신의 친인척이나 측근 또는 지지 기반 내부로까지 확대하는 경우도 있다. 시리아에서는 첩보 기관, 치안유지 경찰, 무장치안 조직을 통칭 무카바라트라고 부르며, 이 기구가 체제 안팎의 불만분자들을 감시함으로써 바샤르 대통령과 바트당 지배 체제를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무카바라트가 자행하는 자의적 체포와 감금, 고문과 학대는 1963년 3월부터 시작된 '비상사태령'에 따라 일반법의 틀 밖에서 가능해졌다. 정부에 대한 비판은 '애국심을 약화시키는 행위', '유언비어 유포', '정부 기관에 대한 비방' 등의 죄목으로 심문을 받게 되며 무카바라트의 감시와 억압의 대상이 된다. 인권 운동가나 쿠르드인 활동가들에 대한 자의적 체포는 공공연히 이루어지며 장기간 구속되거나 재판에서 구금형을 언도받는 경우도 흔하다.

이렇듯 무카바라트와 같은 치안기관 및 첩보 감시망은 반체제 세력을 분단시키며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불안과 공포를 조장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만과 비판을 억제하고 정치적 무관심을 만연시키는 역할을 한다. 통치 기구에 대한 공포심과 두려움은 현상긍정적인 태도와 질서 유지를 추구하는 안정지향을 촉발한다.

한편, 연쇄적 시위가 내전으로 확대되자 시리아 정부는, 국내 사회가 종파적, 민족적으로 다양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독재 체제가 붕괴됐을 경우 상정할 수 있는 국내의 혼란, 내전 상태에 대한 위기감을 국민들 사이에 조장하기도 했으며, 안정된 생활의 유지와 정권의 존속을 동일시하는 수법도 강구했다. 실제로 이라크와 레바논, 팔레스타인 등 시리

아의 주변국에서 독재 체제 붕괴 후 혹은 선거 후에 극도의 혼란과 사실상의 내전 상태(사담 후세인 체제 붕괴 후의 이라크 내 종파 간 분쟁, 팔레스타인에서 2006년 국회 선거 후 발생한 파타하와 하마스의 분열 등)가 출현한 바 있어, 정권 측의 협박은 결코 과장된 것만은 아니며 국민들에게 어필할 만한 신빙성을 갖고 있었다. 시리아 국민들로서도 설령 현재의 독재 체제가 붕괴할 경우, 그 후에 자신들이 기대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체제가 등장할 가능성에 공포감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다수의 국민이 소극적이나마 현 체제를 지지하고 있는 배경에는 이러한 공포감이 깔려 있다.

2010년 아랍의 봄이 북아프리카 전체를 휩쓸 당시, 시리아 주민들 사이에서 대통령에 대한 저항이 심각하게 발생하지 않은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니었다. 바샤르는 자기 정권의 몰락이 시리아 국가의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는 레토릭으로 주민들을 선동했다. 2015년 2월 바샤르는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시리아"라며 자신과 국가의 운명을 동일시했다.[130]

넷째, 이데올로기의 이용이다. 이데올로기는 일반 국민들의 정체성을 자극하고 국가와의 일체감을 제고함으로써 체제 안정을 도모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아사드 체제에서 이데올로기는 아랍민족주의와 국민주의였다. 시리아의 바트주의 역시 아랍민족주의의 일개 조류였다. 바트라는 말에는 아랍의 위대한 과거를 부활시킨다는 의미가 있으며 시리아 국내에서는 사상가인 자키 알아르수지(Zaki al-Arsuzi)의 정치활동 및 이론 체계화가 큰 의미를 지닌다. 아르수지는 민주주의와 자유의지를 존중하면서도 그 정치 성향은 권위주의적이며 가부장적인 경향

130) "Syria conflict: BBC exclusive interview with president Bashar al-Assad," *BBC*, February 10, 2015, 〈www.bbc.com/news/world-middle-east-31327153〉. (검색일: 2016.8.15.).

을 띠고 있었다. 하페즈 대통령은 자신의 독재 정치를 민주주의적 제도로 은폐하고 권위주의적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 아르수지와 바트주의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측면이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 시리아는 민족과 종파로 분단된 사회이며 종파 집단 간 대립이 끊이지 않은 역사를 경험해 온 까닭에 종파적 정체성을 초월하여 민족 통일을 호소하는 바트당의 이념은 나름의 매력을 갖고 있었다.

한편 이집트의 나세르주의가 퇴조하면서 아랍 세계의 통일을 주창하던 아랍민족주의는 약화되어 갔으며 중동 각국 정부가 국가통합을 진척해나가던 1970년대가 되면서 일국 민족주의라 할 국민주의가 강화된다. 쉽게 말하면 아랍 전체의 이익보다 각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노정된 것이다. 시리아에서 바트주의가 아사드 정권의 정통성을 담보하는 이념으로 변질되는 과정은 국민주의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시리아의 세속주의는 이슬람주의 내지 정치적 이슬람을 단호히 반대하며 타협하지 않는다. 이슬람주의가 체제 비판 이념으로 부상하게 되자 시리아 정부는 이슬람 정치운동을 혹독히 탄압했다. 이미 1970년대 말부터 무슬림동포단과 바트당 정권 사이에 무장 투쟁이 계속되었는바, 1980년 3월에는 동포단을 중심으로 한 저항운동이 민중봉기로 발전하면서 이슬람 운동에 의한 반정부 활동이 지방 도시들로 확대된 적이 있었다. 시리아에서 이슬람 혁명을 일으키고자 했던 동포단은 1981년 4월 하마 폭동 진압 사건으로 좌절을 경험했으며 이듬해 2월에 재차 하마에서 봉기를 일으켰으나 정부군의 대규모 공격을 받고 수천에서 3만 명에 이르는 희생자를 낸 '하마 학살'로 궤멸됐다. 최근의 내전 상황을 틈타 ISIS(급진 무장단체 이슬람국가)의 세력이 시리아에서 핵심 반체제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나, 이슬람주의의 확장에 대해서는 시리아 정부뿐만 아니라 세속주의 성향의 반체제 세력들, 더 나아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미국과 러시아 등 내전

개입 국가들까지 반대하고 있어, 오히려 아사드 정권의 정당성을 제고시켜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다. 국제적 지원[131]

아랍의 봄 열기가 중동 지역 전체로 확산되고 있을 당시, 바샤르 대통령이 시리아의 상황은 시위로 정권이 전복되고 있는 북아프리카 국가들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았던 것도 결코 오판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가 오판한 것은 시리아의 외교정책이 주변 아랍 국가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었고 서방 국가들이 아랍의 봄을 이용해 아랍 장기 독재 국가들을 전복하려고 의도했다는 사실이다.

2013년 6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시리아 정세의 악화를 우려하면서 아사드 정권이 화학무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이 같은 주장을 구실로 시리아 반체제 세력을 지원하게 된다. 동년 6월 22일, 도하에서 개최된 11개국 각료 회의는 시리아 반체제 세력에 대해 무기 공급을 비롯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서방의 의도는 명백히 반체제파 지원을 통해 아사드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것이었는바, 이에

131) 저명한 정치학자들은 외부 요인의 역할이 권위주의의 생존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니콜 잭슨은 "외부 요인들은 권위주의 국가가 현상을 유지하고 권위주의 지배를 더욱 확고히 하는 데 영향을 준다"고 분석한다. 이에 관해 다음 참조. Nicole J. Jackson, "The Role of External Factors in Advancing Non-Liberal Democratic Forms of Political Rule: A Case Study of Russia's Influence on Central Asian Regimes," *Contemporary Politics*, vol. 16, no. 1 (2010), p. 102; 또 피터 버넬과 올리버 쉴럼버거는 오늘날 두 개의 국가가 권위주의 지도자들을 지원하는 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을 비판했다. 다음 참조. Peter Burnell and Oliver Schlumberger, "Promoting Democracy-Promoting Autocracy? International Politics and the National Political Regimes," *Contemporary Politics*, vol. 16, no. 1 (2010), p. 12.

대한 반작용으로 시리아 주변국들이 개입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우선 레바논에서 활동 중이던 시아파 이슬람주의 조직 헤즈볼라가 2013년 6월, 아사드 정부 지원을 위해 개입을 선언했다. 시아파의 준동을 우려한 수니파 국가들, 즉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이집트의 저명한 이슬람 법학자들이 시리아에서 지하드를 수행하도록 수니파 이슬람 교도들에게 호소하면서 시리아 내전은 종파 분쟁의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132]

시리아와 전통적 동맹 관계에 있던 이란 정부로부터의 지원도 아사드 체제의 생존을 위해서 무시할 수 없는 변수로 작용했다. 혹자는 시아파의 종주국으로 인식되는 이란이, 같은 시아파 정권인 아사드 체제에 종파적 친밀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단순한 생각이다. 왜냐하면 앞장에서도 지적했듯, 시아파의 입장에서 알라위파는 이단 종파이며 시아파의 일원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란이 시리아에 대해 갖고 있는 정치적·경제적 이익이 아사드 체제를 생존시키려는 테헤란 정부의 주된 의도이다. 그 상징적 사건으로서 밀라니 모센(Milani Mohsen)은 2013년 7월, 이란과 시리아가 체결한 협정에 주목한다. 동 협정에 따르면 이란 중앙은행은 시리아가 이란 산 원유를 구매할 수 있도록 36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그 대가로 이란이 시리아에 막대한 금액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얻어냈다는 것이다.[133] 이 돈으로 아사드는 무기를 구입했으며 덕분에 내전을

---

132) 전통적으로 무슬림을 분쟁의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집트, 튀니지 등 중동 이슬람 국가들의 정권은 분쟁을 종교화하여 자국 내에서 활동하던 이슬람주의 반체제 세력들을 '수출'(혹은 자발적 성전 참가)하는 일에 관심을 두어왔다. 이는 국내의 반체제 과격파들의 숫자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주며 이른바 성전 참가 과정에서 과격파들 사이에 종종 발생하는 분열로 인해 이슬람주의자들의 세력 약화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高岡豊, "なぜアサド政権は倒れないのか？――シリア情勢の現状と課題," Synodos, 2013.7.2. 〈http://synodos.jp/international/4734〉. (검색일: 2016.9.1.).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고 모센은 주장한다. 또 이란이 레바논에서 갖고 있는 이익과 권리를 유지 및 확대하려는 의도와 더불어 미국,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도 이란의 아사드 지원을 설명하는 동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시리아의 또 하나의 우방인 러시아는 내전에서 열세에 처해 있던 아사드 정권을 구제하는 데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러시아는 2013년 미국과 영국이 시리아를 폭격하려 한 시도를 막기도 했으며 2015년 9월에는 직접 군사 개입을 감행하여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2016년 1월부터 시작된 시리아 평화 협상에서도 러시아는 적지 않은 존재감을 과시하며 아사드 체제의 생존을 위해 분주하다. 왜일까?

푸틴의 러시아가 아사드 체제의 붕괴를 막고자 하는 원인으로 자주 거론되는 것은 첫째, 시리아가 러시아제 무기의 수입국이라는 점,[134] 둘째, 타르투스 항에 러시아 해군의 거점이 위치해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시리아가 내전 발발 이전인 2007년부터 2010년에 걸친 기간 동안 러시아와 체결한 무기 수출 계약은 수십억 달러 규모에 불과해, 연간 150억 달러의 무기 수출액을 자랑하는 러시아로서는 시리아가 결코 사활적인 시장은 아니다. 또 내전으로 인해 시리아에 대한 무기 수출이 어려워지자 러시아는 신규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무기 수출액에 커다란 손실을 초래하지도 않았다.[135] 더욱이 산유국이 아닌 시리아는

133) Milani Mohsen, "Why Tehran Won't Abandon Assad(ism)," *Washington Quarterly*, vol. 36, no. 4 (2013), p. 87.

134) 소련은 1950년대 중반, 무기 공급을 통해 이집트나 시리아 등 아랍 국가들에 접근했다. 무기 공급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요원의 훈련이 필요한바, 많은 시리아 청년들이 훈련을 받기 위해 소련으로 건너갔다. 하페즈 대통령도 미그 전투기 조종사로 소련에서 훈련을 받은 경험을 갖고 있다. 그 밖에도 재소 시리아 유학생들의 상당수가 러시아인 여성과 결혼한 탓에 현재 그 수는 2~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러시아와 시리아를 이어주는 인적 연계가 중요한 까닭이다.

135) 사우디아라비아는 러시아의 시리아 지원을 막기 위해 100억 달러 규모의 무기 구입을 러시아에 제안했으며 러시아가 시리아에 군사 개입하기 전인 2015년 6월에

러시아제 무기의 구입 자금에서 늘 쪼들린 모습을 보였고, 러시아는 소련 시기에 시리아가 진 134억 달러의 채무 가운데 73%에 해당하는 98억 달러를 탕감해주기도 했다. 다시 말해 시리아는 러시아의 무기 시장으로서 썩 달가운 고객은 아니었던 셈이다.

또 러시아가 타르투스 해군 거점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내전에 개입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하다. 타르투스에 있는 러시아 군 시설은 해군 기지가 아니라 물자장비 보급 거점(PMTO)이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동 거점을 확장하여 해군기지로 만들고자 하는 구상은 러시아 내부에서 종종 제기되어 왔지만 현재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136]

그렇다면 러시아가 군사 개입을 불사하면서까지 아사드 살리기에 급급한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 첫째는 현재의 시리아가 이란과 함께 소중한 중동의 우호 국가이기 때문이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이라크나 리비아에서 친러 정권이 붕괴함으로써 시리아와 이란의 상대적 중요성이 제고됐다는 점이 러시아의 결정적 개입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여기에 러시아와 우호 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체제 전환의 물결에 휩쓸리는 것을 막고자 하는 푸틴의 위협 인식, 더욱이 옛 소련 국가들에 친미 정권을 등장시킨 2000년대의 색채혁명(Color Revolution)이 중동 지역에 재현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푸틴의 세계 전략이 주효하게 작용했다. 둘째는, 체첸 등 러시아령 북코카서스(North Caucasus) 지역의 이슬람 과격파 세력이 시리아에서 확대일로에 있는 ISIS 세력과

도 무함마드 부왕세자 겸 국방부 장관을 상트페테르부르그 경제포럼에 참석시켜 대규모 대러 투자를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사우디의 제안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시리아 지원도 중단하지 않고 있다.

136) 하지만 러시아가 시리아에 군사 개입을 개시한 이후, 타르투스의 PMTO가 병탄을 위한 중요 거점이 된 것은 확실하며, 향후에도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군사적 존재감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동 항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계될 것을 우려해 러시아가 시리아 내전에 개입했을 개연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일부 논자들은 러시아의 목표가 아사드 개인이 아닌 아사드 정권을 보호하고 시리아의 정세 불안을 불식시키는 것이라고 본다. 2015년 11월, 빈에서 열린 다자간 외무장관 회담에서 러시아가 아사드 대통령의 퇴진을 허용하는 대신 아사드 정권 세력의 누군가가 새롭게 정권을 계승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비밀 제안을 내놓았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당시 푸틴 대통령이 아사드에게 퇴진을 권유했다가 거절당했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그 진위는 불확실하다.

3. 아사드 체제의 전망

2011년 풀뿌리 반체제 저항 운동으로 시작된 시리아 사태가 아사드 정권의 강경 진압을 거쳐 내전으로 확대된 지 5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이 글을 쓰고 있는 2016년 9월 현재, 시리아가 처해 있는 상황은 전쟁의 종식과는 거리가 멀다. 주민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제공받아야 할 공공 서비스가 완전히 파괴된 지역이 적지 않으며 학교를 가지 못해 거리를 배회하는 아이들이 전염병에 노출되어 있다. 기아와 성폭력은 전쟁 수행을 위한 무기로 변했다. 각 지역을 개인 수하에 두려는 군벌들과 과격 집단들, 아사드 체제에 충성하는 군과 보안기구, 해외에서 몰려온 의용병들과 반체제 민간 및 군사 분파들이 뒤섞여 인간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이미 2만 명 이상의 시리아 주민이 사망했고 2,400만 전체 인구 가운데 절반 이상이 난민으로 전락했다. 주지하다시피 시리아 난민 사태는 인류가 경험한 최악의 난민 문제가 되리라는 전망이다.[137]

137) 시리아 내부에서 발생한 난민의 수는 660만 명으로 추산되며 2011년 내전 발발

하지만 2016년 6월 7일, 시리아 의회에서 행한 연설 속에서 아사드 대통령은 반정부 세력과의 평화 교섭이 적들의 함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시리아의 모든 영토를 곧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호언했다. 이러한 아사드의 자신감은 불과 1년 전인 2015년 7월 연설에서 보여준 그의 태도와는 180도 다른 것이었다. 당시 그는 반정부 세력이 국토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있으며, 정부군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지역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지역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음을 인정했었다. 물론 아사드가 자신감을 회복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러시아의 군사 개입이다. 폭격과 미사일 공격, 군사 훈련 등 러시아의 지원에 힘입어 아사드 정권의 중추라 할 알라위파의 집중 거주 지역인 시리아 서북부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일관되게 시리아를 지원해 온 이란과 함께, 러시아는 북부 알레포 주의 반정부 세력을 거의 괴멸시켰으며 수도 다마스쿠스 주변에서도 반정부 세력을 약화시켰고 남부에서는 반정부 세력의 확장세를 저지했다. 이를 계기로 아사드 정권은 이슬람 테러 조직 ISIS를 소탕하는 데 주력하면서 시리아의 동서를 연결하는 전략 거점 팔미라를 탈환하고 ISIS가 거점으로 삼고 있는 타부카를 향해 진격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타부카를 장악하게 되면 ISIS의 수도인 라카까지는 1시간 거리에 불과하다. 이는 시리아 정부군이 쿠르드인이나 기타 반정부 세력보다 먼저 ISIS를 붕괴시킬 수 있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아사드 정권은 서방이나 반정부 세력과 타협하지 않더라도 극적으로 전략적인 입장에 서게 된다. 아사드 정권이 ISIS와 전투를 벌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서방

이후 현재까지 국내를 탈출하여 외국으로 유입된 난민의 수는 유엔에 등록된 숫자만도 460만 명에 달한다. UNHCR, "Syria Regional Refugee Response," Interagency Information Sharing Portal, 〈http://goo.gl/49ZhQW〉. (검색일: 2016.9.11.).

국가들도 대테러 전쟁의 파트너로서 아사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다. 미국 역시 지금은 아사드의 퇴진보다 ISIS 타도를 목표로 내걸고 있는 만큼 아사드와 제휴하고 있는 셈이다.[138]

물론 아사드가 호언한 것처럼 정권 측의 승리가 눈앞에 있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주요 거점에서는 반정부 세력이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남아 있으며 아사드가 탈환한 영토 역시 전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반정부 세력은 북서부의 이들리브에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시리아 남부나 다마스쿠스 교외에서도 상당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군이 라카나 딜 아르주르에서 ISIS를 소탕하려는 시도 자체도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군 안에 병사와 물자가 부족하고 경제는 파탄 직전이며 국민들의 원성도 쌓여가는 상황이니, 내전이 종식되더라도 아사드 정권이 이전처럼 전 국토를 보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전 발발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사드 체제가 생존해 온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본론에서 고찰한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하면서 아사드 정권이 생존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을 적시한다면, 한마디로 정권이 국가를 장악하는 데 성공했고 시리아 주민들은 아사드 정권 이외에 그 어떤 정권이나 세력으로부터도 대안을 찾을 수 없었다는 점이다. 하페즈와 바샤르의 2대에 걸친 아사드 집권기 45년은 시리아 국가를 아사드 정권과 동일하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조성했고, 주민들에 대한 사회, 복지, 교육 및 기타 생존과 관련한 모든 요소들의 제공자는 아사드 정권뿐이었다. 다른 반정부 세력은 물론, 세력 확장에서 주목할 만했던 ISIS 조차도 '제공자(provider)'로서 아사드 정권을 대신하지는 못했다. 여타 중동 국가들

138) 현재 ISIS 소탕 작전에서 가장 큰 성과를 내고 있는 세력은 시리아의 쿠르드인 반정부 세력 '시리아민주군(SDF)'과 아사드군 그리고 기타 소규모의 반정부 세력들이다. 미국은 SDF를 지원하면서도 아사드 정권을 묵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는 달리 시리아에서 주민들과 엘리트의 이반이 최소에 그쳤던 가장 큰 원인은 여기에 있다. 시리아 정세를 연구하는 케데르 카두르는 "정권이 국가를 무기로 사용"했다고 단언한다.[139]

시리아 군은 정권을 교체하고 국민국가를 유지하려던 다양한 세력들, 요컨대 세속주의적인 온건파 야당이나 이슬람주의 세력들의 초기 시도를 무자비하게 억압·분산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런 반면, ISIS에 대해서는 그들이 정권의 대체 세력으로 자처하면서 스스로의 공공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구축 및 확장시켜 나가도록 방치해 두었다. 이는 "아사드냐, ISIS냐"라는 이분법적 선택지를 주민들로 하여금 받아들이도록 만들었으며, 결과적으로 다수의 주민들은 아사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140]

139) Khaddour, "The Assad Regime's Hold on the Syrian State," p. 7.
140) *Ibid.*, pp. 3~4.

Ⅳ. 투르크메니스탄 사례연구

백우열(성균관대학교)

1. 투르크메니스탄 독재체제: 연구 필요성과 현황

가. 최근 중동사태의 비교권위주의 연구에의 함의

최근 중동사태는 2000년대 초중반 본격화된 현대 권위주의 정권 연구를 본격화하는데 큰 계기가 되었다.[141] 기존의 비교권위주의 연구의 핵심 지역이 남아메리카와 더불어 중동(Middle East)이었고[142] 제4의 민주화 물결이 2000년대 중반 동유럽, 코카서스(우크라이나, 조지아), 그리고 중앙아시아(키르기즈스탄)에서 발생한 '색깔 혁명'에 이어 2010년대 초반 중동(튀니지, 리비아, 이집트, 시리아, 예멘)의 재스민 혁명에서 본격화되는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wishful thinking)을 유발하였다.

그러나 정치적 현실은 최근 재스민 혁명으로부터 비롯한 일련의 중동사태 이후 튀니지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민주주의로의 이행보다는 기존 권위주의로의 회귀(이집트, 예멘), 또는 다른 유형의 권위주의로의 전환 및 강화(리비아), 그리고 내전 발발(시리아) 등의 부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또한 이 중동사태 이후의 중동 및 주변 권위주의 정권들의 체제 붕괴 및 전이 또는 복구와 지속성 강화의 사례는 중앙아시아, 코카서스, 동북아시아(특히 북한), 동남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141) 비교정치연구에서 일반적인 연구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세 번의 민주화 물결과 더불어 권위주의 정권의 민주화, 그리고 민주주의의 공고화라는 연구 주제가 정치학계를 주도했으며 기존의 린쯔와 스테판 등 일군의 제3세계(중동,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 정치 연구자들이 구축한 여러 이론적·실증적 연구는 1990년대 말까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의 저서 참조. Huntington,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Huntington,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142) 이와 관련해 다음 참조. Chehabi and Linz, eds., *Sultanistic Regimes*; Guillermo O'Donnell and Philippe C. Schmitter, *Transitions from Authoritarian Rule, Vol. 4: Tentative Conclusions about Uncertain Democracie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6), pp. 1~72.

의 권위주의 정권들에게 큰 주목을 받았다.[143]

이러한 맥락에서 중동사태는 지리적으로 근접한 코카서스와 중앙아시아의 권위주의 정권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144] 그 이유는 이 지역 국가들은 중동 지역 국가들과 유사하게 대부분 권위주의 정권으로 분류되며 종교적(이슬람-수니/시아), 사회적(부족(tribe) 및 씨족(clan) 중심), 경제적(지하자원-석유/가스 의존), 역사적(아랍, 투르크, 페르시아 제국들의 후예)으로도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화이론의 하나인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로의 민주주의의 확산(democratic diffusion) 논리를 기반으로 중동사태는 중동과 매우 근접한 코카서스와 중앙아시아 권위주의 정권들이 주목하고 경계하고 학습하는 정치 현상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동사태가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한 중동의 권위주의 국가 체제 지속성 연구는 중앙아시아, 코카서스 권위주의 국가 체제 지속성, 나아가 북한과 같은 동북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의 권위주의 국가 체제 지속성과의 비교연구의 중요한 시발점이라 하겠다.

나. 중동 비교민주주의 연구에서의 투르크메니스탄 연구의 필요성

본 "최근 중동사태에 비추어본 북한 체제 지속성 연구"는 중동 자체보다는 중동 지역의 개별 국가들이 여러 문화적·정치적 차별성에도

143) 예를 들어 Sarah Lange, "The End of Social Media Revolutions," *The Fletcher Forum of World Affairs*, vol. 38, no. 1 (2014), pp. 47~68.

144) Ekaterina Koldunova, "The Impact of the Arab Spring on Central Asia: Regional and Macro-regional Implications," in *Security in Shared Neighbourhood: Foreign Policy of Russia, Turkey and the EU*, eds. Rémi Piet and Licínia Simão (London: Palgrave Macmillan, 2016), pp. 145~169.

불구하고 대부분 개인독재체제(personalist regime)의 요소가 많은 권위주의체제라는 점에 천착한다. 중동 및 중동의 주변지역(중앙아시아, 코카서스) 국가들은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종교, 문화, 다민족/다종족, 화석연료(석유/가스) 자원 의존 경제 등의 측면에서 상당히 유사하고 역사적인 경험도 공유하여 권위주의 체제의 지속성 연구를 위한 다수의 변수 통제가 가능하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하여 중동 및 중동 근접 지역 사례를 통해 도출된 여러 이론적·실증적 결과를 북한에 적용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동과 바로 인접하여 이란, 아프카니스탄과 국경 공유하며 터키-아제르바이잔과 투르크 문명으로 연결된 투르크메니스탄의 사례는 전체적인 비교연구에서 그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투르크메니스탄은 중동을 광범위하게 정의할 때 반드시 포함되는 국가이고 다른 중앙아시아 4개국(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기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보다 중동에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다. 중동국가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아프카니스탄과 국경을 공유하거나 정치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둘째, 종교적으로 이슬람 국가이며 다종족 체제로서 개인(personalist) 또는 개인-일당독재 복합 권위주의체제(personalist/one-party authoritarian regime type)를 중심으로 정치체제를 형성·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다른 중동 국가 비교 사례인 시리아와 이집트와도 유사하다. 셋째, 투르크메니스탄은 중동사태에 직접적인 사례 국가들과 경제 구조 측면에서도 유사하여 가스 및 석유 자원에 의존, 일종의 '자원의 저주(resource curse)'의 영향을 받는 형태이라는 점도 비교연구 사례로서의 장점이다.

마지막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은 이러한 중동 개인 또는 개인-일당독재 권위주의 국가들과 유사하면서 기존 비교정치학계, 정책 커뮤니

티, 민주주의 연구기관(예를 들어 Freedom House)에서 이 연구의 궁극적 연구 목표인 북한과 가장 유사하게 분류되는 독재 권위주의 체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145] 또한 이 연구 프로젝트의 핵심 포커스가 권위주의 체제의 지속성과 생존에 대한 위협 요소를 대중 차원에서 밑으로부터의 봉기가 아닌 지배 엘리트의 단합과 분열을 중심으로 한 체제 자체의 역량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대중봉기를 경험하지 않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연구를 통해 유사한 사례인 북한에 대한 시사점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이 장에서는 투르크메니스탄의 권위주의체제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소비에트 시기 전후, 1대 대통령인 사파르무랏 니야조프(Saparmurat Niyazov) 시기, 2대 대통령인 구르방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Gurbanguly Berdimuhamedov) 시기를 역사적·대사기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이를 기반으로 투르크메니스탄 권위주의체제의 연속성의 원인을 게디스(Barbara Geddes)의 권위주의 독재체제에 관한 세 가지 분류법을 중심으로 권위주의체제의 술탄주의적(sultanism), 신가산주의적(neo-patrimonialism) 후견주의(clientelism) 네트워크, 그리고 강력한 폭력을 기반으로 한 통제체제의 분석틀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이를 통해서 북한 김씨 일가 권위주의 정권의 생존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146]

---

145) 자세한 비교는 프리덤하우스 웹사이트(https://freedomhouse.org/report-types/freedom-world) 참조.

146) 이와 관련해서 다음 참조. Geddes, *Paradigms and Sand Castles: Theory Building and Research Design*, pp. 27~88.

2. 투르크메니스탄 권위주의 체제 형성의 역사적 배경과 과정

가. 투르크메니스탄 역사적 배경과 니야조프의 등장

역사적으로 중동과 중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유사한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며 살아 온 다양한 투르크멘 민족과 부족 그리고 씨족의 역사는 천 년이 넘는다고 평가받지만 이 민족의 여러 부족들과 씨족들을 통합하여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국가'를 형성한 역사는 상대적으로 짧다. 전근대 시기의 투르크멘 민족은 민족 전체 단위의 정체성보다 부족 및 그보다 작은 단위인 씨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지역적으로 흩어져 있는 유목민족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민족의 정치 단위는 러시아의 제정러시아 시대의 대규모 영토 확장 및 병합 정책에 기인하여 이 투르크멘 지역은 히바 칸국, 부하라 에미르국을 형성하면서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다.[147]

이러한 투르크멘 민족의 국가는 1917년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과 이에 따른 제정러시아의 각 지역의 소비에트화 또는 공산화 작업이 진행되면서 이 지방 국가들의 붕괴와 동시에 부하라 인민공화국, 호레즘 인민공화국, 투르케스탄 자치공화국이 건립되고 1924년 투르크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urkmen Socialist Soviet Republic)이 건국되면서 비로소 시작된다.[148]

147) 황영삼, "투르크메니스탄 민족국가 형성에 관한 연구: 20세기 초 투르크멘 공화국 체제의 출범 배경과 쟁점 및 의의," 『슬라브학보』, 제30권 1호 (2015), pp. 495~541.

148) 소련 주도의 중앙아시아 각국의 건국 과정은 카자흐스탄(키르기즈 공화국)이 소련의 직할령으로, 우즈베키스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타지키스탄 자치주를 포함하는 등, 민족주거지 중심의 지리적 경계를 중심으로 복잡하게 전개되었으며, 이는 현재 중앙아시아 5개국의 국경을 획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의 투르크멘 민족들은 현재의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민족인 우즈벡인 등

위의 제정러시아 시기와 소련 초기 투르크메니스탄 국가의 형성에 가장 중심적 역할을 한 투르크멘 부족은 '아할테케 부족(the Ahalteke tribe, 아할지역의 테케부족)'이었다. 현재 투르크메니스탄의 중심 지역에 거주했던 아할테케 부족은 러시아의 영향을 받아들여 제정러시아 시기와 소련 시기에 다른 투르크멘 부족들을 압도할 정도로 지배적인 부족으로 등장했다. 이 아할테케 부족을 중심으로 소련의 지배 초기부터 전통적인 부족 중심의 정치 체제, 근대 사회주의 정치 체제, 그리고 러시아의 준 식민지 또는 주변부 정치 체제를 결합한 정치 체제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투르크멘 공화국의 지배 엘리트 계층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냉전이 본격화되는 시기와 맞물려 소련 중앙정부로부터 파견된 러시아계통의 제2당서기와 지방공화국 내 출신으로 투르크멘 민족적 기반을 가진 제1당서기의 협력구조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물론 제1당서기가 주도하고 제2당서기가 보조 또는 감시하는 역할을 했지만 제1당서기의 임명권 또는 통제권이 중앙정부의 권한이었으므로 당연히 투르크멘 정치 엘리트들은 소련 중앙정부의 영향력하에 있었다.[149]

이러한 정치체제는 1980년대 중반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 정책인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 정책이 본격화되고 이 일환으로 지방공화국들에 대한 개입 축소와 기존 지방 후견주의와 부패 타파를 목표로 중앙아시아의 기존 정치 엘리트들에 대한 숙청과 교체 작업이 병행되면서 큰 변화를 맞게 된다. 이런 정치적 변화 속에서 1985년 사파르무랏 니야조프가 투르크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제1서기로 임

과 영토 분할, 트루크메니스탄 국가 내의 타소수민족과의 문제 등을 놓고 큰 갈등을 겪었으며 이러한 갈등 관계는 현재까지 국가 간 분쟁의 불씨로도 남아 있다.

149) Slavomir Horak, "The Elite in Post-Soviet and Post-Niyazow Turkmenistan: Does Political Culture Form a Leader?" *Demokratizatsiya*, vol. 20, no. 4 (2012), pp. 371~375.

명되었다.

니야조프 제1서기는 위의 고르바쵸프하의 중앙정부 입장에서 아주 적절한 인물로서, 위에서 언급한 투르크멘 민족의 가장 강력한 부족인 아할테케 출신이면서도 고아로서 기존의 투르크멘 사회의 강력한 후견주의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소련의 보수적인 사회주의 체제와 중앙정부에 대한 충성이 강한 인물이었다.[150] 니야조프는 소련의 중앙정부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소비에트 체제 자체에 대한 긍정적 자세를 보였으며 투르크메니스탄의 자주성 또는 독립 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이로 인해 그의 투르크메니스탄의 정치체제 및 정치엘리트 집단에 대한 장악력은 약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니야조프는 소련의 붕괴 이후 다른 중앙아시아 및 코카서스 지역의 지방 국가들의 지배층 관료들과 마찬가지로 급속도로 투르크메니스탄의 소련 또는 러시아로부터의 독립과 자주성을 내세운다.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정치인의 속성, 즉 자신의 자리(office)를 유지하고자 하는 원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더이상 고르바초프 이후 옐친의 러시아 중앙정부는 니야조프를 투르크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제1서기에서 물러나게 할 수 없었다. 이러한 포스트 소비에트 시기에 접어들면서 기존에 중앙정부에 의해 임명된 중앙아시아 5개 각국의 제1서기들과 고위 간부들(cadres)과 유사하게 니야조프와 고위 간부들은 대안의 부재 속에서 투르크메니스탄 정치를 장악해나가게 된다.

이러한 투르크메니스탄 권위주의 체제의 시기적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위에서 언급한 제1대 대통령 니야조프(1985~1991, 1992~2006)와 그의 사후 신속하게 권력을 장악한 제2

150) Sebastien Peyrouse, *Turkmenistan: Strategies of Power, Dilemmas of Development* (New York: M.E. Sharpe, 2012), pp. 69~72.

대 대통령 베르디무하메도프(2007~현재)의 두 시기이다.[151] 전자는 아래에서 자세히 분석하고자 하는 투르크메니스탄의 술탄주의적 성격을 띨 정도로 개인독재자 중심의 '개인독재-일당형 복합 권위주의(personalist-single party hybrid authoritarian regime)'를 구축하여 16년이라는 장기간 집권에 성공하였고 후자는 이러한 권위주의체제를 전자의 사후에 신속히 승계하여 현재 10년 넘게 집권, 향후 영구집권까지 시도하고 있다.

나. 니야조프 집권 시기[152]

소련의 소비에트 정치 시스템 옹호자였던 보수주의자 니야조프는 1985년 12월 투르크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제1서기로 임명된

---

151) 이와 관련해 다음 참조. Luca Anceschi, *Turkmenistan's Foreign Policy: Positive Neutrality and the Consolidation of the Turkmen Regime* (London: Routledge, 2009), pp. 32~48; Peyrouse, *Turkmenistan: Strategies of Power, Dilemmas of Development*, pp. 69~72; Nicolas Kunysz, "From Sultanism to Neopatrimonialism?: Regionalism within Turkmenistan," *Central Asian Survey,* vol. 31, no. 1 (2012), pp. 1~16; Rico Isaacs, "Charismatic Routinization and Problems of Post-Charisma Succession in Kazakhstan, Turkmenistan and Uzbekistan," *Studies of Transition States and Societies*, vol. 7, no. 1 (2015), pp. 58~76; Jim Nichol, "Turkmenistan: Recent Developments and U.S. Interests," (Congressional Research Report 7-5700, December 15, 2013), 〈fas.org/sgp.crs/row/97-1055.pdf〉. (검색일: 2016.8.18.); Abel Polese and Slavomir Horak, "A Tale of Two Presidents: Personality Cult and Symbolic Nation-Building in Turkmenistan," *Nationalities Papers*, vol. 43, no. 3 (2015), pp. 457~478; Charles J. Sullivan. "Halk, Watan, Berdymukhammedov!: Political Transition and Regime Continuity in Turkmenistan," *Region: Regional Studies of Russia, Eastern Europe, and Central Asia*, vol. 5, no. 1 (2016), pp. 35~51; 이지은, "투르크메니스탄 권위주의체제연구," 『아시아문화연구』, 제22집 (2011), pp. 141~171.

152) 이와 관련해 다음 참조. Anceschi, *Turkmenistan's Foreign Policy*, pp. 32~48; Peyrouse, *Turkmenistan: Strategies of Power, Dilemmas of Development*, pp. 69~88.

이후 차츰 권력을 확대해 왔고 소련의 붕괴가 명확해진 1992년에는 누구도 도전하기 어려울 정도의 권력을 확보했다. 그러나 소비에트의 지방정권에서 독립된 국가인 투르크메니스탄의 정권으로 전이(regime transition)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과정이었다. 우선 신생 국가의 국가기구와 구조를 구축해야 했고 이는 헌법 제정, 소비에트 행정체제 및 기존 고위 간부 관리 체제, 직접선거를 기반으로 하는 의회(Mejlis) 창설, 투르크멘 민족 특유의 제도로서 '인민평의회(Khalk Maslakhaty)'의 창설, 수도(Ashgabadt)와 5개 지방주(province) 시스템의 확정 등등이었다.

니야조프와 집권 엘리트들은 서구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 등을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기존 소비에트 중앙정부 시스템을 기본으로 하여 구성하였고 '군주제적' 대통령제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 체제를 구축하였다.[153] 물론 경제 체제에서도 서구식의 시장자본주의를 도입하지 않았다.

초대 대통령으로서 니야조프는 신속하게 소련체제하의 투르크메니스탄을 식민지로 규정하면서 그 기간 동안 러시아의 통치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투르크멘 민족들이 지속적으로 외부의 강대국들에게 '분할과 지배(divide and rule)' 전략에 희생당했음을 강조하고, 이러한 역사의 종지부를 찍고 과거 투르크멘 민족의 단합과 영광을 재현하자는 민족주의적인 전략을 강화하였다. 독립 이후 1994년 1월에 제정된 헌법으로부터 부여된 대통령의 권리인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니야조프

153) 투르크메니스탄 건국 초기 구성된 니야조프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은 다음과 같다. (1)헌법, 법 제정과 시행권, (2)인민평의회 연례보고권, (3)의회로부터 예산 검토 및 승인 시행권, (4)인민평의회에서 승인된 국민투표권, (5)투르크메니스탄 시민권 부여권, (6)의회의 사전동의하 대법원장, 고급상법원장, 검찰총장 임명 및 파면권, (7)헌법과 법이 지정한 권한으로 기타 다른 이슈 결정권(투르크메니스탄 헌법 57조항).

의 대통령 임기를 선거 없이 2002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전체 투표의 99.99% 찬성이라는 믿기 어려운 지지로 통과시켰다. 이러한 정치적 움직임은 1999년 니야조프가 종신대통령임을 선포한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니야조프 대통령의 영구집권 시도가 투르크메니스탄의 엘리트와 대중으로부터 큰 저항, 소요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니야조프의 종신대통령제로의 개인독재 권위주의적 방향 설정과 실천은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된다.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중앙아시아 5개국은 정치체제를 민주주의로 전환시키려는 표면적인 시도와는 달리 개인독재자를 기반으로 한 권위주의를 형성하고 공고화하였다. 다시 말해서 위의 니야조프의 투르크메니스탄과 유사하게 외형적으로 정기 또는 부정기적인 선거 실시를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시스템은 구축되었지만 초법적인 조기 대선, 국민투표를 통한 헌법 개정 및 이를 통한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영구화, 대통령에 복종하는 형식적인(rubber stamp) 의회 추인 등을 활용하여 정권을 연장하고 개인독재 또는 개인독재-일당권위주의체제를 구축하였다. 예를 들어 소련으로부터 독립 이후 초대 대통령인 카자흐스탄의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 대통령은 1995년 국민투표를 통해서 자신의 임기를 2000년까지 연장하고 신헌법 개정을 통해 임기를 7년 중임으로 개정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2006년 12월에 예정된 대선을 2005년 12월에 실시, 대통령 3선을 이루고 현재까지 집권 중이다. 독립 이후 우즈베키스탄 초대 대통령인 이슬람 카리모프(Islam Karimov) 대통령은 2000년 대선에서 5년 임기의 대통령에 재선, 2002년에 국민투표를 통해 임기를 7년으로 연장하여 2007년 대선에 당선되었다. 이 두 대통령은 헌법 개정을 통한 대통령 임기 변경 이후 출마하고 당선되었기 때문에 헌법에 명시된 3선 연임 금지 조항에 위배되지 않음을 강조했다.[154)]

이렇듯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중반에 걸쳐 이웃 중앙아시아 4개국의 권위주의체제 지도자들의 장기집권 공고화와 더불어 니야조프도 권위주의 체제 공고화를 진행한다.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위에서 분석한 투르크멘 민족의 가장 큰 특징인 각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형성된 강력한 5대 부족 엘리트 세력 약화 및 아슈하바트 중앙정치에서의 잠재적 정적 세력 제거 작업을 완료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투르크멘 민족 사회의 5개 부족의 대표들을 포함하여 각 부족의 정체성과 결집력을 약화시키는 인민평의회를 강화하였다.

2001년 니야조프 개인 우상화(personality cult)의 상징으로 니야조프의 투르크멘 민족의 종교적·사상적 지도서인 루흐나마(Ruhnama, the Holy Book of all Turkmen)를 반포하고 자신을 투르크멘바시(Turkmenbashi, 투르크의 지도자/아버지)로 지칭하기 시작했다.[155] 니야조프와 그의 이데올로그들은 투르크멘 국가의 조직 원리를 할크(Halk, 국민), 바탄(Watan, 조국), 투르크멘바시(아버지)로 삼아 국민과 조국은 일치하며 이는 니야조프 대통령 자신과 동일하다는 논리로 개인독재자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였다. 이는 물론 투르크멘 민족을 중심에 둔 배타적 성격의 민족주의를 강화하여 각 부족을 중심으로

---

154) 3선 연임 이후 현재까지 키르기즈스탄을 제외한 4개국은 내부적으로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나자르베예프, 카리모프 대통령은 대선에서 평균 90% 이상 득표를 하였다. 타지키스탄의 라흐몬 대통령은 내전 중에 치러진 1994년 11월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후, 1999년 9월 헌법 개정을 통해서 대통령 임기를 7년으로 연장하였다. 2003년 6월 또 한 번의 헌법 개정을 통해서 대통령 임기제한을 철폐하였다. 그는 2006년 11월 대선에서 3선에 성공하였다. 현재 부분적 민주화에 성공한 키르기즈스탄의 아카예프 전 대통령은 1991년 대선에 단독 출마하여 집권하였으며, 1995년에 재선에 성공하였다. 그는 2000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었으나, 1998년 헌법재판소는 초대대통령 임기가 1993년 신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그의 출마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아카예프 전 대통령은 2000년 10월에 3선에 성공하였다.

155) Polese and Horak, "A Tale of Two Presidents: Personality Cult and Symbolic Nation-Building in Turkmenistan," pp. 462~463.

형성된 강력한 지방 정치세력들의 약화와도 맞물려 있었다.

중앙 정치에서의 잠재적 경쟁자 제거 작업도 꾸준히 추진되었는데 그 정점에 이른 것이 바로 2002년 11월 25일 수도인 아슈하바트에서 일어났다고 알려진 니야조프 암살미수 사건이다. 이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는가 또는 조작되었는가의 여부는 아직도 논쟁거리이지만 이를 계기로 니야조프와 그의 후견주의 그룹(약 50명 정도로 추정)에 포함된 소수의 핵심 엘리트들은 잠재적인 경쟁 인물들과 그들의 후견주의 네트워크에 포함되었다고 사료되는 중간 간부 및 관료들을 대거 숙청하였다. 이는 잠재적 반정부 세력의 통제 정책이었다. 이 숙청으로 발생한 인적 자원의 부족은 니야조프 개인에 절대적 충성을 맹세한 군부 인사들로 채워졌고 이를 통해 군부를 자신의 후견주의 네트워크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니야조프 개인독재자의 국가 전권 장악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도 행해졌다.

니야조프는 강력한 보안/사회통제 기구이자 핵심 폭력(권력) 기관인 국가안보위원회와 국가안보부를 통해서 국회의원 50개 선거구에 후보자를 직접 선별·선출하였고 당연히 가장 중요한 기준은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였다. 물론 이와 더불어 권위주의의 핵심 체제 유지 기제인 보안기구를 통한 극도의 공포정치는 일상화되었다.[156]

다. 베르디무하메도프 집권 시기

소련의 붕괴와 동시에 1991년부터 2006년까지 집권하며 투르크메

156) 이와 관련해 다음 참조. Anceschi, *Turkmenistan's Foreign Policy*, pp. 124~138; Dilip Hiro, *Inside Central Asia: A Political and Cultural History of Uzbekistan, Turkmenistan, Kazakhstan, Kyrgyzstan, Tajikistan, Turkey, and Iran* (New York: Overlook Books, 2011), pp. 220~223.

니스탄 권위주의 체제를 수립·공고화한 니야조프는 2006년 12월 20일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헌법 및 법에 의한 지배가 미약하고 권력자 개인들에 의해 좌우되는 권위주의 체제의 가장 큰 특성은 권력 승계(succession process) 시기의 불안정성이다. 특히 개인독재 유형의 권위주의의 경우 최고 권력자 유고 시 급격히 체제 자체가 흔들리며 붕괴하는 특성을 보인다. 그러나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에는 이러한 권력 승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연구자들의 예상을 많이 빗나가는 것이었다. 그 승계자는 니야조프 시기에 꾸준히 그의 핵심 후견주의 그룹에 속하면서 성장해 온 당시 부총리 베르디무하메도프였다.

북한과 비유될 정도로 극도의 폐쇄성을 보이는 투르크메니스탄 권위주의 체제의 특성상 니야조프로부터 베르디무하메도프로의 권력 승계 과정에 대해 모든 사실들을 확인할 정도의 정확한 분석은 어렵다. 그렇지만 베르디무하메도프를 권력 승계자로 옹립한 소위 'December 21'(니야조프의 사망일)이라 불리는 핵심 엘리트 그룹들의 움직임과 그들에 의해 행해진 여러 정치적 행위들을 종합해보면 이 승계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비교적 정확히 알 수 있다.

그 시작은 바로 급서한 니야조프 자신의 개인독재체제의 특성에 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니야조프는 권위주의 유형 중 개인독재 유형에 가장 가까운 권위주의 체제를 구축했다. 그러나 그는 전형적인 개인독재 유형의 특징인 독재자의 가족 및 친척들을 고위직으로 기용하여 일종의 가족독재(family dictatorship)를 행하지 않았다. 원래 고아의 신분으로 입지전적으로 최고지도자의 자리에 올랐으며 자신의 부족인 아할테케(Ahalteke)에 대한 부채의식과 의존성이 거의 없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자신의 아들인 당시 39살의 무랏 니야조프(Murat Niyazov)도 경제적으로 후견주의 네트워크에 포함하여 막대한 부를 누리게 했

으나 공식적·비공식적으로 권력 계승자로 지명하지 않았으며 다른 가족 구성원과 유사하게 해외에서 생활하게 했다. 모든 권력이 한 사람 니야조프 자신에게만 집중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니야조프는 갑작스럽게 사망하였고 개인독재자의 아들 또는 가족 구성원이 권력 공백을 채울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외부의 관찰자들은 투르크메니스탄이 후계 지위 쟁탈로 인해서 정치적인 혼돈을 겪을 것이며 이러한 혼돈이 내전, 또는 국경을 넘어 인접국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확전될 가능성을 거론하였다. 심지어 카자흐스탄은 투르크메니스탄 내전이 발생하더라도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면서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혼돈은 일어나지 않았고 이는 전직 치과의사이며 보건부 장관 경력을 가지고 니야조프의 건강 상태를 관리하는 역할을 장기간 맡아왔던 베르디무하메도프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만들었다. 상당수의 관찰자들은 니야조프의 건강 악화를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의 죽음을 예상하고 핵심 권력 엘리트, 특히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경호실장인 아크미랏 레제포프(Akmyrat Rezhepov) 등의 지지를 확보하여 권력 승계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한다. 또한 레제포프는 니야조프의 후견주의 네트워크 관리와 군부 핵심 인물들과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관리자였다. 니야조프 사망 이후 지배 엘리트 집단은 베르디무하메도프와 레제포프 2인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니야조프 사망을 발표한 직후 베르디무하메도프를 옹립한 레제포프 등의 핵심 권력층은 헌법에 의해 대통령 유고 시 임시대통령 지위를 계승하도록 되어있는 국회의장인 오베크겔디 아타예프(Ovezgeldi Atayev)를 체포 및 구금하고 추후 친척의 부패 혐의로 징역을 선고한 직후 또 다른 잠재적 적대세력인 국방장관과 100여 명의 고위 관료들

을 체포 및 숙청하였다.

베르디무하메도프의 임시대통령 취임 2달 후인 2007년 2월 11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잠재적 경쟁자인 니야조프의 아들, 무랏 니야조프의 출마를 봉쇄하기 위해 '해외거주자의 대통령 선거 출마 금지' 조항을 헌법에 삽입하고 임시대통령의 대통령 본 선거 출마를 금지하는 헌법 조항을 삭제하는 등 전형적인 권위주의 체제의 임의적 헌법 개정 행태를 통해서 형식적인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였다. 선거권자 260만 명 중 99%가 투표하였고, 그 중 89.32%를 얻는 압도적인 득표였다. 물론 이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평가는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베르디무하메도프는 이 대선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허용하여 5명의 경쟁자가 입후보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주적 선거였음을 강변하지만, 실상은 모두 베르디무하메도프 네트워크에서 형식적인 역할을 한 후보자들이었으며 이와 별도로 여러 부정 선거의 양상도 관찰되었다.[157]

베르디무하메도프의 권력 승계 작업은 레제포프를 비롯한 핵심 엘리트들이 니야조프와는 달리 통제하고 협력할 수 있는 비교적 약한 대통령의 존재를 상정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니야조프와의 혈연관계가 없는 베르디무하메도프는 상대적으로 약한 또는 니야조프의 철저한 개인 독재를 완화할 지도자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158] 예상대로 베르디무하메도프는 집권 초기 정치적·경제적 개혁을 약속하고 니야조프의 극단적인 개인숭배와 비합리적인 교육, 의료 정책들을 폐지 또는 약화하면서 조금 더 열린 형태의 권위주의를 추구할 것을 천명하

157) Peyrouse, *Turkmenistan: Strategies of Power, Dilemmas of Development*, pp. 109~112.

158) 매우 안정적인 권력 승계 과정에 의문을 표시하며 베르디무하메도프가 니야조프의 숨겨진 아들로 유추하는 루머가 있었지만 둘의 나이차가 17살에 불과하여 가능성은 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고 부분적으로 실천하였다. 그러나 집권 안정기에 접어든 이후 베르디무하메도프는 자신의 대통령 승계를 가능하게 한 레제포프를 비롯한 국가보안기구와 핵심 경제기구들의 장들과 고위 관료들을 모두 숙청하였고 이들을 자신의 가족 및 친척, 그리고 출신지역의 부족인 아할테케의 인사들로 대체하였다.[159] 이는 니야조프 통치기와 과도기 기간 중 레제포프가 후견주의 네트워크로 관리했던 주요 군부 인사들의 숙청과 군부 권력의 약화를 의미하기도 하였다.

베르디무하메도프의 권력 공고화는 2008년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인민평의회를 폐지하고 국회의원 수를 65명에서 125명으로 확대하고 이들을 모두 대통령과 정부의 승인 후 입후보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는 의외의 정치 개혁으로 이어졌는데 2010년 베르디무하메도프는 투르크메니스탄에 다당제를 도입할 것을 선언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을 허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2012년 산업기업인당(The Party of Industrialist and Entrepreneurs)이 창당되었으나 정강정책까지 모두 형식적 여당인 투르크메니스탄 민주당과 거의 동일한 '우당'에 불과하였고, 시민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억압받는 등 모두 실현되지 않은 프로파간다였다. 새로운 개인독재자는 자신의 전임자 '투르크멘바시' 니야조프의 개인숭배를 점진적으로 폐기하였으며 자신을 아르카닥(Arkadag, 투르크멘의 보호자)으로, 또한 투르크메니스탄의 영웅으로 지칭하게끔 하고 개인숭배를 강화하였다.[160]

베르디무하메도프는 개인독재체제의 영구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

---

159) Slavomir Horak, "Changes in the Political Elite in Post-Soviet Turkmenistan," *China and Eurasia Forum Quarterly*, vol. 8, no. 3 (2010), pp. 27~46.

160) Polese and Horak, "A Tale of Two Presidents: Personality Cult and Symbolic Nation-Building in Turkmenistan," pp. 457~478.

는 임기 횟수 제한을 제거하는 형태의 헌법 개정을 2016년 말 의회에서 통과시킴으로써 종신대통령제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개정으로 그의 종신대통령의 지위를 확고히 하며 자신의 가족과 출신 부족 엘리트 중심의 권위주의체제를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권력 집중화는 '통일전선전술'과도 유사하게 집권 초기의 유화적 권력층 관리에 이어 공고화 과정에서 숙청을 단행, 자신에게 권력을 집중시킨 전임자 니야조프의 영구집권 시도와 매우 유사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점은 니야조프의 경우 1인 독재로 자신의 가족, 친척, 친구, 경제적 동업인, 더 나아가 출신 부족 및 씨족의 엘리트들과 권력을 공유하지 않았으나 베르디무하메도프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중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신가산제적 후견주의가 투르크메니스탄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니야조프가 예외적인 사례가 될 가능성이 많다.

결국 현재 투르크메니스탄의 권위주의 체제는 법과 제도에 기반하지 않으며 현재 절대 권력자인 대통령과 그 가족, 그리고 이들과 연계된 특정 엘리트 파벌과의 사적 이익, 비제도적, 비공식적 관계에 의해 형성된 후견주의 네트워크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는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일체화를 의미한다. 극단적 폐쇄경제를 추진했던 니야조프와 달리 베르디무하메도프는 시장경제 요소 도입과 대외 개방 정책의 점진적 추진으로 경제적인 개혁과 자원 수출의 다변화를 이루었고, 설립의도가 불분명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필요했던 자원국부펀드를 설립하면서 국민 경제 수준은 향상되었다.

그러나 베르디무하메도프는 자신의 가족과 친척들을 경제 요직에 임명하고 정치권력과 국영기업인 가스, 석유, 물류 산업 등을 모두 독점하는 경제적 권력 사유화를 진행하였다.[161] 이러한 정경권력 일체화가 공고화된 상황에서 2010년대 들어 석유와 가스 등의 원자재

(commodity price) 가격 하락 상황에서 경제성장률의 급락 등으로 경제적 위기 상황에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 상황 악화는 국가의 국민 복지 혜택의 폐지로 이어지고 있으며 당연히 피해는 지배엘리트가 아닌 국민들에게로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다.[162]

3. 투르크메니스탄 개인-당 독재체제 유지 원인 분석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북한과 유사하지만 다른 권위주의 체제인 중동과 근방 지역의 시리아, 이집트,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의 개인-일당 혼합 권위주의 체제의 지속 요인 및 체제 유지 전략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 유형의 권위주의 체제의 엘리트가 대규모의 시민 저항을 방지하는 전략과 이의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하는가, 나아가 권위주의 독재 체제 붕괴의 구조적 요인과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미 앞 장에서 분석한 시리아와 이집트는 투르크메니스탄과 더불어 장기집권에 성공한 종신대통령제 국가로 분류되었었다.

그러나 최근 '재스민 혁명'이라고 일컫는 최근의 중동사태 이후 그 권위주의 지속성은 유지의 위기, 즉 체제 붕괴, 전이(regime transition), 복귀, 그리고 내전 등의 각기 다른 경로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권위주의 체제의 붕괴가 가장 잘 일어나는 권력 이양(succession process)의 과정에서도 이집트는 부자세습 실패, 시리아는 부자세습 성공, 투르크메니스탄은 2인자로 대체 성공의 다른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대규모

161) Horak, "The Elite in Post-Soviet and Post-Niyazow Turkmenistan," p. 380; Bradley Jardine, "Offshore Turkmenistan: 'Sultanism'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 Diplomat*, September 21, 2015, 〈http://thediplomat.com/2105/09/offshore-turkmenistan-sultanism-in-the-construction-indusdry/〉. (검색일: 2016.9.29.) 참조.

162) Bradley Jardine, *Ibid.*

시민저항 시 권위주의 집권 엘리트들은 이집트의 경우 분열하였고, 시리아의 경우는 단합하는 엘리트 통치 연합의 대조적 대응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대규모 시민저항 및 내전을 유발하였다. 그러나 북한과 가장 유사한 사례로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이러한 대규모 시민저항 자체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투르크메니스탄 권위주의 체제 유지의 구조적 원인들을 분석한다.

가. Geddes 권위주의 유형: 개인-일당독재 권위주의체제의 투르크메니스탄

현재 비교권위주의 연구자들 사이에서 권위주의 체제의 특징, 특히 생존과 붕괴를 분석하는 이론은 2000년대 이후 권위주의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바바라 게디스(Barbara Geddes)의 권위주의 정권에 관한 세 가지 분류법(개인-personalist, 일당-one party, 군부-military)과 그 유형에 따라 나타나는 특성은 매우 뛰어난 이론적 간결성을 보여준다. 특히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권위주의 정권 유형이 혼합적으로 나타나는 하이브리드 정권이라는 유형도 고려하여 개인-일당, 개인-군부, 일당-군부, 그리고 '삼중위협(triple threat)'으로 불리는 개인-일당-군부 권위주의체제는 여러 복합적인 권위주의 체제 제도와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163] 물론 어떤 비교정치의 이론들과 마찬가지로 유형화로 인해서 제외되는 많은 변수(variable)들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지

163) 가장 최근의 이론적 접근법은 이러한 3가지 권위주의 유형이 대부분의 권위주의 정권에서 부분적으로 모두 나타나고 있어 유형을 하나로 정의하는 방법(nominal categorization)과 동시에 세 유형의 특성이 포함된 '정도(degree)'를 3차원적으로 구성하여 분류하는(continuous categorization)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만 여전히 가장 유용한 이론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세 가지 유형 중에 가장 안정적인 권위주의 체제는 세 가지 유형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는 '개인-일당-군부'의 삼중위협 체제로 평균 43.5년을 유지하며 일당 체제는 35년 정도, 개인 체제는 18년, 군부 체제는 10년 정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164] 이 유형 분류법에 의하면 투르크메니스탄의 권위주의정권은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1992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개인독재'와 '일당독재'가 혼합된 하이브리드 유형으로 분류된다.[165]

이 유형의 경우 게디스의 통계 분석에 따르면 대략 25년 정도의 체제 지속성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권위주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166] 이 개인-일당 복합 권위주의 유형의 특징은 그 지배연합이 개인 독재자 1인 또는 그의 가족(family)과 그 후견주의 집단(clientele group)으로 분류된 세 유형 중 가장 작은 관계로 개인독재자의 운명(자연사, 암살, 감금 등)에 따라 권력 승계 시기에 그 권위주의 정권과 체제 자체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불안정성을 일당 독재라는 가장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가진 체제로 보완하는 것이다. 물론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여기에 첫 번째 개인독재자인 니야조프에 의하여 군부(military) 요소가 가미되기도 하여 게디스가 '삼중위협(triple threat)'으로 지칭한 가장 지속성이 높은 권위주의체제도 경험하였다.

그러나 두 번째 개인독재자인 베르디무하메도프의 경우 '개인-일당 혼합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종합해서 2명의 권위주의 최고지도자 집권기인 지난 25년간의 투르크메니스탄

---

164) Geddes, *Paradigms and Sand Castles,* pp. 76~78.

165) Barbara Geddes, Joseph Wright, and Erica Frantz, "Autocratic Breakdown and Regime Transitions: A New Data Set," *Perspectives on Politics*, vol. 12, no. 2 (2014), pp. 313~331.

166) Geddes, *Paradigms and Sand Castles*, pp. 76~78.

권위주의 체제는 개인독재의 특성이 가장 강하며 집권당 및 유사기관이 그 특징을 보완하는 형태의 개인-일당 권위주의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권위주의 체제가 지속하기 위해서는 개인독재자의 철저한 집권력이 가장 중요하다. 물론 이것은 개인독재자의 건강과 수명을 전제로 한다. 법과 제도에 따라 비교적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권력 승계가 이루어지는 자유민주주의와는 달리 이와 같은 개인독재 유형 권위주의의 경우 독재자가 후계 구도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가 드물고, 이로 인해서 유고 시 핵심 엘리트들 간의 후계 경쟁이 벌어진다.

이러한 후계 경쟁은 매우 극단적이기 쉬우며 그 이유는 후계 경쟁에서의 승자 및 그의 엘리트 그룹이 패자와 그 협력자들을 숙청하면서 기존의 관직 및 재산을 몰수하며, 많은 경우에 그들과 그들의 가족, 친척, 사업적 협력자들을 죽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모 아니면 도'의 정치적 게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소련의 스탈린, 중국의 마오쩌둥, 그리고 이 투르크메니스탄의 니야조프처럼 현직에 있는 개인독재 유형 성격의 권위주의 지도자는 자신의 후계자를 상정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며 이로 인해서 이들의 유고 시 위의 권력 투쟁은 매우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이 문제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권위주의의 또 다른 유형인 '일당독재'의 요소를 개인독재 유형에 결합하는 것이다. 개인독재 유형이 시작되는 가장 전형적인 루트가 바로 일당 독재 유형의 최고지도자 또는 군부쿠데타 이후의 최고지도자가 핵심 지지 엘리트들과 권력을 공유하는 최초의 집단지도체제에서 권위주의 체제가 안정화·공고화되는 과정에서 경쟁 엘리트들을 제거하며 자신의 개인 권력 강화, 즉 권력의 사유화를 극단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독재자는 자신의 우상 숭배(personality cult)

를 추구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통치정당성(legitimacy)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활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 독재 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대 정치의 핵심 조직인 '정당'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투르크메니스탄도 그 예외가 아니다. 소위 투르크메니스탄 민주당이라는 전 투르크메니스탄 공산당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이를 통해서 각종 선거 및 헌법 개정 등을 추진하였고 아래에서 분석할 신가산제적 후견주의 네트워크를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167]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르크메니스탄의 권력 승계 과정은 개인독재 유형의 권위주의의 약점을 극복해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니야조프의 영구집권 의도에 따른 후계자 미지정 정책에 대응하여 그의 후견주의 네트워크의 핵심 그룹인 국가보안기구의 수장이 레제포프와 그 지지자와 그의 건강을 모니터하면서 상당 기간을 잠재적 경쟁자가 아닌 충성스러운 지지자로 인정받아 부총리에까지 오르며 행정 조직을 관장하며 장기간 권력의 핵심 네트워크에 속했던 베르디무하메도프와 그의 지지자들이 결합한 것이 결정적인 변수였다. 이 두 세력의 결합은 신속하게 국가보안기구를 통해 후계 경쟁 세력의 숙청과 헌법 개정이라는 작업을 여당이 장악한 국회와 인민위원회를 통해서 신속하게 진행하였고 형식적인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베르디무하메도프를 공식적인 권력 승계자로 추대하면서 급속하게 권위주의 체제 안정을 달성하였다.

물론 이렇게 핵심 엘리트 그룹들의 연합으로 유지된 2006년~2007년의 권위주의 체제의 지속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니야조프가 만들고 공고화한 강력한 개인독재 유형의 권위주의 제도에 따라서 2007년 중반 이후 일당독재형 집단지도체제보다 베르디무하메도프의 개인독재형 특성이 지배적이 되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

167) Anceschi, *Turkmenistan's Foreign Policy*, p. 38.

베르디무하메도프는 니야조프와는 유사하게 강력한 개인숭배를 통한 통치정당성 강화를 추구하고 있고 올해 말 자신의 영구집권을 완성할 것으로 보인다. 니야조프처럼 급서를 하지 않는다면 그의 나이가 여전히 50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상당 기간 개인독재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Linz 권위주의 유형: 술탄이즘과 신가산제적 후견주의 네트워크

또한 투르크메니스탄은 막스 베버(Max Weber)가 정의하고[168] 린쯔(Juan Linz)와 스테판(Alfred Stepan)이 구체화시킨[169] 술탄이즘적(sultanism) 권위주의체제로 분류할 수 있다. 술탄이즘은 극단적인 개인독재자가 가능한 모든 권력 수단을 사용하여 개인, 집단, 제도 등을 자의적으로 조작하여 모든 통치 행위를 좌우하는 권위주의 체제로서 이슬람의 종교적 지도자인 칼리프와 달리 세속적인 군주인 술탄 중심의 정치체제에서 기원하였지만 현대 비교정치에서는 중동과 이슬람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지역의 유사한 군주제적 권위주의를 분석하는 개념이자 이론틀로 사용된다.[170] 린쯔와 스테판은 김일성 치하의 북한을 술탄이즘적 권위주의로 분석하기도 하였고 이는 김정일과 김정은 체제에도 적용될 수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니야조프와 베르디무하메도프 두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자신을 권력의 정점으로 한 수직적인 권위주의적 권력

168) 이와 관련해 다음 참조. Weber, *Economy and Society*, pp. 1006~1069.

169) 이와 관련해 다음 참조. Juan Linz and Alfred Stepan, *Modern Nondemocratic Regimes* in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6), pp. 38~54.

170) Chehabi and Linz, eds., *Sultanistic Regimes*, p. 7.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할 때 투르크메니스탄 권위주의체제는 술탄이즘적 전제 군주적 요소가 가장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우상화 정책에 의해 대통령의 신격화, 행정부 수장의 지위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를 모두 개인의 통제하에 두는 술탄 군주적 위상을 유지하면서 수직적 신가산제 후견주의(neo-patriomonial clientelism)를 기반으로 한 권위주의 체제를 형성하였다. 또한 형식적이지만 유용하게 기능하고 있는 대통령 및 의회 선거를 압도적 또는 독점적인 집권당(투르크메니스탄 민주당)과 친여당 무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유지하는 선거권위주의(electoral authoritarian regime)의 특성도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171]

이러한 술탄이즘적 권위주의 체제의 특성은 니야조프 대통령 시기에 더 강하게 나타났다. 술탄이즘은 신가산제의 극단적인 유형의 하나로 이해된다. 신가산제의 특성은 국가와 같은 정치조직에서 '가장/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지닌 최고지도자와 그 가족을 중심으로 후견주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중앙 및 지방의 엘리트들을 관리하고 이들이 다시 자신들의 후견주의 네트워크를 형성·관리하며 피라미드형 정치경제 상호의존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가산제의 특성에서 술탄이즘은 위의 피라미드형 후견주의 네트워크가 아닌 개인 독재자가 직접 중앙과 지방의 모든 인사 및 정책적 결정을 행하고 이 네트워크의 구성원들과 1:1의 후견인-수혜자 관계를 형성한다.

니야조프 대통령은 중앙의 고위 관료들과 지방 주지사 및 고위 관료들을 수시로 교체하고 숙청하며 다시 복권시키기도 하는 전략으로 신가산제적 후견주의를 통한 소위 제2인자들과 잠재적 경쟁 세력들의

171) 이와 관련하여 다음 참조. Andreas Schedler, *The Politics of Uncertainty: Sustaining and Subverting Electoral Authoritarian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pp. 77~111.

성장을 근본적으로 차단했다. 또한 수도인 아슈하바트에 모든 경제적인 자원을 집중시키며 지방의 경제가 발전할 수 없게 만들었고 천연가스와 석유에서 발생한 모든 경제적인 이익을 니야조프 자신에게 집중시키는 전략을 추구하여 잠재적 경쟁 세력의 경제적 기반조차 형성되지 못하도록 하였다.[172] 이러한 경제적 체제 유지 전략이 가능한 것은 천연가스 자원 수출을 독점하여 국가와 권위주의 체제 유지에 필요한 경제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지방 엘리트 세력과 국민들의 경제적 동의나 협력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도 기인한다.

이러한 개인독재 중심의 권위주의 체제 유지 전략을 베르디무하메도프 또한 계승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베르디무하메도프는 니야조프와 달리 자신의 가족과 친척들을 대거 고위직에 임명하고 국가보안기구 및 핵심 경제부처를 독점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출신 지역 부족인 아할테케 출신 인물들을 지속적으로 중앙 엘리트 그룹에 편입시키면서 심지어 '아할 민족주의(Ahal Nationalism)'마저 추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173] 동시에 동일 지방 출신의 엘리트를 지방 정부의 수장 또는 고위직에 임명하지 않았던 니야조프와는 달리 해당 지역에서 성장한 엘리트들을 고위직에 임명하여 비교적 장기간 지위를 유지하게 하는 특성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중앙아시아에서 전형적으로 관찰되는 신가산제적 권위주의로 투르크메니스탄도 수렴하는 것이라는 분석을 낳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러한 변화는 극단적인 니야조프의 사례와 비교할 때 유효한 것이며 술탄이즘적인 개인 독재의 특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

172) 작은 규모의 국가에서 한 명의 독재자가 통제가 가능한 상황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중국, 러시아, 멕시코와 같은 큰 규모의 국가에서는 불가능하다. 북한의 경우는 그 중간 정도의 규모로 볼 수 있어 판단이 어렵다.

173) Horak, "The Elite in Post-Soviet and Post-Niyazow Turkmenistan: Does Political Culture Form a Leader?" pp. 380~381.

다. 국가보안기구 활용

위에서 분석한 개인-일당독재 유형의 권위주의 체제 및 술탄이즘적 신가산제 후원주의 네트워크와 더불어 투르크메니스탄 권위주의 체제가 장기간 유지되는 제도적 요소는 바로 폭력의 독점과 초법적·임의적 활용이다. 이러한 제도적 특징은 모든 권위주의 체제에서 관찰되지만 그 독점과 활용의 정도(degree) 및 범위(range)는 매우 다양하다. 소위 연성 권위주의(soft authoritarian regime)로 분류되는 체제하에서는 엘리트와 일반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와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되며 체제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상황을 제외하고 이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폭력적 억압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경성 권위주의(hard authoritarian regime) 또는 닫힌 권위주의 체제(closed authoritarian regime)의 경우 극단적인 폭력적 억압을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전자의 경우 권위주의 체제 유지를 위해 폭력적 억압 이외의 다양한 이해 조정 제도 및 기구를 활용하는데 반해 후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러한 권위주의 체제의 폭력적 억압을 전담하는 국가보안기구들은 최고의 권력기관이자 제도가 되며 이에 종사하는 엘리트들은 독재 권력자의 핵심 후견주의 네트워크에 속하게 된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는 닫힌 권위주의 체제로서 폭력적 억압을 전방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폭력적 억압은 기본적으로 엘리트 계층과 일반 시민에 대한 '경찰국가(police state)'적인 감시와 통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니야조프와 베르디무하메도프는 공히 자신의 잠재적 경쟁 세력들뿐만 아니라 핵심 후견주의 네트워크에 속한 엘리트들의 동태를 매우 면밀히 감시하고 통제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핵심 엘리트의 숙청 및 재산 몰수를 행했으며 이는 국가보안

부(Ministry of National Security), 대통령경호실, 그리고 이들과 깊숙이 연관된 비밀경찰(secret police) 조직들을 통해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 이러한 엘리트 통제 및 억압 구조 속에서 니야조프 집권 초기 반정부 세력 또는 잠재적 경쟁 세력들의 핵심 엘리트 인사들은 추방당하거나 망명했으며, 의미있는 야당이 출현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단되었다. 이로 인해서 대통령 1인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엘리트에 대한 감시 체제와 더불어 일반 시민들에 대한 폭력적 감시와 억압 또한 세계 최악의 수준이다. 세계의 인권 수준을 측정하고 인권 보호를 추구하는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정치적 자유의 정도를 측정하고 발표하는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의 평가에서 매년 투르크메니스탄은 북한과 더불어 최악의 인권 침해국이자 정치적 억압국으로 지정된다.[174] 투르크메니스탄의 시민들은 위에서 언급한 국가보안기구의 감시를 받고 있으며 국가 자체의 고립 정책으로 인해서 국가 외부로부터의 정보를 접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외국인들의 투르크메니스탄 방문도 최소화하고 입국 시 외국 언론발간물과 도서를 압수하며 국내 주요 언론도 모두 정부가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폭력적 억압과 장기간 지속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투르크메니스탄 시민들의 경우 아래로부터의 민중봉기를 실행할 자원과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174) Nichol, "Turkmenistan: Recent Developments and U.S. Interests," pp. 4~7.

V. 결론: 사례연구와 김정은 정권의 체제 지속성에 대한 시사점

저자 일동

본 장에서는 결론에 갈음하여 이상의 사례연구를 토대로 북한 김정은 체제 지속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본다. 재스민 혁명 이후 체제교체(이집트), 불안정한 위기 속 체제지속(시리아), 안정적 체제유지(투르크메니스탄)의 사례에서 보이는 체제유지조직의 견고성과 통치연합의 구성 등과 같은 구조적 변인들과 그 과정을 추적하였고, 이를 토대로 북한체제의 안정성 및 지속성, 그리고 변동 요인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현재 북한은 외형상 투르크메니스탄 사례에서와 같은 체제 안정성을 보이나, 통치연합의 축소, 경제적 파탄 및 국제적 고립 등으로 시리아 사례와 같은 불안정한 사태로 발전될 개연성을 담지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공포 숙청정치의 여파로 외형상 안정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폭압으로 통치(Rule)하나 실질적·정상적으로 정부행위(Govern)를 하는 능력 면에서는 이미 균열을 보이는 모습이다. 즉, 김정은 등장 이후 계속되는 군부의 숙청과 제약은 이집트 사례에서 발견되는 군부의 정권저항으로 연결될 소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 사례의 개별성과 독특한 교훈의 효과를 살리기 위해 사례별로 기술한다. 먼저 현재의 북한을 진단하는데 유용한 시리아 및 투르크메니스탄 사례부터 살펴본 후, 북한체제 안정성을 위협하는 하나의 가상적 요소로서 군부의 반발을 시사해 주는 이집트 사례의 교훈을 논의한다.

[시리아 사례의 북한과의 비교를 통한 시사점] 비교정치학적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은 권위주의 체제의 틀을 넘어 전체주의 체제로 분류되며, 지도자 개인에 대한 우상화가 유사종교의 성격을 띨 정도로 격심하다는 점에서 시리아 아사드 정권과의 단순 비교에 한계가 존재한다. 또 양 체제 모두 세습 정권이지만, 선거와 의회 등 민주주의적 제도를 갖추고 있고 국민 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는 시리아와, 그렇지

못한 북한은 분명히 차별된다. 종파적 그리고 지역적으로 균열 양상을 내재한 시리아의 상황도 단일민족을 기반으로 한 북한과는 달라서, 정권이 균열을 정권 유지에 이용하는 데에서도 양자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두 체제가 모두 전체주의가 필연적으로 권위주의 체제적 속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회주의와 민족주의를 혼합한 이데올로기를 국가와 정권의 정당성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는 점, 또 일당 독재이며 주민들에 대한 과도한 통제와 공포정치를 수십년 간 지속해 왔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아사드 체제와 김정은 체제의 비교를 통해 우리의 통일 대북 전략에 함의와 시사점 도출을 시도해 보는 작업은 유의미할 것이다.

첫째, 국민들의 의식 속에 국가와 정권이 동일시되는 현상은 시리아와 북한이 유사하다. 북한은 국가의 시작부터 정권과 국가가 동일했으며 이에 대한 주민 차원의 혹은 엘리트 차원의 어떠한 저항이나 도전도 부재했다. 이는 김정은 체제의 지속성을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다. 시리아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내전이 심화되는 가운데서도 소수를 제외한 대다수 지배 엘리트와 군 그리고 일반 주민들의 아사드 체제에 대한 충성심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정권과 국가의 동일화가 주원인이었다. 바샤르 대통령은 국민들의 이러한 인식 기반하에서 아사드 정권의 붕괴가 시리아 국가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으로 선동하면서 정권 연장에 이용하고 있으며, 김정은 정권 역시 유사한 레토릭을 구사한다.

둘째, 권위주의 체제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세 가지 요소, 즉 일인 지배와 일당 지배 그리고 군의 지배는 아사드 정권과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김씨 체제를 유지하게 해주는 핵심 요소들이다. 북한의 경우 상기 3개 요소가 시리아의 사례보다 더욱 장기적이고 집요하며 또 완벽

하게 구현된다. 이는 김정은의 신변에 이상이 발생하여 가령 일인 지배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지라도 당과 군의 지배가 확고하다면 체제 붕괴로 연결되지 않거나, 혹은 지배 엘리트들이 다른 개인 지배자를 세워 체제 지속성을 유지할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통일을 위한 우리의 대북 전략에서 북한의 당과 군 엘리트에 대한 접근이 강화되어야 하며, 아울러 정권과 주민들을 분리시켜 대응하는 방안도 강구될 필요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발언한바, 투트랙 전략, 즉 북한 주민과 엘리트를 김정은 정권과 분리하여 대응하고 설득하는 정책은 김정은 정권의 취약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유효하다.

셋째, 권위주의 체제의 국내적 폭압성과는 무관하게 이를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지원하는 후견 국가의 존재는 권위주의 정권의 지속성에 분명 유효하게 작용한다.

재스민 혁명으로 붕괴된 여타 중동 권위주의 정권과는 달리, 아사드 정권이 내전 상황을 겪으면서도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데에는 이란과 러시아의 군사 및 정신적 지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유사시, 김정은 정권에게 있어서 중국, 그리고 그 존재감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러시아가 바로 후원 국가로 역할할 개연성은 적지 않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통일 외교 차원에서 우군으로 만드는 작업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넷째, 전 세계에서 북한과 시리아 오직 두 나라만이 유엔 인권이사회 조사위원회(UN COI)의 조사 대상이다. 동 위원회는 유엔 차원에서는 최초로 1년간의 북한 인권 실태 조사를 실시했으며 2014년 2월 17일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는 지속성과 목적, 범위 면에서 시리아의 그것을 훨씬 능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리아에 대해서는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이나

EU 이사회 규정, 유엔 안보리 결의가 있었던 데 반해,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2014년 이전까지 그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는 북한이 갖고 있는 폐쇄성으로 인해 구체적인 정보와 현실이 대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때문이기도 하지만, 북한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그만큼 크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미국과 러시아, EU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의 관심은 북한보다 중동 지역에 집중돼 있다.[175] 2016년 9월, 국내에서 북한 인권법이 발효되고 유엔에서도 북한의 인권 문제만을 다루는 독립 전문가단을 발족시키는 등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제고되고 있음은 늦은 감이 있지만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다.

끝으로, 시리아는 쿠바와 더불어 한국과는 수교 관계가 없는 북한의 단독 수교국이다. 2013년 북한은 아사드 정권에 무기를 수출하려 시도하다가 적발된 바 있으며 대량살상무기나 화학무기 개발에서 상호 협력 및 연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시리아는 유엔 차원의 북한 인권 결의안에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해오고 있고, 최근에는 시리아 내전에 북한의 2개 부대가 참전하여 아사드 정권의 옹위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외신 보도도 있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시리아 난민 사태는 북한의 탈북자 현상과 유사성을 갖고 있지만, 한반도 유사시 북한 난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더욱 주시해야 하는 사안이다. 국제전으로 확대되는 시리아 내전의 전개 과정이 한반도의 통일 과정에 주는 함의 역시 적지 않다. 시리아는 우리의 통일을

---

175) 장지향·Peter Lee, "알려지지 않은 참상인가 고의적인 무관심인가? 북한과 시리아 인권침해 실태의 비교분석,"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14.07.17.), 〈http://asaninst.org/contents/unknown-horror-or-deliberate-indifference-a-comparative-analysis-of-human-rights-violations-in-north-korea-and-syria/〉. (검색일: 2016.9.1.).

위해 주목해야 할 국가다.

[투르크메니스탄 권위주의 체제 지속성 분석: 북한에의 함의] 투르크메니스탄은 개인-일당 혼합 권위주의 체제로서 술탄이즘과 신가산제의 후견주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가보안기구의 압도적인 폭력적 억압을 활용하여 1992년 이래 현재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국내 정치를 유지해 왔다.

1992년 소련으로부터의 독립 이후 첫 번째 개인독재자인 니야조프가 이러한 체제를 형성 및 공고화했고, 2006년 예상치 못한 그의 사망으로 권력 승계 경쟁으로 인한 권력 투쟁의 예상에도 불구하고 베르디무하메도프가 권위주의 체제의 다양한 초법적·폭력적 수단을 동원하여 그 체제를 유지, 강화해 왔다. 이러한 투르크메니스탄 권위주의 체제의 생존 전략은 현재 이와 유사한 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는 북한의 김씨 일가 권위주의 정권의 생존 전략에도 상당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개인-일당 독재체제의 생존 방식〉 게디스의 분류기준에 따르면 북한은 투르크메니스탄과 유사한 개인-일당 혼합 권위주의 체제이다. 물론 여러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북한이 투르크메니스탄보다 약 40년 이상 오래 지속된 권위주의 체제로서 복수의 체제 위기를 극복하고 자체적인 생존 전략을 고안해 왔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 북한 권위주의 정권의 생존 전략이 매우 예외적이며 투르크메니스탄과 상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 제도적 기반은 개인독재와 일당독재의 혼합체제이고 여기에 군부독재의 요소를 가미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체제의 권력이양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권력 승계를 통해서 개인독재 권위주의 체제를 3대, 60년 이상을 유지해 온 북한 김씨 일가

체제는 니야조프에서 베르디무하메도프로의 권력 승계 체제와 매우 다른 시나리오로 전개되었다.[176]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투르크메니스탄의 니야조프와 달리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은 자신의 아들을 후계자로 지정하고 키움으로써 자신의 유고 시 권력 투쟁이 격화되어 권위주의 체제 자체가 붕괴되는 것을 막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유형의 권력이양은 개인 독재 권위주의에서 종종 나타나지만 3대에 걸쳐 군주제적 특성까지 지니게 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투르크메니스탄의 사례를 볼 때 반드시 권력의 정점에 있는 독재자가 자신의 아들 또는 딸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외의 엘리트 집단에서 자신의 후계자를 지정·육성하거나 아예 지정하지 않더라도 체제 자체를 유지할 다른 루트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2년 김정일 사망 이후 권력을 승계하여 지난 4년간 투르크메니스탄의 베르디무하메도프의 잠재 권력 엘리트 경쟁 세력 제거와 유사한 전략을 통해 개인독재 권위주의 체제를 공고화해 온 북한의 김정은이 아직 30대 초반임을 감안할 때 극단적인 경우, 즉 쿠데타 또는 암살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권력 승계의 불안정성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

그러므로 투르크메니스탄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의 개인-일당 독재 체제의 경우 독재자 개인의 건강이상 여부에 더 큰 무게가 실리며 만약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한다면 김정은의 후계자가 반드시 김씨 일가 중 하나(김정남, 김정철, 김여정 등)일 필요는 없다는 의미가 된다.[177] 이미 자신의 권력 공고화 과정 중에 권력이양 시기에 자신의

---

176) 투르크메니스탄과 달리 북한은 매우 제한적인 의미에서의 선거도 부재하여 독재자 자신, 그리고 권력 승계자의 통치정당성을 확보할 기제가 지난 3대 세습과 유사하게 '백두산 혈통'과 같은 전근대적 군주제적 정당성(traditional legitimacy) 외에 부재하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177) 김정은의 자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어린 관계로 후계자 권력 투쟁에 직접적으

가장 핵심적인 후원자 역할을 했으나 집권 이후 바로 강력한 잠재 경쟁 세력의 수장이 되어버린 고모부 장성택을 숙청한 이상, 친척 중에 급속도로 권력 승계의 가능성을 높일 인물은 드물다. 이러한 정치적 환경 아래서 기존의 김일성 일가의 직계 가족들이 매우 한정적임을 감안할 때, 극단적인 숙청과 억압 구조 속에서도 강력한 입지를 유지하며 생존하고 있는 '빨치산 그룹'과 같은 핵심 권력 엘리트 그룹과 그 가족들의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178]

가정이지만, 북한 내부 엘리트의 우발적 충돌 등으로 인해 김정은 이후의 권력 승계 과정이 발생한다면 급변 사태의 유무와 상관없이 북한의 개인-일당 독재 권위주의 체제는 유지될 가능성이 많다.[179] 이러한 정치적 시나리오는 투르크메니스탄의 니야조프에서 베르디무하메도프로의 권력승계에서도 잘 나타난다. 물론 김정은이 니야조프와 같은 극단적인 개인 독재의 루트를 선택할지, 아니면 베르디무하메도프와 같은 비교적 개인 독재와 다른 제도적 요소를 결합하는 루트를 택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180] 어떠한 루트를 택하더라도 우리는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김씨 일가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집권 엘리트 그룹들의 승계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술탄이즘적 신가산제 네트워크의 강화〉 투르크메니스탄의 술탄이즘적 신가산제 후견주의 체제는 북한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된다. 김정은 개인으로의 권력 집중과 독점의 정도는 린쯔가 김일성 체제를 술탄

로 관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물론 이 아이를 내세워 후견인의 지위로 권력 승계를 추구할 수는 있다.

178) 중장기적으로 신흥 시장 세력인 '돈주'의 성장과 이 신흥 경제 엘리트들과 중앙과 지방의 정치엘리트의 결탁이라는 변수도 생각할 수 있다. 경제적인 변수가 권위주의 정권의 파벌 갈등에 핵심임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179) 물론 이것은 국내적 변수만을 고려한 것이며 국제적인 변수가 개입된다면 다른 형태의 권력승계, 체제전이 등을 상정할 수 있다.

180) 현재로는 전자의 시나리오로 전개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즘으로 분류했을 때보다 더 강한 것으로 파악된다. 김정일 역시 술탄이즘적 특성을 보였지만 그 권력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범위의 김씨 일가 구성원과 빨치산 가문 구성원들을 후원주의 네트워크에 포함시키며 이들을 통해서 간접적인 중앙 및 지방 엘리트 통제를 해온 것으로 파악된다. 즉, 김일성과 김정일 시기를 거치면서 북한이 신가산제적인 정치경제적 제도와 엘리트 통제를 실시해온 것이다.

다시 말해 제3대 세습 권력자인 김정은의 경우 김일성과 김정일보다 이러한 신가산제적인 정치경제 체제를 극단적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보이며 술탄이즘적인 성격 또한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니야조프가 보였던 것처럼 극단적인 개인 독재를 통해 모든 국가의 인사와 정책을 자신이 결정하고 가산제적 후견주의를 중앙과 지방 모두에서 김정은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정도인지는 아직 불명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성은 대체로 설정되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술탄이즘적 신가산제 후견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끊임없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경제적인 자원의 독점적 점유와 분배 구조 독점이 필수적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세계 제4위의 천연가스 자원에 기반하여 니야조프와 베르디무하메도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김정은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경제적 자원의 확보가 훨씬 더 어려운 환경이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친 권위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경제적 자원 확보는 각종 불법적인 수단에 상당히 의지해 왔고, 이에 더하여 김정일과 김정은 집권기에는 각종 국제 원조와 지하자원(석탄, 철광석 등)과 해외 파견 노동력으로 그 부족분을 메우는 구조를 갖고 있다.[181] 핵개발을 통해서 이 신가산제적 체제를 유지할 경제적 자원을

[181] 해외 자본과 기술이 필수적인 희토류 등의 개발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의미하며

확보하려는 정책은 현재까지 실패로 판명되었기도 하다.

그렇다면 김정은 정권의 경우 지속적으로 국외에서의 불법적인 수단들을 활용하며 매우 열악한 국내 경제에서 '착취' 구조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이는 현재 북한 경제의 부분적 자본주의 시장화의 증거로 제시되고 있는 수백 개의 장마당과 이를 기반으로 성장한 돈주 자본가 계층, 그리고 각종 이권 사업을 통해서 경제적 자원을 축적하는 권력기관의 엘리트들에 김정은 체제가 주목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역설적으로 투르크메니스탄과 달리 북한의 술탄이즘과 신가산제 체제는 궁극적으로 중앙과 지방의 엘리트들에게 어느 정도의 협력과 동의를 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이와 연관하여 김정은 체제는 술탄이즘적 특성인 개인 우상숭배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밖에 없다. 투르크메니스탄의 베르디무하메도프가 전임자인 니야조프의 개인숭배를 점진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대체한 것과 유사하게 김정은도 개인 우상숭배를 통치정당성의 근원으로 삼으려는 전략을 취해 왔다.[182]

다만 다른 점은 베르디무하메도프가 니야조프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니야조프와 차별화 전략을 취하고 있음에 비해 김정은은 할아버지인 김일성과 아버지인 김정일의 개인숭배로 형성된 술탄이즘적 전통적 통치정당성을 활용하여 자신의 부족한 카리스마를 보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결국 김정은은 자신이 사용한 '김일성 민족'이라는 프레임을 갖고 김정은 자신에 멈추지 않고 김씨 일가 전체의 우상 숭배(family cult)를 활용하고 있다. 이것은 술탄이즘을 넘어 군주제적 정치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거의 고려치 않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 니야조프 초기의 폐쇄 경제에 따른 천연가스 자원 개발 좌절과 유사한 것이다.

182) Polese and Horak, "A Tale of Two Presidents," pp. 457~478.

〈국가보안기구를 통한 폭력적 억압〉 투르크메니스탄의 국가보안기구를 통한 폭력적 억압은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이는 북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양국의 폭력적 억압 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비교적 공신력 있는 인권 및 정치자유 관련 NGO들은 이 두 국가의 권위주의 체제를 비슷한 정도의 최악의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폭력적 억압 제도와 기구들은 어떤 권위주의 체제에서도 가장 은밀한 부분으로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것이 극단적으로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체제의 독재자는 공히 국가보안기구를 강화하고 엘리트와 일반 시민 모두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반체제 세력의 잠재적 존재는 충분히 있지만 이들의 수직적·수평적 연합을 통한 세력화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집트 사례와 북한군부] 이집트 무바라크 독재정권의 붕괴는 경제파탄 및 폭압정치에 대한 민중봉기, 저항세력의 조직화 및 전략적 연대, 국제사회의 민주화 압박과 재스민 혁명의 눈 굴리기 효과(Snowballing Effects) 등 체제 외적 요인들의 결합으로 초래된 체제위기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무바라크 정권의 최종 붕괴는 무바라크 정권 중 권력 및 이권 배분에서 소외된 군부의 방관으로 봉인된다. 체제 수호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에서 이탈한 이집트 군의 선택은 사다트 및 무바라크 대통령 통치기 중 진행된 혼합정체로의 체제 진화 전략 구사와 군부 견제 속에 배태된 정권과의 거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군의 정치 개입 감소 및 쿠데타 방지를 위해 추진된 튀니지 해법은 민중봉기의 광풍 속에 정권 붕괴를 초래하고 말았다.

김정은 체제 주요 권력집단도 권력 및 이권 배분을 둘러싼 상호경쟁과 최고지도자 김정은의 전략적 견제 및 선택적 포섭 등으로 통치연합

에서 탈락할 수 있으며, 이는 체제 지속성에 대한 중대한 도전 제기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집트 사례를 거울삼아 보면, 김정은 선군시대에 특권적 지위를 누리다 김정은 정권 성립 이후 상대적으로 홀대 받아온 군부의 저항 또는 쿠데타 개연성에 초점을 맞춰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군부는 아래 도전들을 배경으로 유혈 쿠데타 또는 옹립형 정변으로 정권을 장악하여 체제전복을 실행·전환할 수 있다. [1] 조직적, 대규모적, 폭력적 주민저항의 발생,[183] [2] 국제사회 또는 주변국들과의 긴장고조 및 위기 상황발생과 준전시상태의 장기 지속, [3] 기존 독재권력 내 권력 투쟁으로 야기된 힘의 공백 등이 선행조건으로 제시될 수 있겠다. 군부 일부가 민간정치세력(당 조직 등) 일부 또는 외세(북한의 경우 중국 등)와 결탁하여 쿠데타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는 친족세력의 내부 반란 문제로서 다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이들 조건들은 독재체제가 군부에 의해 붕괴되는 환경적 요소로 간주할 수 있다.

주민 봉기 또는 국제적 위기는 군부의 세력 확장을 불러와 결국 쿠데타에 의한 군부 집권을 가능케 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주민의 저항과 반발이 거세지면서 주민 봉기가 발생하고, 주민의 저항이 조직화, 대규모화, 폭력화하면서 일반 경찰력으로는 진압이 힘들어지는 상황을 상정해 보자. 밑으로부터의 체제 전복 위기가 거세지면 기존 집권 세력은 군부의 세력 확장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체제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군부에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피지배 주민들의 반발과 저항, 그리고 외부 국가와의 분쟁 및 위기 상황은 경찰 및 군 등 체제 탄압조직과 종사자들이 득세하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 즉, 밑으로부터의 조직적·폭력적·대규모적 저항의 지속은 군부

183) Svolik, *The Politics of Authoritarian Rule*, pp. 123~161.

지배의 영속화를 초래했던 것이다. 유사 사례는 인도네시아 군부의 장기 집권에서도 보인다.[184]

군부 쿠데타는 민간정부가 대외적 갈등이나 내부 반발 진압을 위해 군부를 개입시키며, 군부의 무력에 체제의 생존을 의존하게 될 때 발생할 소지가 크다. 즉, 군부의 정치적 권력이 민간정치(당 포함) 부문과 대등하거나 능가할 때 가능해진다.[185] 이러한 전제 조건이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면, 설혹 모험주의적 장성이 무력 동원으로 일시적으로 정권을 탈취하더라도 군부 내 반대분파는 물론 여전히 강력한 정치 동원력을 지닌 민간정치 행위자 및 조직, 그리고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186]

군부에 의한 정권 장악은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의 거대한 민중 저항의 발생이나 기존 권력세력 중추의 결정적 소멸로 결정적으로 유리해진 군부의 세력 확장을 전제로 성립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기존 정치 세력과 군부의 팽팽한 대치 속에서 양 진영의 벼랑끝전술(Brinkmanship)이 쿠데타 상황으로 연결되곤 했다. 스볼리크(Svolik)의 지적처럼,[187] 군부 쿠데타는 군부가 민간정부나 정당에 대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을 때는 발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대규모 시민저항 등 강력한 체제 전복 위기 앞에서 민간정치인들도 군의 정치 개입의 필수불가결성을 인정하게 되면, 전술한

---

184) 이와 관련해 다음 참조. Slater, *Ordering Power*, pp. 73~114; Mary Callahan, "Myanmar's Perpetual Junta: Solving the Riddle of the Tatmadaw's Long Reign," *New Left Review*, vol. 60 (November/December 2009), pp. 27~63.

185) 이와 관련해 다음 참조. Svolik, *The Politics of Authoritarian Rule*, pp. 123~161; David Pion-Berlin and Craig Arceneaux, "Tipping the Civil- Military Balance: Institutions and Human Rights Policy in Democratic Argentina and Chile,"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 31, no. 5 (October 1998), pp. 633~661.

186) 이는 앞서 소개한 스페인 불발 쿠데타 사례를 상기시킴.

187) Svolik, *The Politics of Authoritarian Rule*, pp. 123~161.

군사보호정권이 무혈로 입성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소위 "통치하나 직접 다스리지는 않는(Ruling but Not Governing)" 형태로 군부독재체제를 수립할 수 있다.[188] 다시 말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획득한 군부는 직접 정부를 운영하지는 않으나 실질적으로 국가를 통치하는 통감정치형 감독체제(Tutelage Regime)를 구성, 일상적인 업무는 민간정부에 맡기나, 체제 변동 위기 시나 도전 세력이 등장할 때는 직접 개입하는 방식으로 지배할 수 있다.[189] 대표적인 예는 아랍의 봄 이전 이집트, 터키, 알제리 군부에 의한 민간정부의 감독체제를 들 수 있다. 터키 사례에서 볼 수 있다시피, 비상시 정치질서의 보호자로서 군의 정치 개입을 합법화한 헌법 규정이 있다.

그러나 민중의 저항이 압도적이지 않은 경우, 군부와 기존 세력은 팽팽한 권력의 줄다리기에 돌입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쿠데타 발생 전에 쿠데타 발생에 대한 정보나 첩보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성공한 쿠데타의 많은 경우에 쿠데타 음모가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곤 했다(한국 사례도 포함). 이는 이미 쿠데타 발생 전 민간정부와 군부 간 세력 경쟁과 대립이 가시화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이 경우 대등한 힘의 균형 속에서 민간정치 세력과 군부의 힘겨루기는 기존 체제가 봉착한 위기 상황(예, 시민저항이나 국제적 긴장)을 매개로 전개된다.

민간 정치인은 군부가 암묵적인 무력개입 위협에도 불구하고 쿠데타

188) 이집트 사례에서 보이는 이러한 현상에 주목하여 Cook의 한 저작에서는 이와 같이 명명되었다. Cook, *Ruling but Not Governing* 참조.

189) Tutelage Regime은 군부뿐만이 아니라, 이란 회교공화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종교조직 Hierocracy가 국가의 보호자(Guardians)로서 기능하기도 한다. 혁명 이후 이란 Guardian Council의 세속정치 감독 및 간섭의 양태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Said Amir Arjomand, *After Khomeini: Iran under His Successor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pp. 16~55.

등을 통해 정치일선에 전면적으로 나서길 꺼려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군부 역시 체제가 일반 경찰력과 당 조직의 운영만으로 위기 상황 극복이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제도화된 갈등 조정 기구나 양 진영의 대결을 무산시킬 수 있는 제3의 독립적 권력이 부재한 독재 체제에서 양 진영의 벼랑끝전술은 파국으로 치닫게 될 확률이 높다.[190] 결과적으로, 무력을 소유한 군부가 폭력적으로 민간정치 세력을 숙청하고 정권을 탈취하게 될 개연성도 높아진다.

앞서 지적했듯, 쿠데타 후 군부는 주민 및 당의 반발과 저항을 무마하며, 통치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여타 상징적 인물을 명목상의 지도자로 옹립할 수 있다. 또한 군부 실세가 참여하는 최종적 쿠데타 실행 이전에 전전 일본식 옹립형 친위쿠데타를 시도, 민간 정치인들의 제거를 통한 실권 장악에 나설 수도 있겠다.

쿠데타가 빈발했던 중동 지역 권위주의 체제 등지에서 반작용으로 반쿠데타(Coup-Proofing) 장치 역시 발전하였다. 국가능력의 미비에도 불구한 중동 권위주의체제의 장수 요인으로 반쿠데타 장치의 효율성이 거론되어 왔다.[191] 북한 체제에서도 2중, 3중으로 설치된 반쿠데타 장치(예, 친위대 창설, 정치장교들에 의한 군부 감시, 장성 간, 부대 간 경쟁 유발 장치 등)들이 군부 쿠데타에 의한 정권 붕괴 가능성을 낮추고 있는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반쿠데타 장치의 효율성만으로 쿠데타 억제 성공을 설명한다면 동어반복(Tautological)의 오류에 빠지게 될 것이다. 반쿠데타 장치의 실효성 자체가 정치적·역사적 맥락에

190) *Ibid.*, pp. 16~55.

191) 다양한 반쿠데타 장치와 그 한계에 대한 논의는 다음 참조. James T. Quinlivan, "Coup-proofing: Its Practice and Consequences in the Middle East," *International Security*, vol. 24, no. 2 (Fall 1999), pp. 131~165; Jonathan M. Powell, "Coups and Conflict: The Paradox of Coup-Proofing," (Ph.D. dissertations, University of Kentucky, 2012), pp. 19~72.

따르는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강력한 반쿠데타 장치가 성립 및 유지되는 구조적 배경이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 정밀하고 중첩된 쿠데타 방지 장치가 상대적으로 미약하지만, 쿠데타 시도는 거의 없다.

북한의 경우, 김정일 시대 이래 군부의 힘이 확장되면서 군부에 의한 쿠데타 발생이라는 상황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김정일은 소련 붕괴, 엘리트 및 주민의 체제 이탈이라는 이중의 체제 위기에 봉착했었는데, 이에 군의 폭력기제 강화 정책(즉, 선군정치)으로 대응하였다. 결국 군부의 권력 증대와 정치관여 확대를 초래했다. 그러나 김정일은 군부의 정치 개입을 김일성 통치 후반기부터 집적한 독재자로서의 권위와 유습을 통해 통제할 수 있었다.

아들 김정은은 강력한 정치 군부를 물려받았다. 그러나 이를 통제할 제도적 장치도, 개인적 카리스마나 권력의 집중도 부족한 형편이다. 현재 진행 중인 선당적 군부 견제는 비대해진 군부의 비중을 역설적으로 반증해 주는 것이다. 사실상 비대해진 군 조직과 이를 견제하는 민간독재자 조합이 완성되면서, 북한체제의 권위주의 정치사상 그 어느 시기보다도 군부의 반항과 저항이 예상될 수 있는 시점이 도래한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Anceschi, Luca. *Turkmenistan's Foreign Policy: Positive Neutrality and the Consolidation of the Turkmen Regime.* London: Routledge, 2009.

Arjomand, Said Amir. *After Khomeini: Iran under His Successor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Baker, Raymond. *Egypt's Uncertain Revolu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8.

Beinin, Joel. *The Struggle for Worker Rights in Egypt.* Washington, D.C.: Solidarity Center, 2010.

Bradley, John R. *Inside Egypt: The Land of the Pharaohs on the Brink of a Revolution.* New York: Palgrave, 2009.

Bratton, Michael, and Nicholas Van de Walle. *Democratic Experiments in Africa: Regime Transitions in Comparative Perspectiv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Brownlee, Jason. *Authoritarianism in an Age of Democrat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_____. *Democracy Prevention: The Politics of the US-Egyptian Allian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Calvert, John. *Sayyid Qutb and the Origins of Radical Islamism.* London: Hurst and Company, 2010.

Chehabi, H. E., and Juan J. Linz, eds. *Sultanistic Regimes.* Baltimore and London: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8.

Cook, Steven A. *Ruling but Not Governing: The Military and Political Development in Egypt, Algeria, and Turkey.*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7.

_____. *The Struggle for Egypt: From Nasser to Tahrir Squa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Erzow, Natasha, and Erica Frantz. *Dictators and Dictatorship: Understanding Authoritarian Regimes and their Leaders.* New York: Continuum, 2011.

Gandhi, Jennifer. *Political Institutions under Dictatorship.*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Geddes, Barbara. *Paradigms and Sand Castles: Theory Building and Research Design in Comparative Politic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3.

George, Alan. *Syria: Neither Breed nor Freedom*. London: Zed Books, 2003.

Hiro, Dilip. *Inside Central Asia: A Political and Cultural History of Uzbekistan, Turkmenistan, Kazakhstan, Kyrgyzstan, Tajikistan, Turkey, and Iran.* New York: Overlook Books, 2011.

Huntington, Samuel P.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8.

_____.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91.

Kandil, Hazem. *Soldiers, Spies and Statesmen: Egypt's Road to Revolt.* London: Verso, 2012.

Kedar, Mordechai. *Asad in Search of Legitimacy: Message and Rhetoric in the Syrian Press under Hafiz and Bashar.* Brighton: Sussex Academic Press, 2005.

Linz, Juan, and Alfred Stepan. *Modern Nondemocratic Regimes* in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6.

Lust, Ellen. *The Middle East*, 12th edition. Washington, D.C.: CQ Press, 2011.

Machiavelli, Niccolo. *The Pri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Magaloni, Beatriz. *Voting for Autocracy: Hegemonic Party Survival and Its Demise in Mexico*.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Mann, Michael. *States, War and Capitalism: Studies in Political Sociology*. New York: Blackwell, 1988.

Migdal, Joel. *Strong Societies and Weak States: State-Society Relations and State Capabilities in the Third Worl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8.

Noland, Marcus. *Korea after Kim Jong-il.*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04.

Nordlinger, Eric A. *Soldiers in Politics: Military Coups and Governments.* Englewood Cliff: Prentice-Hall, 1977.

O'Donnell, Guillermo, and Philippe C. Schmitter. *Transitions from Authoritarian Rule, Vol. 4: Tentative Conclusions about Uncertain Democracie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6.

Osman, Tarek. *Egypt on the Brink: From the Rise of Nasser to the Fall of Mubarak.*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0.

Owen, Roger. *The Rise of and Fall of Arab Presidents for Lif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12.

Perthes, Volker. *The Political Economy of Syria under Asad.* London: I. B. Tauris, 1995.

Peyrouse, Sebastien. *Turkmenistan: Strategies of Power, Dilemmas of Development.* New York: M.E. Sharpe, 2012.

Pratt, Nichola. *Democracy and Authoritarianism in the Arab World.* Boulder: Lynne Rienner, 2007.

Robertson, Graeme B. *The Politics of Protest in Hybrid Regimes: Managing Dissent in Post-Communist Russia.*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Rutherford, Bruce K. *Egypt after Mubarak: Liberalism, Islam, and Democracy in the Arab Worl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2.

Schedler, Andreas. *The Politics of Uncertainty: Sustaining and Subverting Electoral Authoritarian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Schumpeter, Joseph A.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New York: Harper Perennial, 1975.

Siani-Davies, Peter. *The Romanian Revolution of December 1989.*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7.

Slater, Dan. *Ordering Power: Contentious Politics and Authoritarian Leviathans in Southeast Asia.*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Soliman, Samer. *The Autumn of Dictatorship: Fiscal Crisis and Political Change in Egypt under Mubarak.*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6.

Stacher, Joshua. *Adaptable Autocrats: Regime Power in Egypt and Syri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2.

Svolik, Milan W. *The Politics of Authoritarian Rul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Vatikiotis, P. J. *The Egyptian Army in Politics: Pattern for New Nation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61.

Weber, Max. *Economy and Socie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6(1977).

Wickham, Carrie Rosefsky. *Mobilizing Islam: Religion, Activism, and Political Change in Egypt.*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2.

Wintrobe, Ronald. *The Political Economy of Dictatorship.*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2. 논문

이지은. "투르크메니스탄 권위주의체제연구." 『아시아문화연구』. 제22집, 2011.

황영삼. "투르크메니스탄 민족국가 형성에 관한 연구: 20세기 초 투르크멘 공화국 체제의 출범 배경과 쟁점 및 의의." 『슬라브학보』. 제30권 1호, 2015.

Angrist, Michele Penner. "Morning in Tunisia: The Frustrations of the Arab World Boil Over." In *The New Arab Revolt: What Happened, What It Means, and What Comes Next.* edited by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New York: Foreign Affairs, 2011.

Bellin, Eva. "Coercive Institutions and Coercive Leaders." In *Authoritarianism in the Middle East: Regimes and Resistance.* edited by Marsha P. Posusney and Michele P. Angrist. Boulder: Lynne Rienner Publishers, 2005.

Brownlee, Jason. "...And Yet They Persist: Explaining Survival and Transition in Neopatrimonial Regimes." *Studies in Comparative International Development.* vol. 37, no. 3. Fall 2002.

_____. "Hereditary Succession in Modern Autocracies." *World Politics.* vol. 59, no. 4. July 2007.

_____. "The Decline of Pluralism in Mubarak's Egypt." *Journal of Democracy.* vol. 13, no. 4. October 2002.

_____. "The Heir Apparency of Gamal Mubarak." *Arab Studies Journal.* vol. 15/16, no. 2/1. Fall 2007/ Spring 2008.

Burnell, Peter and Oliver Schlumberger. "Promoting Democracy - Promoting Autocracy? International Politics and the National Political Regimes." *Contemporary Politics.* vol. 16, no. 1. 2010.

Byman, Daniel and Jennifer Lind. "Pyongyang's Survival Strategy: Tools of Authoritarian Control in North Korea." *International Security.* vol. 35, no. 1. Summer 2010.

Callahan, Mary. "Myanmar's Perpetual Junta: Solving the Riddle of the Tatmadaw's Long Reign." *New Left Review.* vol. 60. November/December 2009.

El-Mahdi, Rabab. "Enough! Egypt's Quest for Democracy."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 42, no. 8. August 2009.

Englebert, Pierre and Denis M. Tull. "Postconflict Reconstruction in Africa: Flawed Ideas about Failed States." *International Security.* vol. 32, no. 4. Spring 2008.

Fishman, Robert. "Rethinking State and Regime: Southern Europe's Transition to Democracy." *World Politics.* vol. 42, no. 3. April 1990.

Frisch, Hillel. "Guns and Butter in the Egyptian Army." In *Armed Forces in the Middle East: Politics and Strategy.* edited by Barry Rubin and Thomas A. Keaney. London: Routledge, 2002.

Gandhi, Jennifer, and Adam Przeworski. "Authoritarian Institutions and the Survival of Autocrat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 40, no. 11. 2007.

Geddes, Barbara. "What Do We Know about Democratization after Twenty Year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vol. 2. 1999.

Geddes, Barbara, Joseph Wright, and Erica Frantz. "Autocratic Breakdown and Regime Transitions: A New Data Set." *Perspectives on Politics.* vol. 12, no. 2. 2014.

Gotowicki, Stephen H. "The Military in the Egyptian Society." In *Egypt at the Crossroads: Domestic Stability and Regional Role.* edited by US Department of Defense. Washington, D.C.: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1999.

Haber, Stephen H. "Authoritarian Regimes." In *The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Economy.* edited by Barry R. Weingast and Donald Wittma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Harb, Imad. "The Egyptian Military in Politics: Disengagement or Accommodation?" *The Middle East Journal.* vol. 57, no. 2. 2003.

Hinnebusch, Raymond. "Syria." In *The Middle East*, 12th edition. edited by Ellen Lust. Washington, D.C.: CQ Press, 2011.

Horak, Slavomir. "Changes in the Political Elite in Post-Soviet Turkmenistan." *China and Eurasia Forum Quarterly.* vol. 8, no. 3. 2010.

_____. "The Elite in Post-Soviet and Post-Niyazow Turkmenistan: Does Political Culture Form a Leader?" *Demokratizatsiya.* vol. 20, no. 4. 2012.

Isaacs, Rico. "Charismatic Routinization and Problems of Post-Charisma Succession in Kazakhstan, Turkmenistan and Uzbekistan." *Studies of Transition States and Societies.* vol. 7, no. 1. 2015.

Jackson, Nicole J. "The Role of External Factors in Advancing Non-Liberal Democratic Forms of Political Rule: A Case Study of Russia's Influence on Central Asian Regimes." *Contemporary Politics.* vol. 16, no. 1. 2010.

Koldunova, Ekaterina. "The Impact of the Arab Spring on Central Asia: Regional and Macro-regional Implications." In *Security in Shared Neighbourhood: Foreign Policy of Russia, Turkey and the EU.* edited by Rémi Piet, and Licínia Simão. London: Palgrave Macmillan, 2016.

Kunyaz, Nicolas. "From Sultanism to Neopatrimonialism?: Regionalism within Turkmenistan." *Central Asian Survey.* vol. 31, no. 1. 2012.

Kuran, Timur. "Now Out of Never: The Element of Surprise in the East European Revolution of 1989." *World Politics*, vol. 44, no. 1. October 1991.

Lange, Sarah. "The End of Social Media Revolutions." *The Fletcher Forum of World Affairs.* vol. 38, no. 1. 2014.

Magaloni, Beatriz, and Ruth Kricheli. "Political Order and One-Party Rule."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vol. 13. 2010.

Moghadam, Valentine, and Tabitha Decker. "Social Change in the Middle East." In *The Middle East,* 12th edition. edited by Ellen Lust. Washington, D.C.: CQ Press, 2011.

Mohsen, Milani. "Why Tehran Won't Abandon Assad(ism)." *Washington Quarterly.* vol. 36, no. 4. 2013.

Pion-Berlin, David, and Craig Arceneaux. "Tipping the Civil-Military Balance: Institutions and Human Rights Policy in Democratic Argentina and Chile."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 31, no. 5. October 1998.

Polese, Abel, and Slavomir Horak. "A Tale of Two Presidents: Personality Cult and Symbolic Nation-Building in Turkmenistan." *Nationalities Papers.* vol. 43, no. 3. 2015.

Powell, Jonathan M. "Coups and Conflict: The Paradox of Coup-Proofing." Ph.D. dissertations, University of Kentucky. 2012.

Quinlivan, James T. "Coup-proofing: Its Practice and Consequences in the Middle East." *International Security.* vol. 24, no. 2. Fall 1999.

Remmer, Karen L. "Neopatrimonialism: The Politics of Military in Chile, 1973-1987." *Comparative Politics.* vol. 21, no. 1. January 1989.

Roth, Guenther. "Personal Rulership, Patrimonialism, and Empire -Building in the New States." *World Politics.* vol. 20, no. 2. January 1968.

Schedler, Andreas. "The Menu of Manipulation." *Journal of Democracy*. vol. 13, no. 2. 2002.

Shehata, Dina. "The Fall of the Pharaoh: How Hosni Mubarak's Regime Came to an End." *Foreign Affairs.* vol. 90, no. 3. May/June 2011.

Soage, Ana Belen, and Jorge Fuentelsaz Franganillo. "The Muslim Brothers in Egypt." In *The Muslim Brotherhood: The Organization and Policies of a Global Islamist Movement.* edited by Barry Rubin. London: Palgrave, 2010.

Sullivan, Charles J. "Halk, Watan, Berdymukhammedov!: Political Transition and Regime Continuity in Turkmenistan." *Region: Regional Studies of Russia, Eastern Europe, and Central Asia.* vol. 5, no. 1. 2016.

Svolik, Milan W. "Power Sharing and Leadership Dynamics in Authoritarian Regim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53, no. 2. 2009.

Terterov, Marat. "Lessons from Political Liberalization." *Civil Society.* vol. 5, no. 54. June 1996.

Theobald, Robin. "Patrimonialism." *World Politics*. vol. 34, no. 4. July 1982.

Van de Walle, Nicholas. “Meet the New Boss, Same as the Old Boss? The Evolution of Political Clientism in Africa.” In *Patrons, Clients, and Policies: Patterns of Democratic Accountability and Political Competition.* edited by Herbert Kitschelt and Steven I. Wilkins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宮田律. “シリア·アラウィー派の特色とその支配の歴史的背景.” 中東協力センターニュース中東情勢分析. 第37, 1集. April/May 2012.

木之内秀彦. “ネオ権威主義の相貌 / 独裁者たちのサバイバル能力.” 『鈴鹿國際大學紀要』. 第21集. 2015年.

3. 기타자료

『동아일보』.

BBC.

Syrian Arab News Agency.

장지향, Peter Lee. “알려지지 않은 참상인가 고의적인 무관심인가? 북한과 시리아 인권침해 실태의 비교분석.”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14.7.17.

Büchs, Annette. “The Resilience of Authoritarian Rule in Syria under Hafez and Bashar Al-Assad.” *GIGA Working Paper.* no. 97. March 2009.

Bueno de Mesguita, Bruce and George W. Downs. “Development and Democracy.” *Foreign Affairs*. Essay. September/October 2005 Issue.

Huff, Bruce. "Options for Reforming Syrian Agricultural Policy Support Instrument in View of WTO Accession." FAO-Italy Government Cooperative Programme, Project GCPISYR10061ITA. October 2004.

Geddes, Barbara. "Party Creation as an Autocratic Survival Strategy." Unpublished Research Paper. April 2008.

Haran, V. P. "Roots of the Syrian Crisis." IPCS Special Report. no. 181. March 2016.

Henry, Clement Moore, and Robert Springborg. "A Tunisian Solution for Egypt's Miliary." *Foreign Affairs.* 2011.2.21.

Jardine, Bradley. "Offshore Turkmenistan: 'Sultanism'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 Diplomat.* 2015.9.21.

Khaddour, Kheder. "The Assad Regime's Hold on the Syrian State." Carnegie Middle East Center Report. July 2015.

Lind, Jennifer. "The Once and Future Kim: Succession and Stasis in North Korea." *Foreign Affairs.* Snapshot. 2010.10.25.

Nichol, Jim. "Turkmenistan: Recent Developments and U.S. Interests." Congressional Research Report 7-5700, 2013.12.15

O'Bagy, Elizabeth. "Syria's Political Struggle: Spring 2012." Backgrounder, 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 June 7, 2012.

Vasquez, Joshua. "The Survival of Authoritarianism and the Syrian Identity Crisis: Explaining the Resilience of Assad's Ruling Bargain." University of Washington Tacoma. PPPA Paper Prize. 2016.6.8.

高岡豊. “なぜアサド政権は倒れないのか？――シリア情勢の現状と課題,” Synodos, 2013.7.2.

아산정책연구원. 〈asaninst.org〉.

Arab Center for Research & Policy Studies. 〈http://english.dohainstitute.org〉.

Carnegie Middle East Center. 〈carnegie-mec.org/?lang=en〉.

The Diplomat. 〈thediplomat.com〉.

Foreign Affairs. 〈www.foreignaffairs.com〉.

Freedom House. 〈freedomhouse.org〉.

Synodos. 〈synodos.jp〉.

UNHCR. 〈www.unhcr.org〉.

WikiLeaks. 〈wikileaks.org〉.

최근 발간자료 안내

KINU 통일포럼 시리즈

2014-01 제1차 KINU 통일포럼: 「드레스덴 구상」과 '행복한 통일' 통일연구원
2014-02 제2차 KINU 통일포럼: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핵보유 및 대남정책 통일연구원
2014-03 제3차 KINU 통일포럼: 북일 스톡홀름 합의와 동북아정세 통일연구원
2014-04 제4차 KINU 통일포럼: 통일준비를 위한 과제와 전략 통일연구원
2014-05 제5차 KINU 통일포럼: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향 통일연구원
2014-06 제6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 통일연구원
2015-01 제7차 KINU 통일포럼: 동북아 국제질서 전환기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와 통일·외교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2015-03 제9차 KINU 통일포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업그레이드 전략 – 8·25남북합의 평가와 박근혜정부 후반기 대북·통일정책 방향 – 통일연구원
2015-04 제10차 KINU 통일포럼: 통일담론 3.0과 북한 변화 전략 통일연구원
2015-05 제11차 KINU 통일포럼: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대내외 정책 평가와 전망 통일연구원
2016-01 제12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와 대북정책방향 통일연구원
2016-02 제13차 KINU 통일포럼: 북한 제7차 당대회 분야별 평가 및 향후 전망 통일연구원
2016-03 제14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한국의 북한인권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통일나침반(통일정세분석)

▮ 통일정세분석 ▮

2014-01 2014년 북한 신년사 분석 박형중 외
2014-02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 회의결과 분석과 전망 박영자 외
2014-03 한미 정상회담 결과 분석 김규륜

▮ 통일나침반 ▮

2015-01 2015년 북한 신년사 분석 북한연구센터 신년사 분석팀
2015-02 최근 2년 간 미·일·중·러 4개국 정상외교 분석 및 한국 통일외교에 대한 시사점 김진하 외
2015-03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과 실천과제 한동호, 도경옥
2015-04 북한 외화벌이 추세와 전망 김석진
2015-05 연해주 지역 북한 노동자의 실태와 인권 이애리아, 이창호
2016-01 효율적 대북제재: 데이터 분석과 함의 이 석
2016-02 2016년 북한 신년사 분석 김갑식 외
2016-03 4차 북핵실험 이후 대북정책 통일연구원 현안대책팀
2016-04 4차 북핵실험 이후 정세 전개와 향후 전망 통일연구원 현안대책팀
2016-05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반도 정세 및 대응 방안 통일연구원 북핵대응 T/F팀
2016-06 4차 북핵실험 이후 미중관계와 대북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대외협력팀

통일플러스

2015-01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1 (봄호)	통일연구원
2015-02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2 (여름호)	통일연구원
2015-03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3 (가을호)	통일연구원
2015-04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4 (겨울호)	통일연구원
2016-01 KINU 통일 + Vol.2 No. 1 (봄호)	통일연구원
2016-02 KINU 통일 + Vol.2 No. 2 (여름호)	통일연구원
2016-03 KINU 통일 + Vol.2 No. 3 (가을호)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4	한동호 외 24,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4	한동호 외 23,000원
북한인권백서 2015	도경옥 외 19,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5	도경옥 외 23,000원
북한인권백서 2016	도경옥 외 18,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6	도경옥 외 22,500원

연구보고서

2014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2014-01	북·중 간 인적 교류 및 네트워크 연구	이교덕 외	7,500원
2014-02	북한변화 촉진 및 남북친화성 증대: 이론발굴과 적용모색	박형중, 박영자	7,500원
2014-03	북한 비공식 경제 성장요인 연구	김석진, 양문수	9,000원
2014-04	신동북아질서 시대의 중장기 통일전략	성기영 외	7,000원
2014-05	'행복한 통일'로 가는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통합정책: EC/EU 사례 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손기웅 외	6,000원
2014-06	탈북청소년의 경제 경험과 정체성 재구성	조정아, 홍민, 이희영, 이향규, 조영주	14,000원
2014-07	한국의 대북 인권정책 연구	한동호	6,000원
2014-08	법치지원과 인권 증진: 이론과 실제	이금순, 도경옥	8,000원
2014-09	신뢰정책의 과제와 추진전략	박영호, 정성철 외	11,000원
2014-10	대미(對美)·대중(對中) 조화외교: 국내 및 해외 사례연구	김규륜 외	10,500원
2014-11	북한의 핵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	정영태, 홍우택 외	12,000원
2014-12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 연구: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에 대한 함의	이기현, 김애경, 이영학	7,000원

2014-13 한반도에 있어서 과도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김수암 외
2014 The Trust-building Process and Korean Unification (통일대계연구 13-03)
최진욱 편저 8,000원
2014 중국 권력엘리트와 한중교류 네트워크 분석 및 DB화 (중국 지도부의 리더십 분석과 한중 정책협력방안 2014) 전병곤, 홍우택, 신종호 외 9,000원
2014 북한의 시장화와 인권의 상관성 (북한인권정책연구 2014) 북한인권연구센터 11,000원
2014 동북아 4국의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과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
배정호, 봉영식, 한석희 외 9,500원
2014 2014년 통일예측시계 박영호, 김형기 9,500원
2014 통일한국의 국가상과 한중협력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2014-01)
배정호 외 15,500원
2014 China's Strategic Environment and External Relations in the Transition Period (A Comprehensive Strategic Study on China in Preparation for Korean Unification 2014-02)
Bae, Jung-Ho et al. 18,000원
2014 Global Expectations for Korean Unification (Research on Unification Costs and Benefits 2014-01) Kyuryoon Kim et al. 19,000원
2014 Lessons of Transformation for Korean Unification (Research on Unification Costs and Benefits 2014-02) Kyuryoon Kim et al. 15,500원
2014 한반도 통일의 효과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4-3) 김규륜 외 4,500
2014 2014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종철, 허문영, 송영훈, 김갑식, 이상신, 조원빈 12,000원
2014 통일교육 컨텐츠 개발 IV(1) 조정아 외 7,000원
2014 통일교육 컨텐츠 개발 IV(2) 조정아 외 22,000원
2014 신통일대계 구현을 위한 구조분석 허문영 외 12,000원
2014 Law and Policy on Korean Unification: Analysis and Implications 박종철 외 11,000원
2014 '그린 데탕트' 실천전략 환경공동체 형성과 접경지역-DMZ 평화생태적 이용방안
손기웅 외 17,000원

▮ 정책연구시리즈 ▮

2014-01 농업분야의 지속가능한 대북지원 및 남북 협력방안 모색 임강택, 권태진

▮ Study Series ▮

2014-01 Korea's FTA Strategy and the Korean Peninsula Kim, Kyuroon et al.
2014-02 The Perceptions of Northeast Asia's Four States on Korean Unification
Bae, Jung-Ho et al.
2014-03 The Emergence of a New Generation: The Generational Experience and Characteristics of Young North Koreans Cho, Jeong-ah et al.
2014-04 Geopolitics of the Russo-Korean Gas Pipeline Project and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Lee, Kihyun et al.
2014-05 Fiscal Segmentation and Economic Changes in North Korea
Park Hyeong Jung, Choi Sahyun
2014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9권 1호 이금순 외

2015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2015-01 김정은 정권의 정치체제: 수령제, 당·정·군 관계, 권력엘리트의 지속성과 변화 김갑식 외 9,000원
2015-02 북한의 시장화와 사회적 모빌리티: 공간구조 · 도시정치 · 계층변화 홍 민 13,000원
2015-03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정책 · 교육과정 · 교과서 조정아 외 13,500원
2015-04 2015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인식, 요인, 범주, 유형 박종철 외 16,500원
2015-05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추진을 위한 다자주의적 접근 현승수 외 8,000원
2015-06 북한주민의 임파워먼트: 주체의 동력 박영자 외 10,500원
2015-08 인권개선을 위한 기술협력 한동호 외 6,500원
2015-09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과 대북정책: 사례와 적용 이기현 외 7,500원
2015-10 한반도 중장기 정세 변동 및 정책 도전 관련 요인의 식별(2015~2030) 박형중 외 16,500원
2015 '그린 데탕트' 실천전략: 환경공동체 및 경제공동체 동시 형성방안 손기웅 외 10,500원
2015 2015년 통일예측시계 홍석훈 외 10,000원
2015 남북한 통합과 북한의 수용력: 제도 및 인식 측면 김수암 외 15,500원
2015 북한에 의한 납치 및 강제실종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10,000원
2015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이규창 외 8,000원
2015 통일외교 콘텐츠 개발 김진하 외 9,000원
2015 통일 이후 국가정체성 형성방안: 이론과 사례연구 중심 박종철 외 10,000원
2015 통일 이후 사회보장제도 분리 운영방안: 경제적 및 법적 분석 김석진 외 8,000원
2015 한반도 통일의 비용과 편익: 정치 · 사회 · 경제분야 조한범 외 11,500원
2015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와 역할: 주변 4국과 G20 조한범 외 14,000원
2015 북한 접경지역에서의 남·북·중 협력방향 모색(종합요약보고서) 전병곤 외 10,000원
2015 길림성의 대북경제협력 실태 분석: 대북투자를 중심으로 배종렬 외 13,000원

▮ 정책연구시리즈 ▮

2015-01 전환기 쿠바와 북한 비교: 정책적 함의 박영자 외

▮ Study Series ▮

2015-01 Tasks and Implementing Strategies of the "Trust-Building" Policy Park, Young-Ho
2015-02 The Growth of the Informal Economy in North Korea Kim, Suk-Jin
2015-03 The Experiences of Crossing Boundaries and Reconstruction of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s' Identities Cho, Jeong-ah et al.
2015-04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Policie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KINU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Studies

2016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2016-01 북한 핵 개발 고도화의 파급영향과 대응방향 정성윤 외 14,000원

2016-02 일본 아베정권의 대외전략과 대북전략 이기태, 김두승 6,500원
2016-04 과학기술발전과 북한의 새로운 위협: 사이버 위협과 무인기 침투 정구연, 이기태 6,000원
2016-05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및 통일담론: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분석 오경섭, 이경화 8,000원
2016-06 남북통일과 국가재산·채무·양허권의 승계 이규창 8,000원
2016-0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주화 외 12,000원
2016-08 대북정책전략 수단 효용성 분석: 이란의 경험과 경제제재를 중심으로 홍우택 외 7,000원
2016-09 북한 민생경제 진흥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 김석진, 홍제환 8,000원
2016-10 북한 기업의 운영실태 및 지배구조 박영자 외 13,000원
2016-11 북한에서 사적경제활동이 공적경제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 조한범 외 9,500원
2016-12 북한인권 제도 및 실태 변화추이 연구 임예준 외 8,500원
2016-13 최근 중동사태에 비추어본 북한 체제지속성 연구 김진하 외 7,000원
2016-14 「그린데탕트」 실천전략: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사업을 중심으로 조한범 외 7,000원
2016-15 Pathways to a Peaceful Korean Peninsula: Denuclearizatio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도경옥 외
2016-16 한중수교이후 북중관계의 발전: 추세분석과 평가 이기현 외 8,000원
2016-17 국내적 통일준비 역량 강화방안 김수암 외 8,500원
2016-18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탈북민 인식조사 김수암 외 15,000원
2016-19 전환기 남북관계 영향 요인 및 향후 정책 방향 신종호 외 16,500원
2016-20 북한인권 책임규명 방안과 과제: 로마규정 관할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문제를 중심으로 이규창 외 12,000원
2016-21 2016년 통일예측시계 홍우택 외 7,000원
2016-22 남북한 주민의 통일국가정체성 인식조사 박종철 외 19,000원
2016-23 구술로 본 통일정책사 홍민 외 13,000원
2016-24 북한 전국 시장 정보 홍민 외 17,000원

▮ 정책연구시리즈 ▮

2016-01 미국 대선 주요 후보의 Think-Tank 및 의회 네트워크 분석 정구연, 민태은

▮ Study Series ▮

2016-01 Identifying Driving Forces for Changes and Policy Challenges on the Korean Peninsula (2015-2030) Park, Hyeong Jung et al.
2016-02 China's Neighborhood Diplomacy and Policies on North Korea: Cases and Application Lee, Ki-Hyun et al.
2016-03 The Costs and Benefits of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Areas Cho, Han-Bum et al.
2016-04 Development of Unification Diplomacy Contents Kim, Jin-Ha
2016-05 South and North Korean Integration and North Korea's Adaptability: From the Perceptive Point of View Kim, Soo-Am et al.

연례정세보고서

2014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4~2015	6,000원
201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5~2016	8,000원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23권 1호 (2014)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3, No. 1 (201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3권 2호 (2014)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3, No. 2 (201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4권 1호 (2015)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4, No. 1 (201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4권 2호 (2015)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4, No. 2 (2015)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4, No. 3 (201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5권 1호 (2016)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5, No. 1 (2016)	10,000원

기 타

2014 북핵일지 1955~2014	조민, 김진하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9, E-Mail: books@kinu.or.kr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신청서

* 표는 필수항목입니다.

성 명*			입 급 일 자*	
소 속*			입 금 자 (신청자와 다를 경우)	
간 행 물* 받 을 주 소	(우편번호 :) **※도로명 주소 기입必**			
연 락 처*	전 화		이메일	
	핸드폰		F A X	
이메일서비스	수신 ( ) 수신거부 ( )			
회 원 구 분*	학생회원 ( ) 일반회원 ( ) 기관회원 (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통일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연구원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도서회원 가입 신청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사항: 성명, 입금일자, 소속, 주소, 연락처, 회원구분
   ○ 선택사항: 입금자, 이메일서비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금일로부터 1년
   ※ 회원자격 갱신 시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1년간 연장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안내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도서 회원 가입 및 발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 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보내주십시오.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앞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9, E-Mail: books@kinu.or.kr

※ 온라인 신한은행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